

고린도전후서 이야기

고린도교회와그리스문화

조동호 지음



마라나타(Marana Tha: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CORINTHIAN CHURCH
in the Ancient Greek Cultur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5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바울은 그리스의 소돔이었던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고린도교회는 구정물 속에서 핀 수련이나 다름없었다. 바울은 구정물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마음과 영혼에 낀 때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지만, 몸까지 구정물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죽어서 하늘나라로 이주하기까지는 구정물 세상에 빠져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또다시 때가 끼고 얼룩이 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요 자연의 법칙이다. 이 같은 원리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점차 마음과 영혼에 때가 끼고 얼룩이 졌다. 그 같은 것들에 파당과 분열(1장), 음행(5장), 소송사건(6장)이 있었고,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기 힘든 즉 본질이 아닌 문제들(adiaphora)로 논쟁이 일어났다. 그 같은 논제들에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7장),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8장)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이교문화에 젖어있던 습성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했고(10-14장),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15장)이 있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에 포함된다. 이 무렵에는 아직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정립되어있지 않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문제들은 시기와 분쟁, 지혜와 능력, 신비 혹은 비밀, 영적 성숙과 미성숙, 우상숭배와 음행, 송사와 자유와 절제, 독신과 금욕, 결혼과 이혼 또는 재혼, 우상의 제물, 이교 축제와 주의 만찬, 자유와 권리, 여성교인들의 지위, 타고난 은사와 신령한 은사, 사랑과 부활 등이다. 그것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과 같은 민

족, 문화, 관습, 종교에 연결된 것들이었다.

고린도전서에는 세 가지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첫 번째가 세계의 절반을 부정하게(treyf) 보고 그것들을 율법과 규례로 막고자 한 것이었다. 율법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피해자들은 항상 약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편향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았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들과의 교제를 차단시켰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가 정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것이 지금도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이유이다.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악하게 보고 남용해도 좋다고 본 것이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자유지상주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항상 약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쾌락주의에 편향된 영지주의 헬라인들이었다. 그들은 약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지배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희생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세계를 만든 창조주는 저급한 신이고, 참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없다며 성육신을 부정하였다.

세 번째는 세계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본 것이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사용하는 동기, 목적, 방법에 따라서 그것들이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는데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사랑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혜택이 항상 약자들에게 돌아갔다.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였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였으나 바울은 제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였다. 예수님의 흔적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흔적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나타나는 희생의 흔적이다. 이 흔적은 그 속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낸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의 판단을 사랑이 한다고 보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함의 척도는 세움(살림)이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로써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한 것은 사랑과 예언이 세움(살림)과 권면과 위로의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만일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최고조에 이른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구제와 봉사도,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포하였다.

예언은,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계시)을 쉽고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여 회개(권면)와 회복(희망과 위로)으로써 성도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 예언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23)와 “십자가에 관한 말씀”(고전 1:18)이자, 신령한 것이며, 교회가 세워진 기초이다.

예언의 핵심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교회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음식물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이 음식물의 물질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과 주의 만찬은 사랑과 예언과 더불어 교회공동체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본서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고고학, 그리스 로마 문화와 관습,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신화 등에서 추린 그림과 사진들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담긴 글이다. 이를 위해서 각 장마다 3매에서 9매까지의 그림들을 삽입하였고, 총 170여장의 그림과 사진들을 사용하였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4일
조동호 목사

6 / 고령도전후서 이야기: 고령도교회와 그리스도인

차례

머리말	3
1.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고전 1:1-9)	
그리스의 소돔이었던 고린도	15
그리스 문화의 상징 아폴론	16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18
2. 하나님의 교회의 열매지우기(고전 1:10-17)	
흙탕물의 영향	20
일치와 분열의 양면성	21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합	21
3.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1(고전 1:18-25)	
인류의 십자가의 도(道)	25
신성(神聖)을 상징한 신앙 뿔	26
참 신과 영웅	27
4.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2(고전 1:26-31)	
예수님의 올바른 손 내밀기	30
이브의 잘못된 손 내밀기	31
모세의 올바른 손 내밀기	33
5.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2:1-5)	
하나님의 증거	35
하나님의 능력	36
짐승의 능력	37
6.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2:6)	

세상의 지혜	40
헬라인들의 영지(gnosis) 추구	41
통치자들의 지혜	43
7.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2:7-16)	
하나님의 신비(비밀)한 지혜: 바울과 영지주의자	45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46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47
8.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3:1-9)	
영적 성숙과 미성숙	50
시기와 분쟁	51
하나님의 집(밭)과 일꾼	53
〈정리〉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54
9.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3:10-23)	
하나님의 교회의 터	55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	56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	58
10.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4:1-21)	
사도들의 역할	61
사도들의 전통	62
사도들의 헌신	63
11.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5:1-13)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	66
우상숭배금지과 음행의 맥락	67
고린도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음행문제	68
12.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6:1-11)	
유대교 회당의 전통	72
아가야 총독 갈리오와 고린도 법정	73
교회의 윤리수준	75

13.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6(고전 6:12-20)	
자유지상주의	77
무신론	78
자유에 대한 제한	79
14.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7(고전 7:1-9, 25-40)	
독신과 금욕의 목적	82
결혼의 목적	83
바울의 남녀평등주의	85
15.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8(고전 7:10-24)	
이혼에 대한 바울의 관점	87
바울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신분	88
사회적 신분에 대한 바울의 관점	90
16.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9(고전 8:1-13)	
시장에서 판매된 고기	92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판단근거	93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대안	95
17.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0(고전 9:1-14)	
바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97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의 비판	98
비판에 대한 바울의 변호	100
18.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1(고전 9:15-27)	
하나님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신 몸의 흔적	102
바울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몸의 흔적	103
본질이 아닌 중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105
19.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2(고전 10:1-13)	
출애굽 모형	107
출애굽 모형의 교훈(1)	108
출애굽 모형의 교훈(2)	110

20.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3(고전 10:14-22)	
출애굽 모형의 교훈(3)	112
유월절 축제(Pesach Seder)와 주의 만찬	113
이방인의 축제와 주의 만찬	115
21.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4(고전 10:23-33)	
우상이 된 자유	117
제한된 자유	119
세계관에서 본 자유	120
22.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1(고전 11:1-16)	
유대인들의 복장	122
그리스-로마인들의 복장	123
그리스도인들의 복장	125
23.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2(고전 11:17-34)	
유대교축제와 주의 만찬	128
이교축제와 주의 만찬	129
기독교축제로써의 주의 만찬	131
24.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3(고전 12:1-3)	
바울의 손 내밀기	133
유대교의 신비주의	134
이교의 신비주의	136
25.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4(고전 12:4-31)	
신성한 광기	138
광기와 은사의 차이	139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	141
26.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5(고전 13:1-13)	
몸과 지체들의 상호작용	143
아가페(Agape)와 에로스(Eros)의 차이	144

아가페 사랑	146
27.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16(고전 14:1)	
이교들의 예언	149
구약성서의 역사관	150
성서에서의 예언	152
28.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7(고전 14:2-40)	
신령함의 척도	154
오순절 방언운동의 뿌리	155
공적 예배에서의 질서	157
29.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8(고전 15:1-11)	
“전하여 준 대로”(kathos paredoka)	159
“성경대로”(kata tas graphas)	160
예수부활의 정황증거들	162
30.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9(고전 15:12-34)	
“죽은 자의 부활” 개념	164
“죽은 자의 부활” 신뢰도	165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67
31.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10(고전 15:35-58)	
불로불사를 꿈꾸는 인간	169
육의 몸과 신령한 몸	171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	172
32.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11(고전 16:1-24)	
제3차 선교 마무리를 위한 계획	175
권면과 인사	176
일요일 예배와 내용	178
33.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1(고후 1:1-7)	
그리스와 터키를 잇는 선교허브	180

바울의 적대자들	181
바울의 유대교 회당 전도	183
34.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2(고후 1:8-11)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1)	185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2)	186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3)	188
35. 갈등과 화해1(고후 1:12-24)	
고린도전후서가 쓰인 배경	190
바울의 고린도 방문취소에 대한 해명(1)	191
바울의 적대자들: 에비온파	193
36. 갈등과 화해2(고후 2:1-13, 7:5-16)	
바울의 고린도 방문취소에 대한 해명(2)	196
바울의 고린도 방문취소에 대한 해명(3)	197
화해의 편지의 결론문구	199
37. 화해의 복음1(고후 2:14-17)	
모형으로써의 개선행진(Pax Romana)	201
실체으로써의 개선행진(Pax Christi)	202
그리스도의 향기로써의 개선행진	204
38. 화해의 복음2(고후 3:1-6)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206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충돌	207
에비온파의 활동	209
39. 화해의 복음3(고후 3:7-18)	
모세와 옛 언약	212
모세 얼굴의 영광	213
모세 얼굴의 베일	215
40. 화해의 복음4(고후 4:1-18)	

하나님의 형상	217
질그릇 속의 보화	218
심히 큰 능력	220
41. 화해의 복음5(고후 5:1-10)	
죽음을 삼킬 생명	222
인감과 보증금 되신 성령님	223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225
42. 화해의 복음6(고후 5:11-21)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	227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던 자들	228
화해의 복음	230
43. 화해의 복음7(고후 6:1-13)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	232
하나님의 일꾼의 역사인식(1)	233
하나님의 일꾼의 역사인식(2)	235
44. 화해의 복음8(고후 6:15-18)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237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238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240
45. 화해의 복음9(고후 7:1-16)	
위로에 대한 약속을 끌어내는 믿음	242
위로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키는 회개	243
위로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기쁨	245
46. 하나의 믿음을 위한 선물1(고후 8:1-15)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부조금 모금	247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풍성한 연보	248
상호균등 혹은 상호보충의 원리	250
47. 하나의 믿음을 위한 선물2(고후 8:16-24)	

고린도교회에 파송된 자들	252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	253
바울의 동역자들	255
48. 하나의 믿음을 위한 선물3(고후 9:1-15)	
성도를 섬기는 일로써의 부조금	257
축복의 선물로써의 부조금	258
세움(살림)의 일로써의 부조금	260
49. 약함과 강함의 역설(고후 10:1-18)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262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목적	263
하나님이 주신 자랑의 범위	265
50. 약함과 강함의 역설(고후 11:1-15)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정의	267
거짓 사도들의 믿음	268
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목적	270
51. 약함과 강함의 역설3(고후 11:16-33)	
바울의 목회 자세	272
자랑에 대한 바울의 역발상	273
약함과 강함의 역설	275
52. 약함과 강함의 역설4(고후 12:1-21)	
셋째 하늘	277
육체의 가시	278
강요된 사랑	280
53. 약함과 강함의 역설5(고후 13:1-13)	
사도의 권세	282
세움과 살림을 위한 권세	283
평화의 인사	285

1.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고전 1:1-9)

그리스의 소돔이었던 고린도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서신으로써 제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주후 57년 초에 기록되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때 고린도에서 주후 52년 전후로 1년 6개월간 사역하였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회에 인사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소스테네였다. 소스테네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고린도에서 유대교회당의 회당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 대신에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았던 사람이었다(행 18:12-17).

고린도는 그리스의 소돔이었다. 오늘날의 대도시가 갖춘 악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고린도와 그 인근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폴론 신전과 아프로



아고라(시장)에서 바라본 아크로고린도 가장 높은 이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고린도의 아고라(시장) 곁에 있었던 아폴론 신전 유적

디테 신전이 유명했다. 이 두 신전은 남성애(동성애)와 여성애(매춘)를 상징하는 신전들이었다.

아폴론과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의 12신에 속하는 주신들로서 고린도전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신들이다. 아프로디테(Aphrodite)는 미와 사랑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를 모시는 신전이 고린도에서 제일 높은 아크로고린도에 있었다. 이 신전은 1,000여명이 넘는 성창(여사제) 노예를 거느렸다. 이들은 산중턱에 세워진 집창촌에서 매춘업에 종사하였다.

그리스 문화의 상징 아폴론

아폴론(Apollon)은 그리스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이었다.



아폴론

아스클레피오스

그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로써 태양의 신, 예언의 신, 궁술의 신, 의술의 신, 음악과 시의 신으로 추앙받았다. 여기서 고린도서와 관련을 지어볼 수 있는 것이 예언과 의술이다. 그러나 아폴론의 이 예언과 의술에 앞서 아프로디테의 여성애(매춘)와 관련지어 생각해 봐야할 것이 남성애 즉 동성애이다.



멜포이시신전의 제비가 신탁을 전하는 장면

2세기 말의 신학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150-215년)가 열거한 바를 보면, 아폴론은 양성애자로서 그가 사랑한 남성들 중에 키니라스, 자킨투스, 히아킨투스(히야신스), 포르바스, 아드메투스, 키파리수스, 아미클라스, 트로일루스, 브랑쿠스, 팀니우스, 파루스,

포투이에우스, 오르페우스가 있었다. 신화에 불과하지만, 2천 년 전 그리스인들, 특히 고린도인들의 동성애 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술평론가 유경희(유경희예술처방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당대의 조각가들이, 아폴론을 조각할 때, 당대의 성인 남성들이 좋아했던 몸매, 즉 우아하되 별거벗은, 성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남성스럽지도 않고 여성스럽지도 않은, 오늘날의 남자 아이돌과 정확히 일치하는 애매한 몸매로 조각하였다고 한다.

아폴론의 동성애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이 운동경기였다. 4대 범 그리스 경기대회가 모두 고린도 인근에서 열렸다. 가까운 동쪽 이스트미아의 포세이돈 신전에서 2년마다, 가까운 남서쪽 네메아에서 2년마다, 북쪽 델포이에서 4년마다, 남서쪽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열렸다.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2년째와 4년째 해에 네메아대회와 이스트미아대회가 열리고, 3년째 해에 델포이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남성들은 모두 별거벗은 몸으로 경기에 임했다. 몸에 올리브기름을 바른 채 두 남성이 씨름하는 레슬링은 신체의 접촉이 많아 남성애 구애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북쪽 인근 델포이에 신탁을 알아보는 유명한 아폴론신전이 있었다. 이곳이 유명했던 이유는 예언의 신인 아폴론이 퓌톤(왕뱀)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퓌티아를 사람으로 만들어 신탁소의 제니(여사제)로 삼아 자신이 맡겨놓은 예언(신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터. 이곳에 현존하는 스타디움과 극장은 물론, 목욕탕, 음악당, 체육관, 아카데미와 아프로디테 신전들이 있었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남동쪽 에피다우로스에는 아폴론이 인간 코

로니스에게서 낳은 아들이자, 아버지 아폴론으로부터 의술을 물려 받은 아스클레피오스와 그의 딸 히기에이아(Hygieia, 위생)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다. 이 신전에 하루만 머물러도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었다. 이곳은 오늘날의 휴양리조트와 같은 곳으로써 휴식, 명상, 운동, 목욕, 독서, 산책, 연극관람 등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환자들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극장은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대 중심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1만 6천여 전 좌석에까지 들릴 정도로 음향이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이자, 다인종사회였다. 고린도에는 해방노예들과 수리아인들, 이집트인들,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주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살았던 다인종사회였다. 또 인구 10여만 명 가운데 노예가 3분의 1정도나 되었다. 그만큼 고린도 인들은 근성, 도덕성, 윤리성에서 수준이 매우 낮았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바울은 이런 소돔 같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교인을 성도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 같은 고린도 사회에 상반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진흙 속에서 빛어진 진주, 흙탕물속에서 핀 수련에 비유되는 표현이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라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빛어내고, 고린도라는 흙탕물속에서 수련을 피게 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바울 자신은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고 여러 가지 말로써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비록 육신은 소돔 같은 고린도에 의탁해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4절),

비록 고린도사회에서는 가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에서 풍족하다(5절)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고린도 교우들 안에서 견고하여졌고(6절),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영적인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절). 이뿐 아니라, 주께서는 성도들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고(8절), 믿으실만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9절) 때문이라며, 성도들을 격려하였다.

2. 하나님의 교회의 얼룩지우기(고전 1:10-17)

흙탕물의 영향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는 흙탕물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흙탕물 같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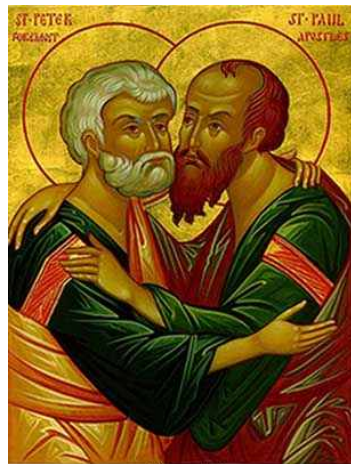


고린도의 비잔틴시대 교회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가 흙탕물 같은 고린도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었다.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소돔 같은 고린도에 세워진 것은 순결한 흰 옷을 입고 흙탕물속

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가 흙탕물속에서 핀 수련처럼 아무리 그 자태를 고고하게 뽑내었다할지라도 흙탕물에 있으면서 그 흙탕물에 얼룩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얼룩의 하나가 분열이요 파벌이었다.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풍족하여져 순결한 수련처럼 성도라,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 순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간주해 주셨기 때문이다.



일치의 상징

베드로(물법주의자)와 바울(복음주의자)의 포옹

일치와 분열의 양면성

일치와 분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일치는 선교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요, 선교의 목표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창세기에서 보듯이 인류역사는 그 자체가 분열사이다. 분열은 아픔과 고통이지만, 성장과 발전의 길이기도 하다. 분열이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경쟁 때문이다. 그러나 심한 경쟁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인간의 특성은 본능과 이성에 있다. 인간의 본능은 일치를 원하지 않는다. 본능은 버려두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자연법칙에 지배받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분열은 자연현상이다. 그리고 이 자연현상에 거슬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법칙이요, 인간의 실천이성이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본능의 지배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열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합



초기 기독교의 세 가지 유형

게바파(근본주의)
유대교 율법주의에 편향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울파(복음주의)
정통신앙을 따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볼로파(진보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일치운동과 신약 교회운동으로 시작되

었다. 이를 일컬어 스톤-캠벨운동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3세기에 걸친 스톤-캠벨운동은 그 역사에서 늘 분열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치의 방법으로 본질적인 것에서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

에서 견해차를 허용하며,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외쳐왔다. 그러나 이 구호가 분열을 막지는 못하였다.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 성서가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은 다 함께 침묵하자라고 외쳐왔지만, 이 구호도 역시 분열을 막지는 못하였다. 침묵한다는 것이 허용한다는 뜻인지 혹은 금지한다는 뜻인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합을 위해 상호노력하자라고 말한다. 여기서 연합이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선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하여 연대 또는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고린도교회는 세워진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파벌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다. 순결해야할 교회 안에 도시의 얼룩인 정치가 끼어든 것이다. 교인들이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며 떠돌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바울, 아볼로, 게바(베드로), 그리스도는 모두 유대인들이다. 이 파벌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존재했었다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0절에서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한 말에서 유추해볼 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없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무엇인가가 혹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거둬 모아둘 것을 부탁한 것 때문일 수 있고, 혹은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먹는 문제나 누구한테서 침례를 받았느냐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음행, 재혼, 주의 만찬, 신령한 은사들, 부활과 같은 문제들 중에서 다툼의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바울이 13-17절에서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해 볼 때, 파벌의 근원이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은 침례가 더 권위가 크냐와 같은 논쟁이 있었을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바울은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분열을 책망하였다.

고린도는 다인종 사회였다. 당연히 고린도교회는 여러 인종들,

곧 유대인, 헬라인, 동방인, 다양한 신분들, 곧 군인, 평민, 빈민, 해방노예, 노예 등 다양한 인종과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가운데 바울파를 자처한 자들은 아마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던 선임 교인들일 수 있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 고린도에서 사역한 인물은 아볼로였다. 아볼로는 철학과 수사학과 구약해석이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그로부터 기독교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던 교인들이라면, 아볼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남달랐을 것이고, 아볼로파로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이 게바 즉 베드로인데, 권능이 많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주후 44년부터 떠돌이 목회자로 사역한 베드로가 언제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여 사역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게바파라고 주장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고린도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을 게바파로 분류하여 뽑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무당파 즉 그리스도계만 속한다는 중도파 또는 독립파들이다.

바울이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한 말에서 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은 하나이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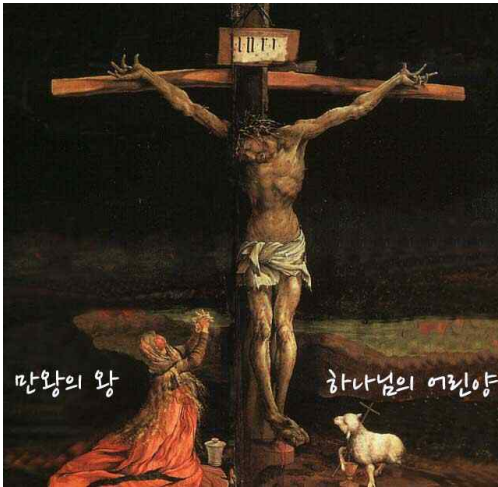
라서 파벌은 하나인 몸이 나뉜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고전 12:12)고 하였고,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효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다”(롬 12:4-5)고 하였다.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고전 12:24),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는가?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는가?”(고전 12:25-26)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로 격려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우들의 다양성을 피차 존중하면서 선한 사업에 연합하고 연대하여야 한다. 손 내밀기는 분열을 막기도 하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도움의 손(a helping hand)을 내밀면, 살림의 일, 생명의 일,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만, 비난의 손(the finger of blame)을 뻗으면, 분열의 일, 죽임의 일, 저주의 일이 발생한다.

3.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고전 1:18-25)

인류의 십자가의 도(道)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은 강한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 반드시 약한 것이 아니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세계인들은 가장 강한 짐승의 상징으로 양을 꼽았고, 동시에 가장 순하고 약한 짐승으로 양을 꼽았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역설을 보게 된다. 그 역설이 바로 기독교 사상과 구원교리의 핵심이다. 복음서에서 세상의 구세주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한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양으로 묘사한 것이 그것이다. 기독교에서 양은 양들을 치고 감독해야 할 강인한 목자의 상징이자,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할 여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어린양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된다는 사상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가장 여린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능력과 지혜는 강함에 있지 않고, 약함에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의 교훈이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일컬어 “십자가의 도” 혹은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신성(神聖)을 상징한 산양 뿔



산양뿔이 달린 암몬 제우스



암몬뿔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

이집트가 주신으로 섬긴 암몬(ammon)은 구부러진 뿔을 가진 산양으로써 제우스 또는 주피터와 동일시되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 초기에 터키로부터 이집트까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한 직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59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오아시스 시와(Siwa)에 소재한 암몬신전을 찾아가 신탁을 청하였다. 이집트의 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떠받든 알렉산더에게 사제는 ‘암몬의 아들’이란 신탁을 내렸다. 이 신탁은 신이 되고자한 알렉산더의 욕망이 이심전심으로 사제에게 전달되었거나 반강제적인 것이었다. 이 신탁을 받고 알렉

산더는 멤피스에서 바로(파라오)에 등극하는 대관식을 화려하게 치렀다. 이후 사람들은 암몬과 제우스를 결합하여 제우스-암몬이라고 불렀고, 자의반타의반으로 신의 아들인 알렉산더에게 제물을 바쳤다.

산양 뿔이 달린 알렉산더의 옆얼굴을 새긴 그림의 동전은 알렉산더 대왕의 막료였던 리스마쿠스(Lysimachus, 360-281 BC) 때 주조된 4드라크마 은전으로써 알렉산더가 제우스 또는 암몬의 아들이란 표시였다. 고고학자들은 두 뿔을 가진 알렉산더의 얼굴을 새긴 동전들이 이밖에도 많았다고 말한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뿔은 성경에서도 거대한 제국과 황제를 상징하였다.



참 신과 영웅



로마의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Basilica di San Pietro in Vincoli)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 상(像)이 있다. 이 조각의 특이한 점은 모세의 머리에 두 개의 뿔이 있다는 점이다. 미켈란젤로(1475-1564)는 이 모세 상을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화를 의뢰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당 기념물로 제작하였는데, 모세를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두 개의 뿔이 난 모세는 오른쪽 겨드랑이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 판을 끼고 있다. 이것은 제우스나 알렉산더에 난 두 개의 뿔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뿔, 즉 우상을 타파하는 강력한 뿔을 암시한다. 노기가 실린 얼굴 표정에서도 그 점을 읽을 수 있다. 이 모세

상은 미켈란젤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표적을 갈구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像)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다. 유대인들이 희망(Ha-Tikvah)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실” 자(히 2:17)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땅 없이 떠돌던 노예였던 그들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Olam Ha-Ba), 곧 가나안땅 회복을 실현시켜 줄 자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힘 있는 영웅이어야 했다.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머리에 뿔을 조각한 이유는 제롬이 주후 405년에 만든 라틴어판 불가타(Vulgate) 성경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말을 뿔이 있었다(출 34:29-30)로 잘못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고, 이 불가타 성경만 읽는 것이 허용되었던 시기에 살았던 미켈란젤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그 정도의 상식만으로 뿔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암몬에 관한 제우스와 알렉산더에 관한 신화를 잘 알고



뿔 달 모세(미켈란젤로)와 가시관 쓴 예수(파시엔오브크라이스트)



제우스-암몬의 두 뿔 머리



하나님의 어린양의 일곱 눈, 일곱 뿔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한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모세에게 그 정도의 상징성은 적절하다고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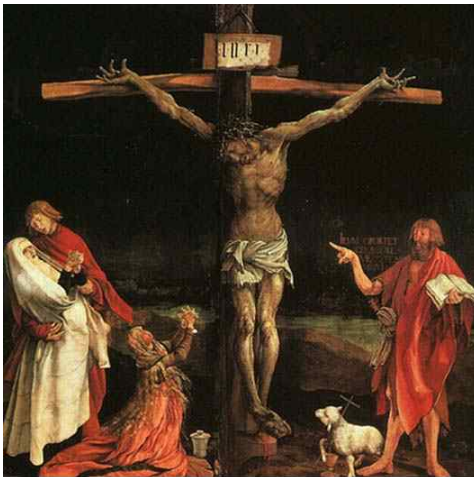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상은 전혀 다르다. 강인한 제우스-암몬 상도 아니고, 모세나 알렉산더 대왕의 형상도 아니다. 오히려 여리고 약한 어린양처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못 박힌 평화의 왕으로 묘사되었다. 동시에 그

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상징으로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계시록에 묘사되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갈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핵주먹이 아니라, 따뜻한 손 내밀기란 사실을 기억하자.

4.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고전 1:26-31)

예수님의 올바른 손 내밀기

고린도전서 1장 26-31절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을 말한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였다(27-28절). 그 이유를 바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때문이다.”(29절)고 하였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이진하임 제단화: 십자가 처형부분(1515년)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프랑스 콜마르 윤티켄덴 미술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30절)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은 주 안에서 낮아지고, 내려놓고, 비우고, 약해지고, 미련해져야 주 안에서 높아지고, 쥐어지고, 채워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

고, 거룩해지고, 구원함에 이른다든 뜻일 수 있다.

좌측의 그림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러나 팔을 벌려 하늘로 향한 예수님의 손 내밀기,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복을 비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두 손 모아 복을 비는 마리아의 손 내밀기, 약자를 부축한 요한의 손 내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레 요한의 손 내밀기가 표현된 그림이다. 모든 것을 놓아버린 예수님은 힘이 없어 고개를 떨구셨고, 양팔 벌려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셨다. 무력해 보이지만, 세상 죄를 지신, 어린양으로 표현된 예수님, 무력해 보이지만, 주님 곁을 지킨 여인들, 무력해 보이지만, 마리아를 돕는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골씨부분)고 말하는 세레 요한, 이들은 올바른 손 내밀기의 주인공들이자, 최종 승리자들이다. 무력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이 강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이다.

이브와 뱀(사탄)의 잘못된 손 내밀기



이브와 뱀(사탄)의 잘못된 손 내밀기: 미켈란젤로

좌측의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 천정에 에덴동산을 그린 프레스코의 좌측 절반이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에서 그린 선악과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지식의 나무로 알려진 무화과나무이다.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를 토라의 상징으로 믿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말라죽게 하신 것

은 선한 율법의 행위는 없고 위선과 허례허식이 가득하여 진실과 영성이 없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이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점은 무화과나무에 그런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 혹은 불순종할 것이냐를 인간이 선택함으로써 선악이 결판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토라 그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실린 계명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뱀이 내민 열매를 받기 위해서 이브가 손을 내민 것은 잘못된 손 내밀기였다. 그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먹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는 이 잘못된 손 내밀기의 대가로 거부의 손짓과 두려움에 쌓여 웅크린 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그림의 나머지 반쪽이 바로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잘못된 손 내밀기의 대가로 거부의 손짓과
두려움에 쌓여 웅크린 채 에덴에서 쫓겨나는 모습

미켈란젤로는 뱀을 여성으로 그렸다. 무화과 열매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실제로 무화과의 집산지인 지중해에서는 수세기 동안 무화과를 여성으로 보았다고 한다. 김지하 시인의 <무화과>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이 시를 해설한 다음카페 두레박국어교실은 무화과나무의 잎을 남성으로, 무화과의 열매를 여성으로 설명하였다. 무화과 열매 속에 있는 내면의 꽃이 무화과의 여성성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미켈란젤로도 아담을 무화과 나뭇잎에 밀착해서 그렸고, 이브는 뱀으로부터 무화과 열매를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모세의 올바른 손 내밀기



우리는 앞에서 무화과나무나 그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손 내밀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뱀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마 10:16)고 충고하셨던 적이 있다. 예수님은 대부분 뱀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이처럼 뱀은 고대인들에게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다 가진 동물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 21장 4-9절이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가 뚝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뚝뱀을 바라보게 하여 살려냈다. 이 뚝뱀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그림에서 모세는 생명을 살리는 뚝뱀을 향해 손 내밀기를 하고 있다. 그의 손 내밀기는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살림의 행위였다.

뚝뱀을 신통하게 여겼던 히브리인들처럼, 그리스인들도 뱀을 신통하



아폴론의 뱀 화살 통과 아스클레피오스의 뱀 지팡이



삼십다리 의자에서 권리가 신통을 전하는 장면

게 여겼다. 예언의 신 아폴론이 뱀이 말아 올라간 화살 통을 지녔고, 아폴론의 아들로서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도 뱀이 말아 올라간 지팡이를 지녔다. 아폴론의 뱀은 인간에게 예언을 해주고, 그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은 인간에게 병을 고쳐준 셈이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뱀은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이란 양면을 가진 동물이었다. 이 점에서 뱀은 인간의 본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능도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의 양면을 지니기 때문이다. 십자가도 수치와 영광, 죽음과 생명, 징계와 용서, 정의와 사랑의 양면을 지닌다. 따라서 손 내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빛과 질서와 생명의 일이 되기도 하고,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일이 되기도 한다.

5.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2:1-5)

하나님의 증거

1절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와 2절의 “내가 너희 중에서”는 주후 52년을 전후로 1년 6개월간 체류한 제2차 선교 때를 말한다. 1절의 “하나님의 증거”는 7절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가장 오래된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Chester Beatty Papyri, P45-47, 200년경)와 시내산 코덱스(Codex Sinaiticus, 340년경)와 같은 신약성서 사본들에서는 “증거”란 말이 “비밀”로 되어 있다.



신약성경 대본들이 포함된 200년경의 파피루스(P46) 2절 크기로써 고린도후서 11:33-12:9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비밀”이란 2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5절의 “너희 믿음”을 말한다. “너희 믿음”이란 이방인의 믿음,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골 1:14, 엡 1:7),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엡 2:19)을 말한다. 이 엄청난 복이 1절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4절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유

대인들이 꺼리는 것과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 곧 2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 일컬었는데, 이 도(道)가 곧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어림도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고, 이상세계로 인도할 지혜(지식)를 찾는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실상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3절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은 아테네에서 범했던 실수, 곧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써 4-5절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않을까 하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 때문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제2의 모세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다. 그 모세는 시시한 기적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말이 좋아 메시아사상이지, 유대인들은 늘 마음속에 혁명을 꿈꿔왔고, 알렉산더 대왕이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이 나타나 주기만을 바랐다. 그런 그들의 기대를 미완성이었지만 부응했던 인물이 있었다. 주전 164년에 ‘망치’(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헬라제국으로부터 짜릿한 해방의 맛을 주전 164년부터 64년까지 100년간 맛보게 해주었다. 이제 또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을 뛰어넘어 독자적으로 서려면 마카비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난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을 낳을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었다.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구원은 속죄제나 속건제 때 바치는 숫양과 같은 희생



벨단 모세(미켈란젤로)와 가시관 쓴 예수(파셔코브크라이스트)



제우스-아몬의 두 뿔 머리



과 약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다. 세계사가 말해 주듯이, 폭력을 쓰는 나라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다른 더 강한 폭력에 의해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시리아가 앓수리아에, 앓수리아는 바벨론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근동과 소아시아 및 그리스 일부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페르시아조차도 헬라(그리스)에 무너졌고, 헬라는 로마에 무너졌다.

다. 그리고 그 로마는 예수님과 바울이 확신한 바대로, 비폭력, 평화, 용서, 화해,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수중에 넘어갔다. 비폭력이 승리한 사례는 근대에도 있다. 간디는 비폭력으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켰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역시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시켰으며, 넬슨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치로 남아프리카에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것이다. 왕관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예수님이 머리에 뿔이 난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역시 머리에 뿔이 난 폭력과 전쟁을 신격화한 제우스보다 구원에 있어서 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것을 계시록 5장 6절은 일곱 머리 일곱 눈을 가진 어린양을 통해서 보여준다.

잠시의 능력



메두사를 새긴 갑옷을 입고 이누스 전투(333BC)에 나선 알렉산더와 아마 부케팔로스의 모자이크 형상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셀레우코스 1세가 만든 금화
알렉산더의 아마 부케팔로스의 머리에 소뿔을 새겼으며,
"BASILEOS SELEUKOS"(왕, 셀레우코스)라고 썼다.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일컬어 짐승이라고 묘사하였다. 여기서 짐승은 뿔로 묘사된 세상권세를 말한다. 여기에 제우스-암몬과 알렉산더를 비롯한 황제들이 포함된다. 알렉산더가 제우스-암몬의 아들이라며 제사를 바치도록 하였듯이, 헬라제국의 셀레우코스왕조의 왕들과 로마의 황제들도 자칭 신들로서 백성에게 숭배를 강요하였다. 바울이 머물렀던 고린도에는 초대 로마황제의 누이 옥타비아를 숭배하는 신전이 아고라(시장) 서편 길 건너에 있었다. 이들의 신성이 암몬(산양)의 뿔 또는 황소의 뿔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계시록이 이들을 짐승으로 묘사한 것은 전혀 비밀스런

것이 아니었다.

이들 짐승이 참신이 아닌 우상이란 점과 폭력과 전쟁으로 권력을 쟁취한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잘 묘사한 그림이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알렉산더와 아마 부케팔로스를 새긴 그림이다. 알렉산더에게 암몬의 뿔이 있었듯이 그의 아마의 머리에도 뿔을 넣어 신격화시켰다. 알렉산더의 심복 셀레우코스 1세가 만든 금화에도 부케팔로스의 머리에 소뿔이 새겨져 있다. 부케팔로스는 헬라어로 '소머리'라는 뜻이다. 자칭 신이었던 알렉산더와 부케팔로스는 폭력과 전쟁의 상징이다.

반면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다. 알렉산더는 폭력과 전쟁, 파괴와 죽임을 위해 팔을 뻗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평화와 용서, 화해와 구원을 위해 팔을 벌리셨다. 예수님의 이 팔 벌림이 짐승의 능력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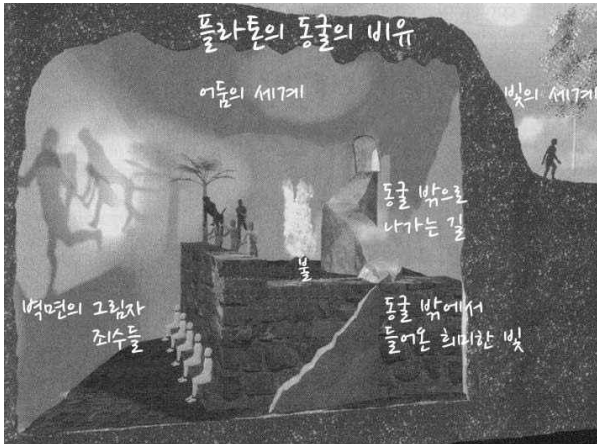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6.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2:6)

세상의 지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매우 역설적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미련한 것이 똑똑한 것을 이기며,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것을 역설한 후 6절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설명하였다.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혜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비유는 주전 400여 년 전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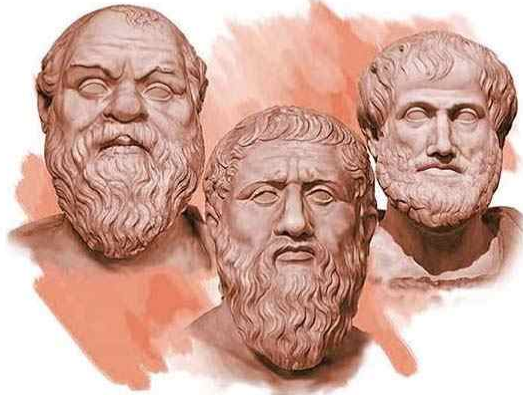
에게 들려준 우화로써 플라톤이 쓴 <공화국> 또는 <국가론> 7권에 나온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굴 속의 죄수들은 의식이 있기 전부터 손발이 족쇄에 묶인 채 뒤쪽이 막힌 공간에서 앞쪽 벽만 보고 살아갔다. 반면에 뒷벽 플랫폼에는 동굴거주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했고, 모닥불도 피웠다. 이 모닥불 빛에 의해서 죄수들이 볼 수 있는 벽면에 온갖 형상의 그림자들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온갖 소리가 죄수들의 귀청을 울리기 때문에, 또 실상을 본 적이 없고, 불을 본 적이 없고, 동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태양빛이 만드는 파노라마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족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덤 같은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들과 소리들을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이 동굴 속의 죄수들의 무지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는 흑암에 갇힌 것이고, 족쇄에 묶인 것이고, 동굴에 갇힌 것이고, 무덤에 갇힌 것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무지하다.

그리스의 고전 철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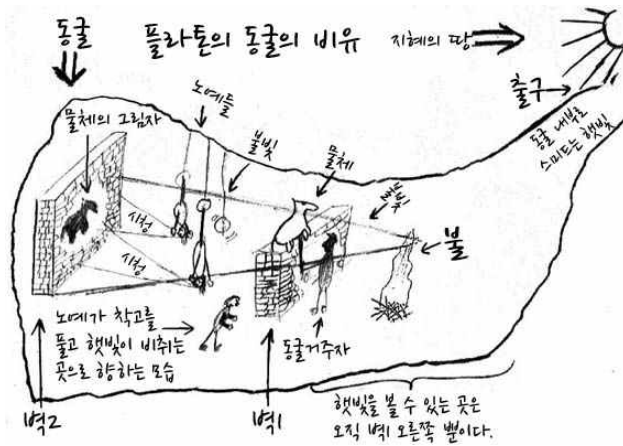


소크라테스(약 469-399BC), 플라톤(약 424-348BC), 아리스토텔레스(약 384-322BC)

헬라인들의 영지(gnosis) 추구

헬라인들이 추구한 지식은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줄 열쇠, 곧 무지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진리 또는 지식 또는 지혜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을 어둠의 동굴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줄, 그들에게 그림자 혹은 모형이 아닌 실체를 보게 해줄 참 지식을 일컬어 ‘영지’(gnosis)라고 불렀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세계를 이 세상으로, 죄수들을 죄인들로, 죄인들의 족쇄를 풀어줄 열쇠를 복음, 곧 십자가의 도(道)라고 하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설명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였다. 만일 지혜자의 말에 설득되어 족쇄에서 벗어난 죄수가 있다면, 그가 평생 알고 왔던 그림자들을 처음 접하는 실체들보다 더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가 불빛을 보는



순간, 어찌 눈에 통증이 없겠으며, 새롭게 보는 것들보다 이전에 보았던 것들이 더 참된 실체라고 믿으면서 통증이 없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가 빛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며 새로운 세상에 익숙해진다면, 태양빛이 만드는 파노라마의 세계를 즐기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탈출을 주저했던 지난날들, 동굴에서의 무지와 어리석음, 여전히 무지의 족쇄에 묶인 채 살아가는 동료들을 회상하며, 지금 즐기고 있는 실체들에 대해서 동굴 속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깨달은 자의 이 행위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하였다. 반면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인간을 관념과 물질, 영과 육, 빛과 어둠으로 이원화시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본질적이며 영원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피상적이며 일시적인데, 선한 것이 악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지와 고통이 따른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제어하는 금욕주의자와 육체적 가치를 무시하는 향락주의자로 나뉘었다. 이 향락주의가 고린도사회를 병들게 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까지 얼룩을 남겼다.

동치자들의 지체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며 낮에도 등불 들고 다닌 디오게네스(412-323BC)

고린도사회가 이토록 어둡고 얼룩진 사회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철학자 디오게네스였다. 디오게네스는 통속에서 개처럼 살면서도 일광욕을 즐겼고, 밝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런 행위들은 모두

플라톤의 동굴처럼 고린도사회가 어둠과 무지에 갇힌 사회임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자신을 찾아온 알렉산더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달라고 말한 것을 폭력과 전쟁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충고로 받아드릴 수 있다.

디오게네스의 생활신조는 욕망을 작게 갖는 것(아스케시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아나이데이아), 자족하는 것(아우타르케이아)이었다. 그는 이런 신조 때문에 평생동안 한 벌의 옷과 한 개의 지팡이와 자루를 갖고 통 속에서 살았다. 그를 견유학파로 분류하는 이유는 개처럼 통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주전 336년에 그리스 본토 도시국가의 왕들이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고린도에 모여 군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20세에 불과한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고린도에서 디오게네스를 만나는 장면(피에르 뒤제, 1671-1689, 루브르), 밑에 복조된 개는 디오게네스의 학파를 상징

알렉산더가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뽑혔다. 알렉산더는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디오게네스를 꼭 만나보고 싶어 했다.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를 보자 일어나 앉았다. 알렉산더가 먼저 말을 붙였다. “알: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디: 나는 개 같은 디오게네스요. 그대는 선한가?” “알: 그렇다. 내가 두렵지 않은가?” “디: 선한 자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는가?” “알: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디: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주소.”

디오게네스의 “개 같은 인생”(Cynicos Bios)은 고린도인들의 삶 그 자체였다. 디오게네스가 개(cynos)처럼 통속에서 노숙을 했던 것은 뭔가 주면 꼬리치고, 거절하면 짓거나 무는 개 같은 인생, 개 같은 세상을 냉소한 것이었다. 영어 ‘cynical’은 ‘냉소적인’ 또는 ‘비꼬는’이란 뜻으로써 바로 이 ‘개’ 곧 ‘cynos’에서 나온 말이다. 개 같은 고린도 교회 인생들에게 바울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칭하였다. 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7.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 2:7-16)

하나님의 신비(비밀)한 지혜: 바울과 영지주의자



불세종의 신학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신비(비밀)한 지혜란 무엇인가?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감추어졌던 것”은 2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5절의 “너희 믿음”을 말한다. “너희 믿음”이란 이방인의 믿음,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골 1:14, 엡 1:7),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엡 2:19)을 말한다. 인류가 바라는 구원이 영웅호걸들의 폭력과 전쟁에서 비롯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 비롯된다는 지혜를 말한다. 메시아 영웅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싫다고 손사래치고, 이상세계로 인도할 지혜(지식)를 찾는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복음, 곧 십자가의 도는 진흙탕 속에 숨겨진 진주나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아서 발견하는 자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 깨닫지 못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제까지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진주 또는 보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색깔남녀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8-9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눈으로 보지 못하

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다.

바울이 이해하고 설명한 이 하나님의 신비(비밀)한 지혜는 요한 일서가 “거짓 선지자”(4:1)와 “적그리스도”(2:18; 4:3)로 지목한 영지주의자들이 설명한 신비한 지혜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까지 유대교의 카발라, 뉴에이지, 명상수련 등을 통해서 명맥을 잇고 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사람에게는 신적인 방출의 결과로 신적 빛(불꽃, 신성)이 있어서, 인간보다 높은 계급인 ‘빛의 사자들’로부터 계시되는 영지(gnosis)로써, 이것을 깨달으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은 저급한 신이 만든 불완전한 창조의 결과물이며, 인류는 깨달음을 통해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창조론과 성육신론을 거부한다.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은 계시와 통찰이 명상을 통해 오며, 지혜의 전승은 신비의식과 상징을 통해 비전(秘傳)된다고 본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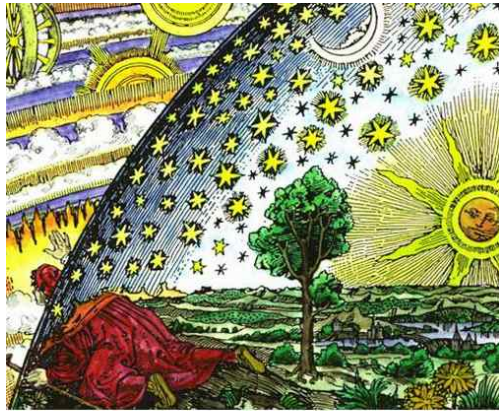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서들
가주어로 잠정된 12권의 파피루스 코덱스들로서 밀봉된 항아리에서 발견됨

12절의 “세상의 영”은 우상에 불과한 그리스신화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가 말하는 인간에게 영지를 계시한다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계급의 신적 존재 즉 ‘빛의 사자들’을 말한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신적인 방출의 결과로 신적 빛(불꽃, 신성)이 있어서, 인간보다 높은 계급인 ‘빛의 사자들’이 계시하는 영지(gnosis)를 받아 깨달음에 도달하면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가

르침을 13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골 1:14, 엡 1:7),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기독교복음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복음은, 10-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영에서 나온 사람의 지혜와 성령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영지주의와 기독교복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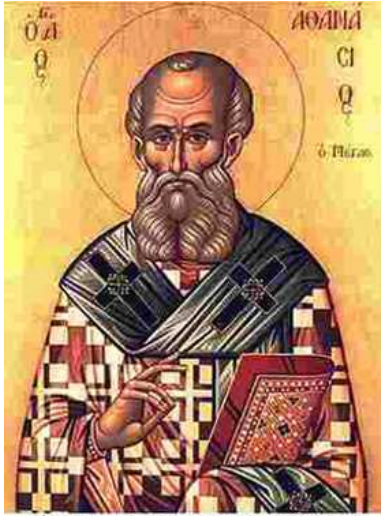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참이 아니고, 불완전한 창조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굴 감옥 같은 어둠의 세계라고 말한다, 인간 역시 불완전하지만, 그 내면에 신적인 불꽃이 있어서, 빛의 사자들로부터 영지를 받아 깨달으면, 육체의 감옥을 탈출하여 근원적인 빛의 세계에 도달하여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 저급한 신인 구약성서의 조물주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뱀을 지혜와 빛의 사자로 높이고 있다.



영지주의의 세계관(목각)

우측은 어둠의 세계이고 좌측은 빛의 세계이다. 해, 달, 별은 빛의 세계로부터 참빛이 지상으로 방출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단에는 빛의 사자들을 통해 영지를 깨달은 한 사람이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다. 이를 신적 불꽃이 본향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오스(293?-373)
 신약 27권의 목록을 최초로 작성하며 영지주의 문헌과
 외경들이 정경에 삽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한 인물

바울은 14절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육에 속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헬라인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육적인 사람(natural man)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성령과 악령 같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신령한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성령)을 가진 영적인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15절에서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기독교와 혼합한 에비온파와 나사렛파, 헬레니즘 신비주의였던 영지주의, 신령한 은사를 자랑했던 은사주의가 포함되지 않고, 모두 “육에 속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에비온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에비온파는 바울의 서신들을 싫어했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만 받아들였다. 에비온파는 오늘날의 여호와증인들처럼 단일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였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비밀(mysterion)을 만천하에 공개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은 민족색깔남녀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요, “그리스도의 마음”(성령)을 가진 자이다.

8.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3:1-9)

영적 성숙과 미성숙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의 유물
에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행 18:7).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성령)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말한다. 그들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 민족색깔남녀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이 깨달음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반면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자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속적인(worldly)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2장 14절에서 언급된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natural man),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man without the Spirit), 거듭나지 못한 사람, 비 그리스도인과는 구별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

지만, 믿음과 실천에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세상적인 사람을 말한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에 대해서는 믿음부문과 실천부문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구원(칭의)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실천부문에서 초기성화(거듭남)가 이뤄진 이후 점진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자일 수 있다. 이 때문에 3절에서 언급된 “시기와 분쟁”이 야기되었을 수가 있다.

둘째, 구원(칭의)은 단순한 믿음(신앙)의 고백만으로 받지만, 믿음지식(교리)은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신앙고백이후 믿음지식이 지속적으로 자라지 못한 자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야기되었을 수가 있다. 바울은 3절에서 시기과 분쟁의 원인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때문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비 그리스도인처럼,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영을 좇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좇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기와 분쟁



고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용한 메시아 인(seal)
 상단의 메노라는 유대교를 하단의 물고기는 기독교를 중앙의
 육선형 별은 다윗의 별(메시아)을 상징한다. 기름병의 받침들에
 "성령의 기름을 위해서"라고 새겼다.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게바파로 일컬어진 초기 에비온주의와 아블로파로 알려진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에서 그들의

신원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들 유대인 에비온주의와 헬라인 영지주의는 신약성서에서 율법주의와 방탕주의 이단으로 경계의 대상이었다.

게바파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이고, 아볼로파는 헬라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들은 설립역사가 10년 미만이므로, 기독교 영지주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대인 교회들은 세워진지 과반세기가 넘었고, 그 뿌리가 메시아사상에 기반을 둔 유대교이므로 에비온주의는 바울이 활동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보편화되었을 것이다. 비록 베드로가 순회전도자로서 여러 이방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였을지라도,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쓰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요, 헬라사상에 깊이 못하였다. 또 헬라사상과 전통에 익숙한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일지라도, 그들 대다수가 유대교전통을 따랐으므로, 또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극력하게 반대한 것에서 보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다는 바울의 복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게바파는 오늘의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들과 에비온파의 초기형태였을 것이다.

아볼로파 역시 영지주의의 초기형태였을 것으로 본다. 비록 아볼로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사상이 잘 발달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헬라의 수사학에도 능통하였으므로, 신약성서의 모형(그림자)론에 기여한바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아볼로가 영지주의와는 100퍼센트 무관한 참신한 전도자였을지라도, 그를 추종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초기 영지주의에 편향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 두 계파가 서로 경쟁하며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이 두 계파에 반대하는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파와 그리스도파를 자처하며, 정통성 시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집(밭)과 일꾼



가나나움 회당의 다윗의 밭 문양(오선형과 육선형)

5-9 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밭”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젖을 먹일 사람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일꾼, 얼룩이 생기면 얼룩을 지우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 하나님의 교회라는 밭을 개간하고 일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린 일꾼이었고, 아볼로는 물과 거름을 준 일꾼이었다고 말하면서, 7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또 8절에서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받는 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장 2절에서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신실함)”이라고 하였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는 역할이 달랐지만, 피차 상반되거나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였다. 더더욱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내용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르친 내용들은 밭(교회)을 개간하고 씨(복음)를 뿌리는데 적합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가르친 내용은 작물(교회)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는 데 적합한 비료와 덧거름주기과 같은 것들이었다. 반면에 베드로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회상이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통합적이지, 피차 상반되거나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 굳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를 오늘의 신학패턴으로 견강부회한다면, 유대인들의 에비온주의에 가까웠을 게바파를 근본주의에, 이방인의 사도 임을 자처한 바울의 복음을 복음주의에, 아볼로의 헬레니즘 기독교 신학을 진보주의에 억지로 껴맞춰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영지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체계를 갖는 신약성서기독교이다. 유대교, 에비온파, 영지주의자들조차도 자신들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놓고 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쉽게 빠진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들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 신약성서교회의 복원이다.

<정리>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1.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사람(the spiritual)과 육신에 속한 사람(the worldly)으로 구분된다.

1)신령한 사람(the spiritual) -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을 좇는 사람, 믿음지식과 성화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자유인이지만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람.

2)육신에 속한 사람(the worldly) -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영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믿음지식과 성화가 멈춘 사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3)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주의자와 방탕주의자로 구분된다.

(1)율법주의자-유대인 에비온파, 모세의 율법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금욕주의자.

(2)방탕주의자-헬라인 영지주의자, 헬라철학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쾌락과 자유지상주의자.

2. 비그리스도인-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영을 좇는 사람,

9.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2(고전 3:10-23)

하나님의 교회의 터

바울은 유대교의 메시아 상(像)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독교의 메시아 상을 세운 인물이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뿔 달린 모세’ 또는 산양 뿔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에서 찾을 수 있고, 바울이 세운 기독교의 메시아 상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또는 무기력한 어린양에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 기독교의 메시아 상을 기독교의 터 또는 교회의 기초라고 하였다. 교회는 이 터, 곧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신약성서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울은 이 터를 닦은 사람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세운 사람으로서 자신이 세운 교리의 신뢰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이 교리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둘째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운 것처럼 탄탄한 기초이기 때문에 신뢰할만하다고 하였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란 가르침에 상반되는 가르침을 이단으로 못 박았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터 외에, 곧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는 자를 이단자 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로 천명하였다. 초기 교회들이 직면했던 이단자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에비온파와 헬라사상에 편향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게바파와 아볼로파를 바울이 이단자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게바파는 모세율법에 편향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초기 에비온파였을 것이고, 아블로파는 헬라사상에 편향된 초기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반드시 이단자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12-15절에서 경고하였다.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리 위에 다른 건축자들이 교회들을 세울 때, 12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질 것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불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세운 공적이 드러날 것임을 경고하였다. 여기서 불은 최후심판일 수도 있고, 일상의 시험일 수도 있다. 성서는 늘 시험을 불로 표현하였다. 교회에 불같은 시험이 닥친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워진 교회는 다 타버리고 터만 남게 되지만, 금은 보석으로 지워진 교회는 불에 다 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므로 공적에 따른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15절은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삶도 이와 같아서 아무런 공적도 없이 터만 가지고 가까스로 구원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멋들어진 집을 지은 사람처럼 쌓은 공적이 많아서 상급이 큰 자도 있다는 말씀이다. 결국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언급된 “너희”가 누구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 “너희”는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고린도에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둘째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의 뜻이다. 또 그 구성원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의 뜻도 된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떨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에서 “더럽히면”과 “떨하시리라”는 두 단어 다 ‘프테이로’(phtheiro)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들이다. ‘프테이로’는 ‘파괴하다’, ‘떨망시키다’,



무화과 나무=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무화과 나무의 잎=세상의 지식=별빛(질문) 계시
(노르만 대성당 입구 기둥조각)



양의 희생=죄악을 덮지 못하는 동물제사
가축=유대인의 희생제사=별빛(나무) 계시

‘씩히다’(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상하게 되다’, ‘타락하다’, ‘해롭게 하다’, ‘더럽게 하다’(계 19:2: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뜻은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해롭게 하고 파괴한다는 뜻이다. 바울이 닦아둔 터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는다는 뜻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라는 교리와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므로,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괴시킬(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결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복음과 신약성서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설

고린도전서 3장 18-23절은 1장 10절부터 3장 17절까지의 결론, 즉 교회분열에 대한 결어이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계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등으로 파당을 짓고, 자기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기만하며, 교회 공동체의 터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이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파당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꺼려하며,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



그리스도의 십자가=죄악을 온전히 덮는 제사
십자가의 도(복음)=죄악을 치유하는 지식=햇빛(금) 계시
예수십사대의 성전봉사자 예슈하난의 죽음을 재구성한 그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말씀이다.

19-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별빛처럼 희미한 계시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무화과 나뭇잎이 아담과 이브의 별거벗은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었고, 짚과 풀로 세운 집이 불의 시련을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아서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보다는 더 발전된 옷이지만, 가죽옷이 온몸을 덮지 못하듯이 유대교의 희생제사도 인간의 죄악을 온전히 덮지 못하는 반달 빛 계시에 불과하며, 나무로 세운 집이 불의 시련을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19-20절은 주후 70년 예루살렘멸망과 함께 성전제사가 사라진 이후 요한난 벤자카이와 가말리엘 2세와 같은 랍비들이 발전시킨 토라(모세오경)에 기초를 둔 유대교조차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지적하였듯이, 당대의 주변국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뛰어난 종교적 영성에 도달한 것이지만, 그조차도 죄악을 깨닫게 하는 지식에 불과할 뿐,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는 보름달빛 계시에 불과하며, 은으로 세운 집과 같아서 금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반면에 21-23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악을 온전히 덮는 제사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악을 치유하는 온전한 지식 곧 햇빛 계시와 같다는 말씀이다.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은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의 것이요.”라고 한 것도 동일한 뜻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파당을 짓지 말고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근본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이요, 이 터 위에 금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다. 그 가치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곧 신약성서 위에 세운 교회이다.

10.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3(고전 4:1-21)

사도들의 역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흠탕물 같은 고린도에 핀 수련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과 파당으로 얼룩지자, 이를 제거하는데 힘을 쏟았다. 파당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편향된 그리스도인들과 실체의 세계로 인도할 지혜를 찾는 초기 영지주의에 편향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에 바울은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임을 천명하였고, 이 지극히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터(기초)라고 말하면서 이 터를 파괴



바울시대의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트라키아 정복비. 전리품, 무기, 냇머리, 쇠사슬에 묶인 포로를 볼 수 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파괴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바울은 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파당의 우두머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비밀(‘뫼스테리온’, *mysterion*)을 전달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로 ‘히페레테스’(hyperetes)로써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지칭한 말이다. 또한 “말은 자”는 헬라

어로 ‘오이코노모스’(oikonomos)로써 청지기 또는 나눠주는 자란 뜻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기서 비밀은 신비한 것으로써 남녀노소빈부귀천 민족색깔의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군으로 알 것과 2절에서 일군들은 맡은 일에 신실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신실함이란 주인의 믿음 또는 주인의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만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3-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이 지, 비방의 손가락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라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상벌을 내리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였다.

사도들의 전통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에서 “본을 보였다”는 ‘적용하였다’는 뜻이다.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군들에 대해서, 농사군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은 자신이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린 일군이였다면, 아볼로는 물과 거름을 준 일군이였으며, 역할은 달랐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기독교의 터 또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일군이였다면, 아볼로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운자로 언급하였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바울이 놓은 터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고, 그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떤 좋은 재료를 써서 세울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훗날 에베소서 2장 19-2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에 따라 이방인들조차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를 말한 것으로써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놓으신 네 개의 모퉁잇돌 사이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성전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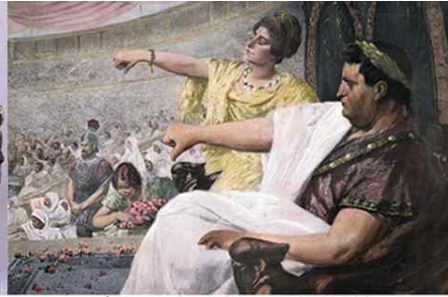
그러므로 바울이 6절에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놓은 교회의 모퉁잇돌과 터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으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지 말라”는, 신약성서가 없었던 때라고 해서 구약성서의 범위를 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성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범위를 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면, 파당을 지어 서로를 알보면서 선민의식과 배타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파당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다(7-8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신약성서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성서를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약성서를 이해한 사도들의 전통을 따랐다면, 신약성서가 해석한 방식으로 구약성서를 해석하고, 신약성서 안에서 구약성서를 이해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분열, 곧 수백 개가 넘는 개신교의 파당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성서교회의 중요성과 복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사도들의 헌신



예수님시대의 로마황제 티베리우스의 개선
행렬 모습. 돌피에이 유적에서 발굴된 은컵



바울시대의 로마황제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지시하는 손가락질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부조에 새긴 예루살렘성전의 메노라(금등대), 깃대, 나팔,
장대에 매달아 치켜든 무비카메라처럼 생긴 것들은 포로와 노획물 등을 적은 게시판이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바울과 그 일행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
는가를 연상시키는 구절이다.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는
대중 앞에서 공개처형하기로 결정된 죄수나 노예 또는 검투사 등
을 말한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개선행렬의 맨 끝을 말한 것으
로써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전쟁노예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온 우주
를 하나의 원형경기장에 비유한 것으로써 행렬이 원형경기장에 입
장했을 때, 피를 요구하는 대중의 구경거리 또는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말한다. 10-13절은 이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 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주리고 목마

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며, 파당을 지어 상대방을 얽잡아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오만한 교인들과 촛불처럼 제 몸을 불사르는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줌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었다. 또 바울은 복음으로써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자만의 극치에 이른 일부 교인들은 회개는커녕 강하게 바울에게 반발하였다.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고, 나중에는 화해의 편지까지 썼다. 바울이 끝까지 내민 것은 도움의 손이었지만, 고린도교회 일부 교인들이 내민 것은 비난의 손가락이었다.

11.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4(고전 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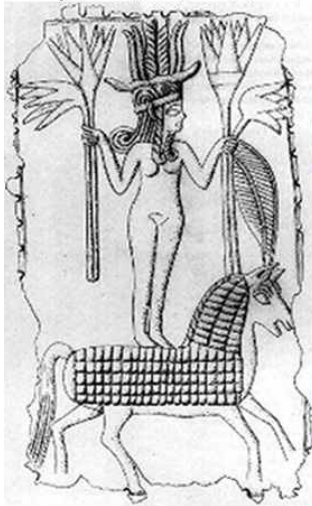


시돈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의 스템크스 팔걸이의자와 그녀에게 신전을 봉헌했노라고 기록을 남긴 시돈(레바논)의 왕 에슈무나자르의 석판(루브르 박물관 소장)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

고린도가 그리스의 타락한 소돔성이 됐던 테에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과 무관하지 않다. 고린도에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가 있었다면, 그녀의 배경에 아스다롯(Ashtoreth)이 있었기 때문이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유사한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각각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불렸다. 솔로몬이 주변국들과 결혼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여 신당들을 제공하였고, 왕비들이 주관하는 신당축제들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과 시돈(레바논)의 주화에 실린 마차를 탄 아스다롯(이스라엘 박물관)



에 배석하였는데, 아스다롯 축제가 대표적이었다. 이로써 솔로몬의 결혼동맹정책은 남북분열의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린 오프리는 왕자 아합을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에 심취된 시돈 출신 이세벨과 결혼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미모가 뛰어나고 두뇌회전이 빠른 이세벨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철저히 유린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되었다. 이 난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고군분투하였다.

여신 아스다롯의 신전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통, 새의 날개를 단 스팅크스가 부조된 팔걸이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여신의 축제는 봄, 초여름, 가을에 있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맞물려 있었다.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EI)이었다. 엘은 ‘산당’을 뜻하는 아세라(Asherah)한테서 바알(Baal)과 아스다롯과 아낫(Anath)을 낳았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과 전쟁의 여신 아낫은 자매로서 오빠인 바알의 부인들이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를 의미하며, 하늘의 폭풍,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자, 척박한 근동에 비를 뿌리는 신이었다. 반면에 아스다롯은 바알로부터 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아스다롯 신전(산당)에서 사제(성창)들과 살을 섞곤 하였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여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상숭배금지와 율법의 맥락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믿었던 농경문화가 만든 음란한 우상숭배행위가 유목문화와 유일신 야훼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의 삶을 자주 흔들어놓곤 하였다. 우상도 없고, 여신도 없고, 신화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단지 율법(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만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숭배는 오늘의 흥등가처럼 매우 자극적이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농경문화의 관문인 모양평지 싯딤에 이르러 발람의 꾀에 속아 바알브올의 종교의식에 참가한 직후, 무려 2만 4천명이 열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열병은 사제들로부터 옮긴, 적어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성병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다롯 의식에 유혹을 받았다.

신구약성서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맥락을 같이하는 이유는 근동세계의 종교의식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십계명에서 제1-2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성서 66권에서는 우상숭배를 음행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 이유가 예배자가 사제(성창)와 성관계를 맺는 근동의 종교의식 때문이다.

고린도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음행문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닷물 거품에서 태어나 조가비에 몸을 싣고 키프로스(구브로) 섬의 물으로 나왔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수도 바보가 아프로디테의 본산지였지만, 그리스 본토에서는 유일하게 주신으로 모셨던 고린도가 더 유명세를 탔다.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리스 반도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한 덩어리 바위산 아크로고린도에 세워졌었고, 1천여 명의 여사제들 곧 신전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매우 부유하였다. 이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세계에서 고린도는 성을 사고파는 도시로써 주전 수백 년 전부터 그 악명을 떨쳤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의 변질에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의 영향이 컸다.

고린도를 상징하는 명물에는 천마 페가소스가 있었다. 따라서 고린도 주화에는 어김없이 페가소스가 등장한다. 헬라제국시대에 만들어진 주전 300년대의 드라크마를 보면, 페가소스와 함께 여신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새겨져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할 것이 여신들의 모양새이다. 아프로디테는 리본으로 머리를 여미고, 끝을 묶

어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에 귀걸이와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아프로디테의 이 꾸밈새는 당대의 그리스 여성들, 특히 고린도 여성들과 성장들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늘 고린도의 헬멧을 착용한 모습으로 새겨져 대조를 이뤘는데, 이는 고린도인들이, 아테네인들처럼, 여신 아테나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긴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린도 주화

앞면에 페가소스와 발 사이에 고린도의 첫 글자 "q"를 새겼다.
 뒷면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리본으로 머리를 여미고
 끝을 묶어 늘어뜨린 모습과 귀걸이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을 새겼다.

앞면에 페가소스와 발 사이에 고린도의 첫 글자 "q"를 새겼다.
 뒷면에 아테나 여신이 고린도의 헬멧을 착용한 모습을 새겼다.

고린도교회는 흥등가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음행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었다. 또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고, 바울은 음행으로 더럽혀진 교회의 얼룩을 신속히 지우려고 하였다.

바울의 귀에 교인 중에 계모를 취한 자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교회는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일을 통탄스럽게 생각지도 않았으며, 그자와 교제를 끊거나 출교시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 그를 그대로 뒀다가는 음행이 교회 공동체에 누룩처럼 번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를 출교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4-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는, 가상이지

만, 바울이 교회의 공동의회에 영으로 참석하여 음행한 자를 출교시키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이며, 그만큼 사안이 엄중했다는 뜻이다. 출교는 공적 예배와 성찬 예식에서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이기 때문에 출교는 교인을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식구에게로 복귀시키는 징계였다. 실제로 출교의 엄격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밀라노에서 있었다.

주후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주민반란이 일어났고, 진압과정에서 7천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하였다. 이 무렵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밀라노에 머물고 있었고, 밀라노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였다. 주교는 이 천인공노할 도륙의 책임을 황제에게 물어 공적 예배와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활주일에 황제가 예배당에 들어서려고 하자 암브로시우스는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황제가 참회하기까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노라고 하였다. 이후 다시 황제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자, 암브로시우스는 다시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참회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노라고 완강하게 막아섰다. 이 사건은 결국 황제가 주교에게 굴복하여 참회함으로써 매듭짓게 되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는 2년 후인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교가 엄격한 징계인 것은 사실이나 회개의 기회조차 빼앗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5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은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범한 교인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고, 또 교회가 얼룩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바울은 6-8절에서 교회가 만일 교인의 악행을 덮어버린다면, 악행은 묵은 누룩처럼 빠르게 공동체를 썩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때 누룩 없는 빵을 먹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유월절 속죄양이 되셨으므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덩어리 빵처럼, 분열의 누룩, 음행의 누룩을 제거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한 몸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9-13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세상을 심판할 권한은 없지만, 교인은 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더라도 사생활권과 인

권의 보장이 한층 강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교회가 교인들을 권면할 때에 형법과 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속국가는 교회법을 형법과 민법의 하위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12.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5(고전 6:1-11)

유대교 회당의 전통

고린도교회는 분열과 음행에 이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소송을 가져감으로써 심하게 더럽혀지고 있었다. 이에 바울이 성도들의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나 음행한 사람을 출교시키라는 권면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 보인다.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모자이크)

그 첫째가 유대교 회당 전통이다. 유대교 회당에는 복수의 회당장들이 있었다.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장로들이요 판관들

이었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관리했던 회당이 예배당이자, 학교였고, 지방공회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마 10:17),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눅 21:12),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행 22:19)와 같은 성구들이 회당이 지방공회였음을 말해준다.

회당장들은 세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나 증인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낮게 해주려고 가버나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이들도 회당장이었다(눅 7:3). 이들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었고(마 23:6), 아이로는 회당장들 중 한 명이었으며(막 5:22),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남부에서 처음 선교할 때,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각 회당의 회당장들이 허용했기 때문이다(행 13:15).

바울은 유대교 회당 전통에 익숙한 바리새인이었고, 고린도교회 안에도 유대교에 호감을 갖고 회당에 출입했었던 헬라인들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교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헬라인들이 잘 알고 있었고, 교회에도 회당장들에 해당되는 장로(목사)들이 있었던 만큼 세상 법정을 멀리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와 고린도 법정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구절에 언급된 갈리오는 본명이 유니우스 갈리오 안나에우스(L. Junius Gallio Annaeus)로서 황제 네로의 미움을 받아 죽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로서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에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되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 고린도에서 멀리 아니한 델포이 신전에서 비문이 발굴되었는데, 주후 51-52년경 아가야 도에서 총독의 임기를 무사히 마친 갈리오에게 클라우디우



델포이 신전에서 발굴된 총독 갈리오 비문
 주후 51-52년 아가야 총독의 임기를 마친 갈리오에게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보낸 축하문이 음각되어 있다.



고린도 주화
 전면: 황제 클라우디우스(주후 41-54년)
 후면: 아크로고린도 바위에 세워진 육주식의 아프로디테 신전

스 황제가 보낸 축문이 음각된 것이었다. 이 비문은 바울의 고린도지역 선교시기와 서신들의 기록 연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 발굴된 고린도 주화를 보면, 전면에는 황제 클라우디우스(주후 41-54년)가, 후면에는 한덩어리 바위산 아크로고린도에 세워진 육주식의 아프로디테 신전의 정면이 새겨

져 있어서 신전의 규모를 가늠케 해준다.

갈리오 총독이 재임하던 때에 바울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폭도들에 붙잡혀 고린도 법정에서 끌려갔으나 유대교 내부문제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해결하라며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몰아내버렸다. 사도행전 18장 14-15절에서 갈리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대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자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이 회당장인 소스테네를 붙들

어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 사람 소스테네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교회에 문안인사를 보낸 사람이었다.



아크로고린도에서 내려다본 옛 고린도

고린도 법정은 아크로고린도 방향으로 아고라(시장)에 있었다. 지금도 옛 고린도 유적지에는 당대의 법정 연단이었던 베마(Bema)가 남아 있다.



바울이 끌러가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던 연단(법정)

교회의 윤리수준

바울이 성도들의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나 음행한 사람을 출교시키라는 또 다른 배경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있다.

교회는 세상은 물론 유대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 받는다. 바울 당시는 고린도뿐 아니라, 로마제국 전체의 윤리 수준이 형편없었다. 노예들과 여성들의 성적착취와 동성애는 물론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인권이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뿐 아니라, 민중 대다수는 생존과 힘겨운 씨름을 해야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수의 헬라인들이 토라를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윤리의식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들의 회당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회당을 후원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수준이 유대교인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회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대교인들보다 못하고, 자신들이 심판해야할 세상 법정으로 까지 송사를 가져갔으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았겠는가고 물었다. 필경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작은 송사조차 해결할 사람이 없다거나 사소한 분쟁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지, 남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 곧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색을 탐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씻음과 거룩케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므로 세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교회가 현대사회 속에서 더 이상 법정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회법이 형법과 민법의 하위법으로 취급되고 있고, 사생활권과 인권의 보장이 한층 강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13.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6(고전 6:12-20)

자유지상주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곧 절제를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주장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뉘 영혼은 선한 본질이지만, 육체는 이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육체를 억제하는 금욕주의자와 육체를 남용하는 향락주의자로 나뉘었다. 그리고 육체를 남용하는 향락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였다. 향락주의는 그리스의 소돔이었던 고린도에서 특히 악명이 높았다. 당대의 헬라인들이 음란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corinthiajo)고 하였고, 창남들을 “고린도의 친구들”(corinthiai hetarai), 창녀들을 “고린도의 아가씨들”(corinthiai corai)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라파엘로 산치오(1483-1520)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 등장한 제논(좌측중앙)과 에피쿠로스(우측). 제논은 금욕주의를,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주창함.

corai)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은 플라톤보다 한 세대 뒤에 제논(주전 330-265년)과 에피쿠로스(주전 342-270년)에 의해서 시작되

었다. 스토아 철학이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한 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고, 에피쿠로스 철학은 향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다.

이 가운데 에피쿠로스 철학은 근대 공리주의의 원조가 된다. 공리주의는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정의요 선이라고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맥락을 이어갔던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자유론>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유지상주의를 주창하였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 타인의 행복, 즉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오직 내게만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식이다. 내가 자살을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콩팥을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든 무슨 상관이나는 식이다. 내 몸의 결정권은 내가 가졌다는 주장이다.

무신론

존 스튜어트 밀이 19세기 인물인 것에서 보듯이, 18-19세기는 기독교신앙에의 도전과 배도의 시기들이었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자유주의 이론가였던 존 로크(1632-1704), 공리주의를 표방한 제러미 벤담(1748-1832), 공리주의에 반기를 든 임마누엘 칸트(1724-1804), 신의 죽음을 선포한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 <죄와 벌(1866)>과 <카라마조프가(家)의 형제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고통이 없는 쾌락을 강조한 자유지상주의자

(1880)를 발표한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등이 활동했던 시대였다. 이 시대는 신의 죽음과 인간의 자유를 입에 올리던 무신론의 시대였다. 또한 이 시대는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사조가 기독교신학을 지배하여 계시, 기적, 예언,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등을 부정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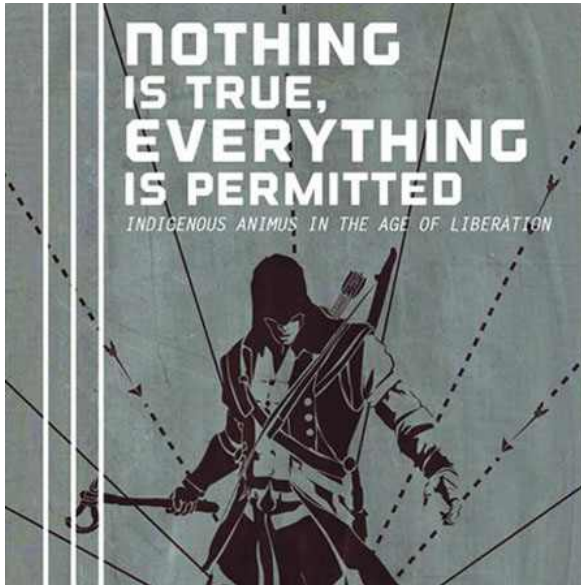
신이 죽었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곧 신이나 다름 없다. 신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한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에게는 살인이 죄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것은 자신에게 인간을 죽일 권리가 있는지, 자신이 초인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신의 영역에 접근하려 했던 행동을 죄라고 불렀다. 같은 관점에서 〈카라마조프가(家)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이복동생 스메르자코프에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반의 이 말에 현혹된 스메르자코프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표도르를 살해하고 만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은 또한 가상적인 게임에서든 실제 상황에서든 암살단의 구호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구호를 외친다. 신이 없다는 이 위험한 사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자유와 제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신앙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

문에, 그토록 많은 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선전하는 암살단 포스터 작은 글씨로 “해방의 시대에서의 자생적 증오”라는 말도 썼다. 사용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법은 결국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체가 합의한 계약이다. 인간에게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는 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개인에게 허용할 자유의 폭을 놓고 지금도 나라마다 진보와 보수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허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법 말고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 세상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세상의 법과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신앙양심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세상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는 죽음을 말한 것이다. 음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본능에 이끌려 그것들을 악용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에게까지 해악을 끼친다는데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나 허락하신 것들이 본래 악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인간들에

과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15-2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한 몸이 되었는가, 누구의 신부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구성원)들이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며, 성령님의 성전인데, 창녀와 한 몸이 된다면, 이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부생활을 뜻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창녀와 몸을 섞는다면, 그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가 이를 버리고 다시 창녀와 한 몸을 이룬다면, 이것은 자기 몸에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참 자유 곧 절제이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금욕도 향락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4.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7:1-9, 25-40)

독신과 금욕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결혼과 독신이다. 고린도교회에 영지주의와 철학 사조들로 인해 향락주의와 금욕주의에 경도된 자들이 있었다. 5-6장에서 음행의 문제가 거론된 직후에 7장에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가 거론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향락주의는 천명이 넘는 노예성장을 거느렸던 아프로디테신전, “모든 것이 가하다”며 육체를 남용한 영지주의 및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긴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금욕주의는 육체를 억제하는 영지주의 및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스토아 철학은 노예, 매춘부, 빈민처럼 힘겹게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선악과 행복행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가르쳤다.



금욕주의를 실천했던 엑세서네파의 거주지 킬벳 쿨란(Khirbet Qumran) 사해반다 근처에 있으며, 주후 70년 예루살렘멸망 때 폐허가 되었다. 이 아니함이 좋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아

바울은 독신자였을 뿐 아니라, 독신과 금욕에 경도된 측면이 있었다. 바울은 1, 7, 8, 26, 38, 40절에서 6차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과 부부생활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7절에서 금욕을 은사로 간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한다고 누구나 원초적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은사가 없다면, 불같은 정욕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권고하였다.

바울은 금욕과 독신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32절에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고한 말씀에서 보듯이, 금욕의 목적은 주의 일에 전념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29절에서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고 하였다. 가족에 매이면 주의 일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금욕과 독신을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26절과 28절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고한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고난 때문이었다. 가족에 묶이면 마음이 약해져 배교할 위험이 있다.

결혼의 목적

바울은 결혼의 목적을 창조적 질서에 두기보다는 음행을 피하는 데 두었다. 2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였다. 28절에서는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결혼, 재혼, 부부의 합방, 부부의 합의의 목적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다 두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3-4절에서 남편은 아내의 욕구, 또 부인은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

야 할 의무가 있다고 충고하였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충고하였고, 부부사이의 합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분방을 해놓고 서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전 80년경의 부부 묘비(영국박물관)
해방노예들이었던 남편 아우렐리우스 헤르미아와
부인 아우렐리아 필레마티오의 결혼생활이 기술되어 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인들은 일부일처제와 부부사이의 정절을 중요시하였다. 남편 아우렐리우스 헤르미아와 부인 아우렐리아 필레마티오의 결혼

생활이 기술된 주전 80년경의 묘비명을 보면, 해방노예였던 남편은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부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으며, 부인의 헌신덕분에 매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적었다. 역시 해방노예였던 부인도 7살에 남편을 만나 40년간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남편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정숙하고 겸손하였으며, 남자들의 추파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새겼다. 이 묘비명에서 보듯이, 정절은 아내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했고, 남편을 유혹할 수 있어야 했다. 반면에 남자들은 부부생활의 목적이 출산에 있다는 철학적 관점을 거부하였다. 정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남자들끼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고, 매춘부를 찾는 행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바울의 남녀평등주의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크(Plutarch, AD 45-120)의 결혼과 부부생활에 관한 견해를 보면, 바울의 사상이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알 수 있다. 플루타르크는 남편을 부인의 결정권자와 통치자로 부각하였고, 부인은 남편에게 상냥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부부생활에서 부인이 여주인처럼 남편을 주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반면에 바울은 남녀평등주의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였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의 남녀평등주의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다.

첫째, 바울은 3-4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부인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부부생활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써 동시대의 플루타르크와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석관에 복조된 로마인 커플의 결혼식
(2세기경, 영국 박물관)

둘째, 바울은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말함으로써 부부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셋째, 바울은 33-3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해야 옳지만, 인간적으로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부부는 일심동체임을 강조한바가 있다. 따라서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부부가 결혼생활에서든 부부생활에서든 상호의존적이고 동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음행은 부도덕하고 불신실한 것이다. 반면에 플루타르크는 부인이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였다.

15.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8(고전 7:10-24)

이혼에 대한 바울의 관점

이혼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와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 쪽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남편과 부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것으로서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서서 이혼에 대해서 선을 그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의 연고가 없는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자요, 그 버린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마 5:32; 19:8-9).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폼페이이의 중류층 부부의 초상화 남편 테렌티우스 네오가 배낭짐을 운명하였다.

였던 여성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반면에 바울의 말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 서지 말라”(10절)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11절)에서 보듯이 이혼에 대한 여성의 능동적 의지가 남편과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이혼하고자 하는 남편과 부인의 의지를 동등하게 규제하였다.

둘째,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 쪽만 그리스도인인 경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불신자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부부 모두가 그리스도인 경우와 어느 한쪽만 그리스도인 경우가 자녀들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하라고 충고하였다. 신자인 배우자와 불신자인 배우자 사이에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이라고 하였다. 배우자 사이에 종교적인 이견이 있더라도, 두 사람 사이가 화평하다면, 배우자를 개종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화평이 없다면 배우자를 개종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불신자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대응하라고 충고하였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폼페이 부부의 초상화는 고린도교회를 출석했던 부부의 모습을 연상시켜준다. 초상화의 인물들은 빵집을 운영한 테렌티우스 네오 부부로 알려져 있다. 부인은 손에 철필과 서판을 들었고, 값나가는 옷차림에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머리를 중앙에서 가르마를 타 곱게 빗어 넘겼고, 곱슬머리가락들을 이마와 목덜미 아래로 늘어뜨렸다. 남편 네오는 가무잡잡한 피부에 V자형의 이마를 가졌으며, 남성답게 짧은 머리에 구레나룻을 갖고 있다. 토가차림에 파피루스문서를 맡아 준 남편과 철필과 서판을 쥔 부인의 모습은 부부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신분

유대사회에서 모세가 명한 이혼증서는 가부장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유대사회에서 이혼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한테서 버림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특히 그것이 간음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여성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혼녀가 이혼증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그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혼도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도록 한 것은 이혼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의 기본권이 크게 신장된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의 여성들은 여전히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하물며 구약시대에는 어떠했겠는가? 이혼증서도 없이 버림당하는 여성들이 다반사였을 당시에 이혼증서를 주라는 모세의 율법은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정한 훌륭한 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유대인들에게 이혼을 당연시하는 법으로 악용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마 5:32; 19:6,9). 타고났거나 타의나 자의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 남녀가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바울시대의 여성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었다. 여성에게 임신과 집안일 말고는 법적 지위란 것이 없었다.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혼이 흔했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폭력은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주인은 노예를 때리고 강간했으며 학대했다. 가장은 부인과 어린 딸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폼페이시의 상류층 여인의 초상화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

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었다. 여성에게 임신과 집안일 말고는 법적 지위란 것이 없었다.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혼이 흔했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폭력은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주인은 노예를 때리고 강간했으며 학대했다. 가장은 부인과 어린 딸을

매춘부로 내몰기까지 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참금을 되돌려 받고 이혼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혼녀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었다. 가난은 여성들을 매춘부의 길로 내몰았다. 매춘부의 대다수는 노예들이었고, 국가에 세금도 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무작정 당하고 산 것만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강했다. 심히 불평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조차 여성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남편의 강력한 동반자로서 인생의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림은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을 폼페이 여성의 초상화로서 당대에 유행했던 곱슬머리에 금색 머리 망과 금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손에는 철필과 서판을 들고 있어서 여성이 결코 약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바울의 관점

바울은 스토아 철학이 발전했던 터키 남부지역 다소출생이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에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아 철학은 최고신인 제우스까지도 운명에 지배된다고 믿었던 숙명론이다. 자기 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유교의 칠정(七情)에서처럼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할 것과 불교에서처럼 욕심을 버려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동시에 스토아 철학은 노예, 매춘부, 빈민처럼 힘겹게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선악과 행복행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8-19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라. 20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로써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명령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의 이 명령이 선악과 행복행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가르친 스토아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21-24절에서 바울은 그가 왜 그토록 매몰찬 명령을 했는가를 부연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두니지 두가(Dougga)의 모자이크(2세기경)
4명의 노예들이 각각 물과 수건, 포도주 단지, 꽃바구니를 들고 있고, 악마의 눈을 물리치기 위한 호신약을 착용하고 있다.

입은 자들은, 비록 그들이 이 세상나라에서는 노예일 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나라에서는 자유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비록 그들이 이 세상나라에서는 자유인일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바울은 로마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칭하였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나라에서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바울은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와 동역자라고 호칭하였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할 것을 간청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빈부귀천민족색깔에 상관없이 형제자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나라는 뜨내기야 사는 세상일뿐이고,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삶이라고 하였다.

16.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9(고전 8:1-13)

시장에서 판매된 고기



고린도의 아폴론 신전



고린도의 옥타비아 신전(초대 로마황제의 누이)



고린도식 주랑들로 세워진 제우스 신전

지난 2000년 5월에 개봉된 영화 <글래디에이터>(검투사)는 로마의 오현제 가운데 마지막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한 주후 180년 직전직후를 배경으로 삼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가 자행한 10대 기독교 박해 가운데 다섯 번째 박해자였다. 그는 속명론을 믿는 스토아 철학자답지 않게 자연재해가 기독교 때문이라는 오판을 하여 탄압하였다. <변증서>를 쓴 저스틴이 순교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 때 고린도를 다녀간 지리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파우사니아스(Pausanias)였다. 그가 쓴 <그리스 이야기>에 의하면, 옛 고린도에 아폴론, 옥타비아(초대 로마황제의 누이), 제우스, 헤라, 튀케(운명의 여신), 포세이돈, 헤르메스의 신전들이 있

었고, 심지어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다. 또 아고라(광장)에는 아르테미스(아데미), 디오니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테나 등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밖에도 아크로고린도 기슭에 이시스와 세라피스, 파테스(Fates), 데메테르 등의 사당들이 있었고, 정상에는 6주식 아프로디테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였다.

이처럼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들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이 많았다. 따라서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면, 우상의 제물을 사먹는 것이 되었다. 또 신전에 제물을 바친 자가 자기 몫의 고기를 받아와 잔치를 베풀었고, 성도가 그 잔치에 참석했다면,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교회는 고기 먹지 않는 파와 고기 먹는 파로 나뉘져 있었다. 고기 먹는 파는 분명히 비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향락적 영지주의에 경도된 자들이 이 파에 속했을 것이다. 육체를 남용하는 향락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에 고기 먹지 않는 파는 유대인들과 금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카샤룻’(Kashrut)이라 불리는 까다로운 음식법을 지켰기 때문에 꼭 우상의 제물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 도살한 고기나 조리한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편향된 초기 에비온파와 스토아 철학에 경도된 금욕주의자들이 이 파에 속하였을 것이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판단근거

일찍이 사도들은 총회를 열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행 15:29)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을 내린바가 있다. 이 지침은 십계명 1,2,6,7계명에 해당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 정통 유대인들과 달랐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신바가 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를 계명이나 유무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았다.

둘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고, 로마서 14장 20절에서는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으로 분류하여 카샤룻 음식법을 엄격



고대 그리스의 식료품점(상)과 정육점(하)

히 지켜왔던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로서는 급진적 사고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행위를 구별하였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숭배행위로 보지 않고 양심문제로 보았다(7,10,12절, 10:25-28).

셋째, 창조신앙이었다. 창조신앙은 우상의 제물에 무슨 마력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세속 도시>에서 창조신앙이 피조물을 숭배대상으로 여기는 것, 권력을 신성시하는 것, 유한한 가치를 절대시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1-2계명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 짓고, 인간을 피조물의 마력에서 깨어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만민을 평등하게 만들고, 권력의 족쇄와 폐쇄적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주술적이고 영적인 선악이나 계

명을 어길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우상은 돌이나 나무일뿐이고, 신성을 주장한 황제들조차 죽음을 피하지 못한 피조물로써 그것들이 제물에 무슨 신의(神意)를 담아 예배자에게 건넬만한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대안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할 판단의 근거가 신앙양심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고,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보았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의 뜻은 우상의 제물을 꺼리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제각각 옳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 지식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뿐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비방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약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로 8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 논리를 앞세워 먹는 형제를 비난하고, 또 반대로 먹지 않는 형제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행렬
사제와 향소와 도살자들이 그려져 있다.

스도인들은 종종 자기가 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이웃에게 사랑의 손 내밀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

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3절에서 강조하였다.

8장 4-6절은, 3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번개나 지혜 또는 대지처럼 그냥 명사와 이상일 뿐이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한 말이다. 반면에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한 말이다. 그리고 8-13절은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정답이다.

첫째,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상의 제물을 거리끼게 생각하며 먹지 않는 형제를 깊이 배려해야 한다.

둘째,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로 하여금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셋째,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 중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라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17.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0(고전 9:1-14)

바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바울은 그리스의 소돔이었던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고린도교회는 구정물 속에서 핀 수련이나 다름없었다. 바울은 구정물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마음과 영혼에 낀 때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다. 하지만, 몸까지 구정물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죽어서 하늘나라로 이주하기까지는 구정물 세상에 빠져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매일매시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또다시 때가 끼고 얼룩이 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요 자연의 법칙이다. 이 같은 원리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점차 마음과 영혼에 때가 끼고 얼룩졌다. 그 같은 것들에 파당과 분열(1장), 음행(5장), 소송사건(6장)이 있었고,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기 힘든 중립적인 즉 본질이 아닌 문제들(adiaphora)로 논쟁이 일었다. 그 같은 논제들에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7장),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8장)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바울은 즉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려고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썼다. 9장 1-14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랑의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세운 사도의 자격으로 고린도교회로부터 자신이 누릴 자유와 교회에 요구할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열하였고, 자신은 그 같은 자유와 권리들을 왜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자신의 순수성까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복음전도의 수



돼지를 부정한(treyf) 동물로 여겨 카사릇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다.

월성을 앞세운 사랑의 법 때문이었다. 사랑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손 내밀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9장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를 향한 것이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와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한 말씀은 고린도교회의 전 구성원을 향한 목소리이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사도인 자신이 자유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사도인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그 권리들을 왜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것은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말도록 명령한 사랑 때문이었다.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의 비판

3절을 보면 고린도교회에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누구였으며 무엇을 비판했는가? 또 바울은 그들로부터 왜 비판을 받았는가? 사도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바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무엇이었는가?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들이 비판자였을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로서 그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을 수 있다. 노예의 실상을 잘 아는 헬라인들로서

바울이 자신을 노예와 동일시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수 있다. 당시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노예들이었다. 더러는 노예의 자식들, 강도나 해적에게 납치되어 노예상인에게 팔린 자들, 빚을 갚지 못해서 계약서를 쓰고 스스로 된 노예들, 빚을 탕감 받거나 굶주림을 면하려고 아버지들이 팔아넘긴 자식들도 있었다. 당시 노예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복종이 강요된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들은 노동과 폭력과 성적학대에 시달렸다.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얼굴의 낙인과 등의 채찍자국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흔적이었다. 노예들에겐 그 어떤 도덕심도 수치심도 남겨지지 않았다. 남녀 주인들이 남녀노예들을 애어른 가리지 않고 성 노리개로 마음껏 농락했기 때문이었다.



카사룩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방
고기제플과 우유제플, 또 그것들을 조리하거나 덮는 용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싱크, 스토브, 전자레인지, 찬장 등을 두 개씩 설치하였다.

율법주의에
편향된 유대
인들이 비판
자였을 수 있
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
라고 말하는
것이 못마땅
했을 수 있
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
님의 직제자
가 아니었다

는 것과 바울이 한 때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들고 기독교를 탄압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뒀던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또 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에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불만이 쌓였을 수 있다.

비판에 대한 바울의 변호

자신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으로는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또 육신적으로는 로마시민권자로서, 베냐민지파에 속한 바리새파 출신의 랍비로서, 진정한 자유자요 사도요 주님을 본 자요, 고린도교회의 개척자임을 상기시켰다.

첫째,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며 자유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자신에게도 먹고 마실 자유와 권리가 있었음을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전파의 수월성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변호하였다.

둘째,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가족을 거느릴 자유와 권리가 있었음을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전파의 수월성을 위해서 이 자유와 권리마저 포기하였다고 변호하였다.

셋째,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전도자로서 고린도교회로부터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전파의 수월성을 위해서 자급자족하였다고 변호하였다.



카사룩 음식점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식당 정한(kosher) 음식재료들만을 사용하고,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이 어떤 경우에도 섞이지 않도록 조리하는 식당 군복무를 하지 않는 점, 포도원지기가 그 수확물로 먹고사는 점,

넷째,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앞세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실생활과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먹고 마실 자유와 권리, 가족을 거느릴 자유와 권리,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될 자유와 권리가 있었음을 변호하였다. 실생활의 사례들로써 군인이 자비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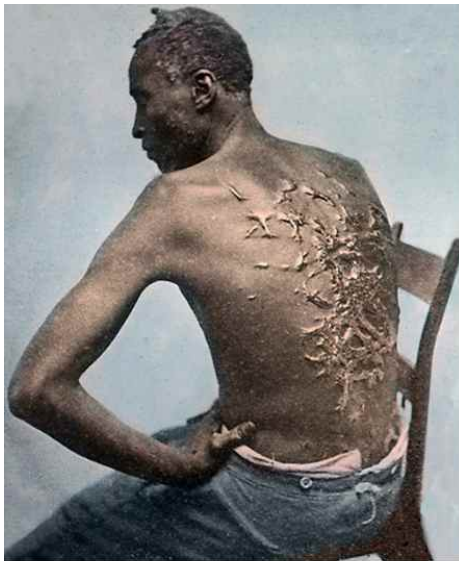
양치기가 양의 젖과 살코기와 가죽으로 인해 먹고사는 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탈곡하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탈곡한다”는 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점,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도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었으나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바울과 일행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참아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랑노래’가 나온다. 그 노래의 서막이 바로 9장이다. 바울은 9장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 사랑은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기보다 제한하기 때문이다.

18.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고전 9:15-27)

하나님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신 몸의 흔적

세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신 흔적이다.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부족하여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만들어 굳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몸의 흔적이다.



고든 혹은 피터(Gordon or Peter)
1863년 3월에 루이지애나의 농장에서 탈출한 노예

고린도전서에는 세 가지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첫 번째가 세계의 절반을 부정하게(treyf) 보고 그것들을 율법과 규례로 막고자 한 것이었다. 율법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피해자들은 항상 약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편향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았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들과의 교제를 차단

시켰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가 정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이유이다.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악하게 보고 남용해도 좋다고 본 것이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자유지상주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항상 약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쾌락주의에 편향된 영지주의 헬라인들이었다. 그들은 약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지배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희생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세계를 만든 창조주는 저급한 신이고, 참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없다며 성육신을 부정하였다.

세 번째는 세계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본 것이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사용하는 동기, 목적, 방법에 따라서 그것들이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는데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사랑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혜택이 항상 약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몸의 흔적

바울은 고린도서를 쓸 무렵이나 그 직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다.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곧 바울의 몸의 흔적은 무엇인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고린도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교회에도 있었다. 그들은 초기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모세율법에 편향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들 중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



태어난지 8일만에 행하는 유대인들의 할례의식

의 흔적은 유일신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의 표시였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 바울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첫째는 빈번한 박해와 고문으로 인해서 몸에 생긴 흉터를 말한다는 주장, 둘째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Francis of Assisi)가 갖고 있었다는 ‘성흔’(聖痕)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주장, 셋째는 이교도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헌신을 맹세할 때 몸에 만드는 제의적인 흔적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주장, 넷째,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점차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인 빈번한 박해와 고문으로 인해서 몸에 생긴 흉터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주 강조하였다. 신학자 케제만은 바울이 즐겨 쓴 ‘그리스도의 노예’란 표현을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운명적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당시 노예들의 몸에는 이마에 새긴 화인(火印: “F”=Fugitivus)을 비롯해서 채찍에 맞아 생긴 흉터들을 갖고 있었다. 바울의 몸에도 그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았던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 15-27절은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노예처럼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요, 예수님의 몸에 생긴 채찍자

국,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인 것처럼, 바울의 몸에 생긴 흉터들 또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몸의 흔적이다.

본질이 아닌 중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교회의 열륙의 근본은 파당과 분열(1장)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음행(5장), 소송(6장),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7장), 우상의 제물(8장)의 문제들도 파당과 분열에 연결되고, 그것들은 또 유대인과 헬라인, 율

항아리와 접시에 그려진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경기
 법주의와 영지주의,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과 같은 민족, 문화, 관습, 종교에 연결된다. 유대인들의 다수는 모든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 부정한 것을 엄금(嚴禁)하였고, 헬라인들의 일부는 모든 것이 가하다며 남용(濫用)하였다. 고린도교인들의 문제들은 그들의 이전 뿌리 즉 민족, 문화, 관습, 종교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음행과 우상숭배는 본질의 문제로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던 반면, 소송, 결혼, 이혼, 독신, 재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로서 사랑이 제한해야할 사안들이었다. 바울은 비본질의 문제들(adiaphora)을 사랑의 법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고린도전서 9장 15-27절은 사랑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제한시켰고 훈련시켰는가를 설명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난 3세기에 걸쳐 본질에서 일치하고, 비본질에서 견해차를 허용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자고 외쳐왔는데, 이 원칙이 분열을 막지는 못하였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놓고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자고 2백년 넘게 외쳐왔는데, 이 원칙도 역시 분열을 막지는 못하였다. 성서가 침묵한 것을 허용으로 볼 것인지 혹은 금지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상반된 관점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법에 따라 비방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형제애의 손 내밀기가 있었던 때에는 견해차이가 분명한 곳에서도 연합이 유지되었다.



여신 나이키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승리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의 판단은 사랑의 법이 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지 말아야 할지의 판단도 사랑의 법이 한다고 보았다.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고기도 먹지 않았고, 자유와 권리도 쓰지 않았으며,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었으며,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또 바울은 스포츠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목표를 세워놓고 정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9.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2(고전 10:1-13)

출애굽 모형

바울은 모세가 인도한 히브리민족을 신약교회의 모형으로,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 40년의 사건들을 신약교회에서의 사건들의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이 출애굽 모형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한 것은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멸망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4절에 나타난 출애굽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성서에서 이집트는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노예들을 가둔 어둠의 세계를 상징한다. 히브리인들은 도망쳤다가 동족구출을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의 인도를 받아 탈출에 성공한다. 신약성서에서 모세는 예수님,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을 좇아 살던 죄인들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죄악세상을 탈출한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의 홍해도하를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였다.

둘째, 히브리인들이 구름아래서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넌던 홍해는 영적 죽음과 부활의 상징

으로써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한 후에 옛 사람은 죽어 장사되고 하나님나라의 시민과 하나님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인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셋째, 히브리인들이 홍해해변에서 시작한 광야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후 시작하는 교회생활의 모형이다. 광야생활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었듯이, 교회생활은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다.

넷째,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였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계시로써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형이다.

다섯째, 히브리인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만찬의 모형이다.

여섯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넌던 요단강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모형이다.

일곱째, 히브리인들이 차지한 지상 가나안땅은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할 하늘 가나안땅의 모형이다.

여덟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악행한 일들, 곧 파당을 지어 모세를 적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집트에서 누렸던 삶을 그리워했던 것들은 고린도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출애굽 모형의 교훈(1)

출애굽 모형에서 바울이 강조하려고한 내용은 5절로써 침례 받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던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다수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같다는 경고이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의 다수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이 6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

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고 하였다. 히브리인들이 즐겨 했던 악에는 우상 숭배(7절), 음행(8절), 시험(9절), 원망(10절)이 언급되었다. 바울은 이 같은 악행을 즐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이런 악행들로 인해서 멸망한 사례들을 본보기로 열거하였다.



히브리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만 30일만인 5월초에 신 광야에 도착하였는데, 이때부터 만나("뭐지?"의 뜻)를 먹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 히브리대학의 식물학 교수팀이 시나이반도 중앙 계곡에서 5월경에 위성류(tamarisk tree) 나뭇가지 끝에 기생하는 주머니박지벌레과의 벌레들이 배설한 분비물이 밤중의 건조하고 찬 공기 속에서 끈끈한 고체 방울로 변했으며 나중에는 희고 누런 빛 또는 갈색 빛을 띤 달콤한 만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먹었던 그 만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히브리인들은 첫째 달(니산) 15일에 이집트를 탈출하여(출 12장) 한 달 만에(이야르 15일) 신 광야에 당도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였다(출 16장).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당도

했는데, 이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5일 째가 되는 셋째 달(시반) 초하룻날이었다. 그리고 5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다(출 24장). 이 때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이다. 히브리인들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이듬해 첫째 달까지 머물며, 체결한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후(민 9:5) 그곳을 떠나 1-2주쯤 후에 가나안 땅 남쪽 접경지인 바란 광야에 이르러 오아시스인 가데스에 진을 쳤다(민 10:12, 20:1).

첫째, 10절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던” 사건은 민수기에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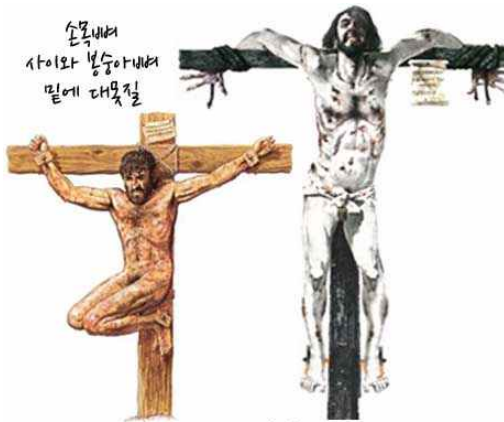
수기에만 “원망”이란 단어가 11절에 기록될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지나 가져온 양식이 모두 고갈되자 히브리인들의 원망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노예생활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 때가 오히려 더 좋았노라고 불평하였다. 이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하였는데, 만나에 물린 히브리인들이 이번에도 고기타령을 하며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끝에서부터 불이 붙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다(민 11:1)

출애굽 모험의 고훈(2)

히브리인들의 원망은 지속되었다. 그들이 가나안땅의 남쪽 접경지인 오아시스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 열두 족장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 정탐하였고, 그 땅이 매우 비옥하다는 증거물로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민 13:23), 그러나 그들 중 열 사람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그곳 아나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였다(민 13:33). 이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 응보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된 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총40년 간 광야를 배회하였다(민 14:29-35).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들을 보고셔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였다.

민수기 16장에 소개된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 즉 불이 담긴 향로에서 불과 불티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도 원망에서 비롯되었다. 민수기 16장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성막 문 앞에서 생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험을 펼치는 장면에 관한 기사이다. 사건의 발단은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250개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게 한 다음 하나

님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였다. 결과는 모세와 아론의 향로들 위에 피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나머지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이 일을 원망하다가 염병에 걸려 추가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족장들의 죽음은 향로의 불에 의한 것이고, 염병에 의한 죽음은 불티와 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향로는 염병을 멈추는 일에도 쓰이고 있어서 생사를 결정짓는 용기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죄악을 온전히 덮는 제사 십자가의 도(복음)=죄악을 치유하는 지식=행빛(금) 계시 예수십사대의 성전봉사자 예로하난의 죽음을 재구성한 그림

뱀을 바라보게 하여 살려냈다. 이 뱀뱀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그리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구약성서에서도 뱀이 병도 주고 약도 주었다.

둘째, 9절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가테스(신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 응보로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뱀뱀을 물린 자들에게 뱀뱀을

바울은 과거의 역사를 들춰 상기시킨 이유를 11-13절에서 그것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돌파하라고 권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허락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0.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3)(고전 10:14-22)

출애굽 모형의 교훈(3)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악행을 저질러 멸망한 사례들을 열거하였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 받았다”(5절),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 죽었다”(8절),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10절)고 경고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실린 출애굽 모형의 세 번째 교훈으로써 7절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근거한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두여 달쯤 지난 시점에 시내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다가 살육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오랜 기간 내려오지 않자, 일부 불순세력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1절)며, 아론을 협박하여 여성들로부터 금붙이를 모아 녹여서 금송아지를 주조한 후에 제단을 쌓았고, 이튿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뛰놀았다(6절).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레위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자들을 치게 하여 이날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28절). 이 3천명의 사망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별도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참고로 성막 기물들에 입힌 금은 주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두들겨 펴서 만든 것들이다.

출애굽 모형의 네 번째 교훈으로써 8절의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는 사건은 민수기



메두사로 분장한 가수 리한나
 명칭에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새겨넣었다.
 이시스는 아스타롯(가나안), 아프로디테(그리스),
 비너스(로마)에 해당되는 이집트의 여신이다.

25장에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지 40여년이 지났을 무렵에 농경문화의 관문인 모양평지 싯돔에 이르러 발람의 꾀에 속아 브올산의 바알신전 축제에 참가한 직후에 2만 4천명이 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염병은 모압 여성들한테서 옮긴 히브리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성병으로 추정된다. 바울이 언급한 2만 3천명은 염병으로 죽은 자들이고, 나머지 1천명은 교수형이나 칼에 도륙당한 자들일 것으로 추정된

바울은 11절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이 기록된 이유를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고, 13절에서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돌파하라고 권면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월절 축제(Pesach Seder)와 주의 만찬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세 개의 무교병, 물을 희석한 넥 잔의 포도주, 구운 계란, 양의 정강이뼈, 소금물, 달콤한 반죽(하로셋), 쓴 나물, 채소, 손 씻을 물과 예식서를 준비한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바치던 성전 제사를 대신해서 18개의 기도문을 하루 세 번씩 바치듯이, 유월절 식사(Pesach Seder)를 18단계로 진행한다. 이들 18개의 기도문과 18단계의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18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세 덩어리의 무교병, 네 잔의 포도주, 구운 계란, 양의 정강이뼈, 소금물, 하로셋 잼, 쓴나물, 채소, 손 씻을 물 및 예식서를 준비한다.

모두 히브리민족의 해방과 가나안땅회복에 관련되어있다. 노예와 떠돌이였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날의 영광을 회상하며, 고토를 잃고 노예와 떠돌이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구원과 가나안땅회복을 희망하는 축제이다.

18단계의 유월절 식사는 토라계명과 랍비들이 만든 유대전통으로 이뤄져있다. 무교병, 쓴 나물, 불에 구운 양고기 취식, 말씀선포는 토라계명에 따른 것이고, 소금물에 찍어 먹는 채소, 쓴 나물과 달콤한 하로셋 반죽을 넣어 만들어 먹는 무교병 샌드위치, 물을 희석한 넥 잔의 포도주, 쪄개 먹기 위한 무교병 세개, 두 번의 할렐(Hallel), 다수의 베라카 기도문, 두

번의 손 씻기, 예식서 등은 모두 후대에 추가된 전통들이다.

어린양의 희생과 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교병은 상황의 긴박함을, 소금물은 눈물과 땀과 흥해를, 쓴 나물은 노예생활의 비애와 슬픔을, 하로셋 반죽은 벽돌을 굽던 노예생활을, 넥 잔의 포도주는 성별하여 구원하고 구속하여 선민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출 6:6-7)을 상징한다. 이 가운데 주의 만찬의 모형은, 감사의 기도, 무교병 쪄개, 말씀선포, 구원의 상징인 어린양의 희생, 감사의 잔,

할렐(찬양)뿐이다.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에 대한 성별의 기도와 성별의 잔을 마심으로 시작되며, 유월절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선포와 첫번 할렐(시 113-14편)을 노래한 후에 선포의 잔을, 손을 씻고 먹는 본 식사 후에 감사의 잔을, 큰 할렐(시 115-18편 및 136편 후렴구) 후에 마시는 마지막 잔을 끝으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외치고 폐회한다. 유월절 식사 중에 여러 차례 기도문을 암송한다. 유월절 식사에서 무교병은 고난과 가난을 상징하지만, 주의 만찬에서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방인의 축제와 주의 만찬

바울은 10장에서 우상숭배와 제물을 먹는 행위를 재론하면서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하였고,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하였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15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이방종교인들의 제배장면

바울보다 100년쯤 후에 고린도를 다녀간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이야기>에 따르면, 고린도에는 아폴론, 옥타비아(초대 로마황제

의 누이), 제우스, 헤라, 튀케(운명의 여신), 포세이돈, 헤르메스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다. 또 아크로고린도 기슭에는 운명의 세 여신 파테스(Fates)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를 위한 사당들, 이집트 신들인 이시스와 세라피스를 위한

사당들이 있었고, 정상에는 6주식 아프로디테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였다. 따라서 고린도에는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파는 고기시장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신전들이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었고, 축제 때 음식을 제공하였다. 만일 어떤 성도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먹었거나 친구 집이나 세라피스의 식탁이나 다른 신들의 축제에 초대받고 가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했다면, 그는 십중팔구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믿어도 되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자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리며, 카샤룻(Kashrut) 법에 따라 정한(코쉬) 주방도구를 이용하여 정한 식재료만으로 요리하여 정한 그릇에 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

지 아니한 부정한(트레이프)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편향된 그리스도인들은 서슴없이 우상의 제물과 이교축제에 참여하는 쾌락주의에 편향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기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지만,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남의 양심을 괴롭히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강조하였다. 바울은 그 이유를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듯이, 신의가 갖든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행위이므로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우상들의 식탁에도 참여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14(고전 10:23-33)

우상이 된 자유

성서에서 '우상'이란 숭배의 대상이지만, '참'(眞)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것이 신(神)일수도 있고, 권력, 명예, 돈, 성(性), 자식 또는 자기(自己)일수도 있다.



호루스에게 젖을 먹이는 이시스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이시스 신자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성모 공경을 발전시켰다는 설이 있다.

성서에서 '우상'이란 '영원'(永遠)한 것, '무한'(無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이든 육이든, 이 생이든 저 생이든, 만들어진 것이면, 피조물이면 다 우상의 범주에 속한다. 그것이 천사나 마귀일수도 있고, 귀신

이나 인간일수도 있고, 동물이나 물건일수도 있다.

성서에서 '우상'이 아닌 '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외의 것들은 다 유한하고, 반드시 죽거나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들의 운명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성서에서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 한분뿐이고, 인간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따라서 인간의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자기 것으로 주장한 것들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 조차도 매

우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책임이 그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므로 자유가 우상이 되거나 방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개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소유권을 비롯해서 권력과 명예와 재산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 타인의 행복, 즉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오직 내게만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식이다. 내가 자살을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콩팥을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든 무슨 상관이라는 식이다. 내 몸의 결정권은 내가 가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낙오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능력위주의 자유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거의 모든 수단을 배제하는 권한축소지향 정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마저 상관없다는 무서운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고, 정부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이 경제의 효율성에 있지 않고, 인간의 자유 즉 기본권과 소유권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능력과 재능과 자유를 숭배하고 사유재산권을 엄격하게 주장하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행운이 정의라고 오해한다.

**THERE'S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신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라는
무신론자들의 권리와 성적 취향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성적 소수자들(LGBT)

이런 잘못된 자유지상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에서 철퇴를 내리고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한된 자유

사랑을 노래한 13장에서 보듯이, 바울은 참 자유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다. 바울은 3장에서 이미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사람(the spiritual), 쾌락과 전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탕주의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사람(the worldly)으로 규정하였다.

바울은 6장 12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절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바울은 9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랑의 법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고린도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고린도교회를 향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

하지 않고 포기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자신의 몸의 흔적이 바로 그 증거라는 점도 밝혔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몸의 흔적인 것과 같았다.

바울은 이곳 10장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권리행사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 내용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그리스

도인의 자유는 가속장치(엑셀러레이터)에, 큰 계명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은 제동장치(브레이크)에 해당된다. 바울은 25-30절에서 자유와 배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양심을 배려하여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다(25절).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었고, 그 소유권이, 제물이 바쳐진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6절).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이웃의 양심을 배려하여 묻지 말고 먹되(27절), 제물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려준 자를 배려하여 먹지 말라고 하였다(28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곧 신념이 이웃의 양심 곧 통념이나 상식에 의해서 비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29-30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하고(31절), 자신의 자유와 권리행사로 인해서 이웃과 성도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하며(32절),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33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과 성취를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야하며(33절), 자신만의 구원에 몰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33절).

세계관에서 본 자유

첫째,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주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보기에 좋았고 선하다. 세계는 거룩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이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사용하는 동기, 목적, 방법에 따라 그것들은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용자인 인간에게 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 테두리에서 자유를 쓰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사랑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의 일에, 예수님은 도움의 손을 내밀어 빛과 생명의 일에 자유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

히셨다가 그것들이다.

둘째, 고린도전서에는 모세의 율법에 편향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보기에 좋았다. 그러나 만물의 절반은 부정을 타고 난다. 그래서 만물은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으로 나뉜다. 율법과 규례에 따라 부정한 것을 엄금(嚴禁)하고, 정한 것만 먹고 사용한다. 율법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들과 교제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들이 부정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 카샤룻(Kashrut)에 따라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을 타면 규례에 따라 정결례를 행한다. 그러면 다시 정하게 된다가 그것들이다.

셋째, 고린도전서에는 쾌락주의에 편향된 영지주의 헬라인들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저급하고 악하다. 따라서 그것을 지은 창조자는 저급한 신(神)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체는 감옥이며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해도 된다. 하물며 어떻게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 무엇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자유지상주의). 불행은 숙명이며(스토아 철학), 쾌락은 최고의 선이다(에피쿠로스 철학). 불행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지배한다. 육체와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갈 지혜(열쇠, 암호)를 명상과 비전(秘典)을 통해서 찾는다가 그것들이다.

22.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고전 11:1-16)

유대인들의 복장



앗수르왕 살만에셀3세에게 터번을 쓴 이스라엘왕 예후와 그의 사절단이 앗수르 왕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주전 853년, 블뤽 오벨리스크)



앗수르왕 디글랏 빌레셀3세의 북왕국 이스라엘 침략 때 머리에 터번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주전 730년초, 왕하 15:29, 님루드 부조)

이 장면이 님루드의 블랙 오벨리스크에 부조되었고(주전 853년),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침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왕하 15:29) 장면이 님루드의 부조에 새겨져 있다. 이 부조들에서 터번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토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출 28:40) 각각 ‘미쯔네페트’(mitznefet)와 ‘미그바오트’(migbaoth)를 쓰라고 지시하지만, 평민에 대한 규정은 없다. 평민에게 터번은 사치품이었을 것이다.

유대인 여성의 너울착용은 시기적으로 남성의 터번착용시기보다

성서시대에 유대인들은 근동문화에 영향을 받아 터번과 너울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터번은 태양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베개와 포켓으로도 쓰였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예후와 그의 사절단이 앗수르 왕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님루드의 블랙 오벨리스크에 부조되었고(주전 853년),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침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왕하 15:29) 장면이 님루드의 부조에 새겨져 있다. 이 부조들에서 터번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훨씬 앞선 관행으로 여겨지며, 태양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용도 뿐 아니라, 정숙함과 정절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리브가, 다말, 술람미 여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젊은 여성들은 남성 앞에서 너울에 부착된 면사포로 얼굴을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기도회와 토라공부 때 경외심과 복종의 표시로 머리에 ‘키파’(kipa, 빵떡모자)를 쓰지만, 이 관행은 주후 5세기경 탈무드란 책이 쓰였을 때 시작되었다.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들은 항상 머리를 가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보수파는 기도회 때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키파를 쓰며, 개혁파는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탈리트’(Tallit, 보자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몸을 앞뒤로 흔든다. 탈리트 네 귀퉁이에 매단 긴 술은 ‘찌찌트’(tzitzit)라 불린다. 그들은 또 슈에마가 담긴 트필린(상자)을 이마와 팔에 끈으로 감아 붙들어 맨다. 탈리트에 찌찌트를 매달고, 트필린을 이마와 팔뚝에 붙들어 매다는 이유는 토라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울시대의 유대인 평민들은 터번을 쓰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너울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로마인들의 복장

고린도는 상업도시이자, 다인종사회였다. 수리아인, 이집트인, 동방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이 살았고, 군인, 평민, 빈민, 해방노예, 노예 등이 살았다. 인구 10여만 명 가운데 노예가 3분의 1을



고대 헬라인들의 복장과 헤어패션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다양했지만, 너울처럼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의 여성사제들, 불의 여신 베스타의 동정녀사제들, 델포이 신전의 제니, 로마사제들과 최고신관이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한테서만 볼 수 있었다.

뿐이다. 아무튼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과 신분 또 수많은 우상들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관습과 다양한 의복패션과 헤어스타일이 공존했다.

그리스-로마인들은 대체로 아무 것도 쓰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 헤어밴드나 머리끈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린도의 전통적 관습이 공적으로 머리를 덮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너울을 쓰지 않는 귀족여성들의 유행을

차지했기 때문에 근성, 도덕성, 윤리성이 낮은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인들 모두가 터번을 썼거나 너울을 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리아인, 이집트인, 동방인, 유대인들은 터번을 쓰거나 너울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스-로마인들은 혼례식을 치르는 신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와 여성사제들, 델포이 신전의 제니, 불의 여신 베스타의 동정녀사제들, 로마사제들과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쥔 여사제가 술에 취해 광한(헤트빙빙)하는 모습 (주후 120-140년, 로마시대의 부조: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주의 만찬을 격식을 갖추어 시행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충고한 것이라는 주장과 유대인 여성의 너울착용 관습을 고린도교회에 이식시키려했다고 주장도 있다.

바울 당시 그리스-로마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특별히 언급한 행위는 기도, 예언, 주의 만찬의 격식이었다. 바울시대에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성사제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해 예배자들과 함께 머리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 광적이고 음란한 춤을 추었다. 바울이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격식을 갖춰 시행할 것을 권면한 이유를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장

기독교인 여성들이 사용하는 너울들(kalumma)



아미쉬 가톨릭수녀 가톨릭 동방정교수녀



동방정교 후터교 퀘이커교 메노나이트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미쁘네페트와 제사장들이 미그바오트를 쓴 목적과 탈무드시대 이후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들이 키파를 쓴 목적은 전혀 달랐다. 제사장들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출 28:40) 썼고, 상류층의 남

성들도 같은 목적으로 터번을 썼다. 따라서 바울시대의 유대인들 중에는 제사장이나 상류층만이 터번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외심과 복종의 표시로 키파를 쓰는 관행은 주후 5세기경에 시작되었으므로 바울시대인 1세기에는 키파를 쓴 유대인들이 없었다. 키파를 쓰는 목적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는 인식,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 신앙양심을 발동케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키파착용에서 보듯이, 너울착용은 권위

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시였다.

유대교의 사제들이 터번을, 로마사제들과 최고 신관이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너울을 썼던 것에서 보듯이 바울시대에 일부 종파의 남성사제들은 공적 예배 때 터번이나 너울을 썼다. 반면에 바울은 남성에게 머리를 덮지 말라고 함으로써 기독교예배를 차별화했다. 또 아스다롯,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의 여성 사제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자들과 더불어 광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행한 것에 반해서 바울은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성들에게 너울로 머리를 덮어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과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격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기독교예배를 차별화했다.

타종교인 여성들이 사용하는 너울들(kalumma)



추정이지만, 3-10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한 말씀이고, 11-16절은 여성들에게 회당의 성소출입을 금한 유대사회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긴 그리스-로마사회의 관습을 월등히 뛰어넘는 평등의 복음으로 여겨진다. 교회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이고, 성도들은 지체들이다. 지체들은 동등하지만, 기능과 역할에서 다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나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 여자도 남자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평등한 존재이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이브가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우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장 늦게 창조된 인간은 먼저 만들어진 만물보다 열등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 동생처럼 질서와 기능면에서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주를 상징한 성전의 모든 담과 문들, 곧 민족의 담(미문), 성별의 담(니카노르 문), 신분의 담(성소 문), 계급의 담(지성소 휘장)을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종족 수만큼이나 각기 다른 의복패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머리를 덮어야 할 이유가 더 이상은 없다.

〈의복과 머리 패션은 문화에 속한 유행일 뿐이고 비본질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진실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미더운 것, 가장 사랑스런 것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진실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미더운 것, 가장 사랑스런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미덥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3.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고전 11:17-34)

유대교속제와 주의 만찬

유대인들의 회당기도회는 주전 586년 바벨론 유배 때 제사예배가 끊긴 이후에 생겼다. 예루살렘성전만이 합법적이라 믿었기 때문에 유배지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성경읽기, 설교, 기도문 낭송이 포함된 기도회를 발전시켰다. 회당은 주전 516년 예루살렘성전재건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교육, 판결, 기도회 장소로 발전되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다. 오늘날의 유대교는 성전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랍비들이 토라의 613개 계명들을 보강하는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제정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유대교인들이 하루 세 번 모이는 기도회 때 빠뜨리지 않고 바치는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18(19)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하루 세 번 바치던 성전 제사를 대치한 것이다.

한편 주후 30-70년 사이의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므로, 회당기도회의 대부분, 즉 성경읽기, 설교, 기도문 낭송, 헌금 등을 기독교예배에 전용하였으나 쉘모네 에스

암포라 (Amphorae)

좌측의 끝이 뾰족한 통기들은 화물(올리브유, 포도주, 곡물) 수송용이다. 크기가 일정한 것은 담긴 용량(예: 25.5리터)을 재기 위한 것이다. 많은 내용에 따라 통기 모양이 다를 수 있으며, 손잡이와 뾰족한 끝을 이용하여 나무틀에 고정시켰다. 목이 길고 몸통이 가늘은 이유는 액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우측의 항아리는 가정에서 썼던 저장용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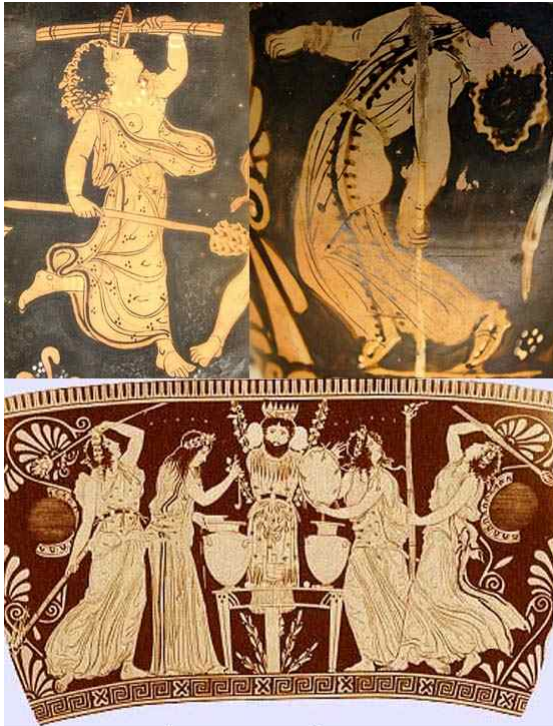
레이를 주기도문으로 바꿨고, 성전제사를 주의 만찬으로 대신하였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구성된 회당기도회가 기독교예배에서는 1부 말씀예배와 2부 주의 만찬예배로 바꿨다.

주의 만찬은 18단계로 진행되는 유월절 식사와 무관하지 않다. 유월절 식사는 노예와 떠돌이였던 히브리민족에게 해방과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때의 영광을 회상하며, 고토를 잃고 노예와 떠돌이가 된 민족의 해방과 가나안땅회복을 기원하는 식사이다. 이 식사를 위해 오늘의 유대인들은 상황의 긴박함을 상징하는 세 개의 무교병을, 성별하여 구원하고 구속하여 선민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출 6:6-7)을 상징하여 물을 희석한 닉 잔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여 양의 정강이뼈를, 눈물과 땀과 흥해를 상징하여 소금물을, 벽돌을 굽던 노예생활을 상징하는 달콤한 반죽(하로셋)을, 노예생활의 비애와 슬픔을 상징하는 쓴 나물과 채소를, 구운 계란과 손 씻을 물과 예식서를 준비한다.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에 대한 성별의 기도와 성별의 잔을 마침으로 시작되며, 유월절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선포와 첫 번 할렐(시 113-14편)을 노래한 후에 선포의 잔을, 손을 씻고 먹는 본 식사 후에 감사의 잔을, 큰 할렐(시 115-18편 및 136편 후렴구) 후에 마시는 마지막 잔을 끝으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외치고 폐회한다. 유월절 식사 중에 여러 차례 기도문을 암송한다. 여기서 주의 만찬의 모형은, 성별 또는 감사기도, 무교병 쪼갬, 말씀선포, 양의 희생, 감사의 잔, 할렐(찬양)뿐이다. 주의 만찬에서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교축제와 주의 만찬

바울시대에 고린도에는 아폴론, 옥타비아(초대 로마황제의 누이), 제우스, 헤라, 튀케(운명의 여신), 포세이돈, 헤르메스 신전들이 있었고, 심지어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다. 이밖에도 아크로고린도 기슭에 이시스와 세라피스, 파테스(Fates), 데메테르 등의 사당들이 있었고,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이 많은 신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 때 여성사제들이 광란(케트빙잉)하는 모습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주의 만찬을 질서를 갖춰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전들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만찬에 참여하는 일은 고린도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다.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은 이 같은 이교문화와 축제에 젖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흐려놓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성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지시한 것도 이 교축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스다못,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축제 때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먹고 취하여 너울을 쓰지 아니한 여성사제들과 더불어 광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자칫 주의 만찬이 이교축제에 젖어 살던 교인들에 의해서 변질될 위험이 있었다. 바울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성들에게 너울로 머리를 덮어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질서를 갖춰하라고 권면한 것은 주의 만찬을 이교축제와 엄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미 10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축제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면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축제에 참여하여 먹고 마신 자들이 멸망하여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들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우상의 만찬에 참여하여 쾌락에 빠지는 행위가 과연 옳은지

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바울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듯이, 신의가 깃든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행위이므로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우상들의 식탁에도 참여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위험한 행동들 때문에 바울은 17-19절에서 고린도교회가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며 바른 길에 서있는 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견책하여 교회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기대하였다.

기독교축제로서의 주의 만찬



골라 물을 희석하던 큰 대접(krater, 고린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주의 만찬이지만, 유교대축제와 이교축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인종들로 구성된 고린도교인들은 대다수가 주의 만찬을, 주후 168

년에 순교한 저스틴이 150년경에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쓴 〈변증서〉에 쓴 것처럼, “보통의 흠 없는 식사”로 여겼을 것이다. 이를 애찬이라고 불렀는데, 성도들이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주일 저녁에 집회소로 가져와 함께 나눠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눴다. 이때는 일요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는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노예들도 있었으므로 1부 말씀예배는 주일 새벽에 이뤄졌다. 새벽예배 후 흩어졌다가 2부 주의 만찬예배를 위해서 저녁에 다시 모였다.

고린도교회의 문제점은 주일 저녁 주의 만찬예배 때 성도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나 가난하여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데에 있다. 21절에 언급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취한 사람들

은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었을 것이다. 넉넉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22절의 말씀
 처럼,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었
 다. 음식준비는 고사하고, 온 종일



술잔(kylix, 그리스)

노동에 시달리며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교회로 달
 려온 가난한 신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남겨진 음식이 없는 것과 풍
 족한 음식을 싸들고 이른 시간에 교회로 달려와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비애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23-34절은 주의 만찬의 제정사이다. 이 제정사는 최초의 것이자
 가장 원시적인 행태로써 안디옥교회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애찬을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주의 만찬으로 발전시키는데 토대가 된 말
 씬이다. 바울은 이 제정사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2부 주의 만찬예배의 틀이 만들어졌다: (1)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16:20-24), (2)봉헌(“떡을 가지사”), (3)성만
 찬 설교(“가라사대”), (4)성만찬 기도(“축사하시고”, 10:16), (5)주
 의 기도(마 6:9-13), (6)성만찬예배의 초대(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7)분
 병례와 참여(“떼어 주시며”), (8)축도(16:23-24: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애찬이 주의 만찬으로 발전되면서 무교병과 물을 희석한 포도주
 를 썼다. 포도주에 물을 희석해서 마시는 습관은 지중해연안세계의
 관습이었다. 순교자 저스틴도 주의 만찬 때 포도주에 물을 희석한
 다는 점을 밝혔고, 이 관행은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에게도 적절하
 였다.

24.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3(고전 12:1-3)

바울의 손 내밀기



페이레네(Peirene) 샘. 이 근처에 고린도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이에 바울은 지체 없이 서신을 보내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였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에 포함된다. 이때는 아직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정립되어있지 않았다. 고린도전서에서 다뤄진 문제들은 시기와 분쟁, 지혜와 능력, 신비 혹은 비밀, 영적 성숙과 미성숙, 우상숭배와 음행, 송사, 자유와 절제, 독신과 금욕, 결혼과 이혼 또는 재혼, 우상의 제물, 이교축제와 주의 만찬, 타고난 은사와 신령한 은사, 사랑, 부활과 승천이며, 그리스-로마사회의 종교문화와 관습, 신화와 철학에 얽힌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든 일, 곧 유대교를 비롯한 타종교들과 차별화하는데 공헌하였다. 영국 사학자들인 깁본(Edward Gibbon)과 도즈(Eric R. Dodds)는 초기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과 평등주의가 있다고 하였다.

당대의 그리스-로마사회의 문화와 관습은 신화에 기초한 종교와

바울은 주후 50년대 초반에 고린도교회를 개척하여 성별된 공동체로 세우고 1년 반 동안 밤낮 없이 섬겼다. 50년대 중반에 에베소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던 중에 고린도교회를

철학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받아들였고, 신전이나 사당에 모셔져 예배를 받았던 신들도 수없이 많았다. 또 각 신전과 사당들에서는 매년 수차례씩 축제가 열렸다. 이들 축제들은 대개가 우상 숭배와 음복과 음행이 수반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또 플라톤의 이데아론(동굴의 비유), 스토아철학의 숙명론과 금욕주의, 에피쿠로스철학의 쾌락주의에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포장도로
에라스도는 이 포장도로의 비용을 기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서신에 2회, 사도행전에 1회 동역자로 언급되었다.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도전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였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구약시대에도 능력 행함과 여러 은사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삼손과 같은 사사들은 히브리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모세시대의 70인 장로와 유사들(민 11장), 사무엘의 선지생도들, 사울 왕, 심지어 바알선지자 발람조차도 예언과 방언을 하였다(민 22-24장, 삼상 19:18-24). 오순절 성령강림직전시대인 예수님 때

에도 신유, 예언, 방언, 귀신축출과 같은 신령한 은사가 있었고, 제자들도 이 같은 체험들을 하였다. 다만 이 같은 은사들은 대부분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 외적으로 증거적으로 공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가장 많은 옛세네파 문서들이 발견된 제4쿰란동굴 모습과 문서들을 항아리에 넣어 쿰란계곡 11개 동굴에 숨겼던 모습. 제4동굴에서 발견된 공동체 규칙서와 이사야서 두루마리. 서 '사해 두루마리'로 명명된 구약성서와 쿰란 공동체의 문서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주후 66-73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로마전쟁 때 거주지가 폐허로 변하기 직전에 옛세네파인들이 후일을 기약하며 사용하던 문서들을 항아리들에 넣어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계곡 동굴들에 숨겨놓았지만, 그로부터 1878년간 고토는 회복되지 않았고, 숨겨진 책들도 그 긴 세월동안 바짝 마른 상태로 동굴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옛세네파는 결혼을 피하고 금욕을 실천한 공산주의적 공동체였다. 옛세네파는 토라연구와 필사에 힘을 쏟았으나 예루살렘 성전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3년의 수습기간을 통과하고 비밀유지에 서약한 사람만이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천사를 숭배하는 비밀의식이 있었고, 별점도 쳤다. 옛세네파의 신비주의는 바리새인들의 귀신축출의식(마 12:27)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예수님 당시 옛세네파라 불린 유대교 종파가 있었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전 1세기경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사해 근처 쿰란 폐허(Khirbet Qumran)에서 4천 명가량이 모여 살았다. 그들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47년부터 쿰란 계곡의 11개 동굴에서

다. 또 랍비문헌에 옛세네파가 간헐적으로 언급된 것을 보아 중세기에 발전된 카발라(Kabbalah)라 불리는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옛세네파와 같은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교의 신비주의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던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푸티아 좌우측 그림은 푸티아가 손에 성수접시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세 다리 의자에 앉아 아디톤(adyton) 성소 바닥의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에틸렌 가스에 취해(푸톤영에 접신하여) 신탁을 전하는 장면이다. 중앙의 그림은 왕범 푸톤의 부인이었던 푸티아가 푸톤영에 접신한 모습이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델포이와 에피다우로스는 뱀과 연관된 신비주의, 곧 예언과 병 고침이 성행한 이교의 본산지들이었다.

에피다우로스에는 아폴로니오스가 낳은 아들이자, 아버지 아폴론으로부터 의술을 물려받은 아스클레피오스와 그의 딸 히기에이아(Hygia, 위생)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다. 이 신전에 하루만 머물러도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몰려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들, 즉 신전들, 사당들, 여관들, 운동경기장, 대중탕, 극장 등이 있었다. 극장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또 델포이(Delphi)에서는 여사제 푸티아가 손에 성수가 담긴 접시와 올리브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세 다리 의자(Tripous)에 앉아 아디톤(adyton) 성소 바닥의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에틸렌 가스

에 취해(퓌톤 영에 접신하여) 신탁을 전하였다. 신화에 따르면, 퓌티아는 왕뱀 퓌톤의 부인이었으나 아폴론이 퓌톤을 활을 쏘 죽이고 퓌티아를 제니로 만들어 자신이 맡겨놓은 뜻(신탁, Oracle) 곧 인간들의 운명을 방언을 통해서 예언토록 하였다. 접신한 퓌티아가 무아지경에서 지껄이는 방언을 옆에 선 시인이나 제사장이 통역하여 신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하였다.

플라톤은 저서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신들림을 ‘신성한 광기’라고 부르면서 예언적 광기가 아폴론에게서 온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비의(秘儀)적 광기는 디오니소스, 시적 광기는 뮤즈, 사랑의 광기는 에로스에게서 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광기는 신의 영감 혹은 신의 선물 곧 은사를 뜻한다. 델포이는 이 예언적 광기가 충만한 대표적 신탁소여서 퓌티아의 예언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곤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광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바울은 1절에서 진짜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2절에서는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 델포이 신전의 퓌티아(Pythia)의 광기나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사제(Maenad)들의 광기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 의한 거짓 것됨을 암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광기가 접신을 시도하는 박수나 무녀들뿐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어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광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잣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이라고 말한 것이다.

25. 하나님께의 교회의 공적 예배(고전 12:4-31)

신성한 광기

고린도교회에 각종 은사를 자랑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래 유대인들은 육체(soma)와 영혼(pneuma)을 별도로 보기보다는 한 몸(psyche)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율법의 형식을 중시하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로마의 종교문화와 관습에 젖어 있던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들의 종교문화에는 광기가 있었다. 델포이 신전의 피티아(Pythia)와 디오니소스 여사제들(Maenad)이 제의참석자들과 펼친 광기는 굉장하였다.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뮤즈들(2세기 로마석판, 루브르)

왼쪽부터 칼리오페(서사시), 탈리아(희극), 테르프시코레(춤), 에우테르페(악기), 멜포메네(비극), 클리오(역사), 에라토(서정시), 우라니아(천문), 폴리힘니아(찬가).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광주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바울은 1절에서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어 했고, 2절에서는 그리스-로마인들이 믿는 신들은 다 “말 못하는 우상들”일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유일신 창조

주, 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붙들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잣대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였다. 그 숫자가 3만이 넘는다고 하니, 명사란 명사는 다 신들의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신들은 이름에 맞는 특기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아테나는 지혜의 말씀에, 헤르메스는 지식의 말씀에, 피스티스는 믿음에, 아스클레피오스는 병 고침에, 아레테는 능력 행함에, 아폴론과 퀴톤은 예언과 각종 방언에, 뮤즈들은 방언통역에 특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특기,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얻고자 한다면, 예언의 신인 아폴론이나 퀴톤에 점신하여 신들려야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을 받았느냐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를 말해주었던 것이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신들림 현상을 ‘신성한 광기’(divine madness)라고 불렀다. 그들은 델포이 신전 푸티아가 갖춘 예언능력을 아폴론에 의한 광기로, 디오니소스 예배 때 여사제들과 억눌려 살던 여성들과 하층계급의 예배자들이 펼친 광란을 디오니소스에 의한 광기로, 사랑의 열정을 에로스에 의한 광기로, 시, 문학, 희극, 무용, 성악, 역사, 점성술까지도 뮤즈들에 의한 학문과 예술적 광기로 보았다.

광기와 은사의 차이

광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포우시아스모스’(enthousiasmos)로써 문자적으로 ‘신들림’(en+theos)이란 뜻이다. 영어의 ‘enthusiasm’(열광)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인간들이 갖는 특기들을 신성한 광기 즉 신들림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반면에 바울은 이 같은 특기들을 헬라어로 ‘카리스마타’(charismata)라고 불렀다. 이 말은 ‘은사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란 뜻이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광기와 바울의 은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광기는 “말 못하는 우상들”이 주는 가짜인 반면



수금(Lyre)과 플룻(Aulos) 연주

에 은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한다. 둘째, 각각의 광기는 그 특기를 갖고 있는 우상에 접신하여 신들렸을 때 오는 것이지만, 은사는 접신이나 신들림이 필요 없다. 은사는 성령님의 감화와 영감에 의한 것이다. 셋째, 광기는 소수의 신들린 자들에게 주어지지만,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11절). 넷째, 광기와 은사는 그 목적이 크게 다르다. 은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며, 성도와 교회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덕을 세우고 이익을 끼치게 한다(3절). 그러나 광기는 신이 신 되게 하거나 공동체를 섬기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디오니소스가 주는 광기는 제의참여자에게 해방감 도취감 황홀감을 맛보게 하였다. 제의 때 참여자들은 술에 만취하여 광란(헤드뱅잉)함으로써 마음속의 응어리를 토해내고 씻어냈다.

바울은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플라톤과는 차별적으로 모든 은사가 한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직분은 한 주님에 의해서 모든 사역은 한 하나님에 의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4-6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한 말씀이다. 이 “같다”는 말씀은 11절의 “한 성령이 행하사”에서 보듯이 이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은사들이든, 직분들이든, 사역들이든 그것들의

목적은 개인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교회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필요한 특기들을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

바울은 4-6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한 말씀은 은사담당, 직분담당, 사역담당 하나님이 각기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은사가 신령하다는 점 때문에 수사적으로 성령님을 은사에 붙여 말씀하신 것이고, 직분이 그리스도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란 점 때문에 수사적으로 그리스도님을 직분에 붙여 말씀하신 것이며,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란 점 때문에 수사적으로 하나님을 사역에 붙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직분은 다양하지만, 다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사역은 다양하지만,

다 한 하나님의 일이란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도 많은 구성원들로 이뤄진다. 바울은 이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였다. 이들 구성원은 민족성별신분색깔에 상관없이 “다 한



플룻(Aulos) 연주와 쓰기 수업



수금(Lyre) 연주와 시 수업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들이 된 성도들이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자들이다(13절).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모두 다 한 성령님의 회심사역 안에서 침례를 받고, 같은 성령님을 받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제각기 다 다른데,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몸이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롬 12:3) 교회를 섬기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일관하며, 자기 위치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을 섬겼던 그리스-로마인들조차도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약성서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은총을 입었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신화에서도 벨레로폰이 두 개의 신전으로 갈라지는 길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 신전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을 것인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테나 신전으로 향했고, 그의 행위를 어여삐 여긴 아테나로부터 황금고삐를 선물 받고 천마(天馬) 페가수스를 부려 괴물 키마이를 물리친 영웅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교도들조차 어떤 신에 점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을, 그것이 직분이든 신령한 것이든, 그것이 큰 사역을 위한 것이든 작은 사역을 위한 것이든, 잘 활용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겨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신실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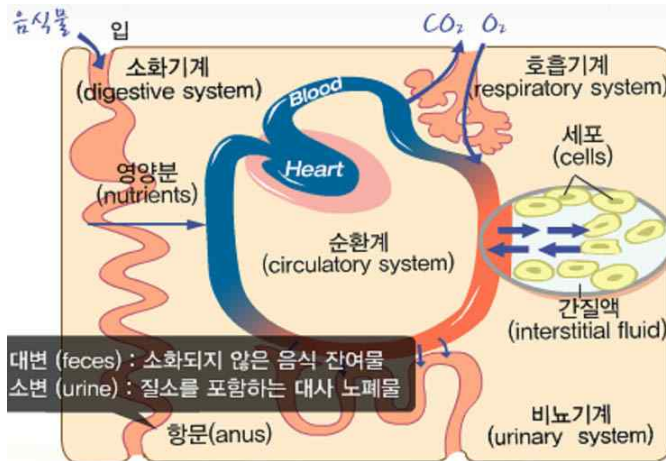
26.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5(고전 13:1-13)

몸과 지체들의 상호작용

사람의 몸은 약 70조개에 달하는 살아 있는 세포와 세포외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과 기관과 기관계로 조직되어 있다. 몸에는 머리, 가슴, 배, 손과 발이 있고, 몸의 뼈대를 근육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겉을 피부가 덮고 있다. 또 뼈는 머리, 척추, 흉곽, 골반, 사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유지를 위한 몸의 작용에는 크게 8가지가 있다. 경계유지, 움직임, 반응, 소화, 대사, 배설, 생식, 성장이 그것들이다. 건강유지를 위한 몸의 기관계에는 11가지가 있다. 피부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림프계와 면역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계가 그것들이다.

몸의 각 기관들은 생명유지와 건강유지라는 두 가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긴밀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기관계를 유기체라고 부른다. 소화기계통과 호흡기계통은 음식물과 산소를 각각 섭취하고, 이들은 혈액에 의해서 모든 체세포에 분배된다. 대사 노폐물 배설의 경우, 소변은 비뇨기계, 대변은 소화기계, 이



를 각각 섭취하고, 이들은 혈액에 의해서 모든 체세포에 분배된다. 대사 노폐물 배설의 경우, 소변은 비뇨기계, 대변은 소화기계, 이

생명유지를 위한 기관계의 상호작용

산화탄소는 호흡기계에 의해서 배출된다.

사람의 몸은 그 어떤 정밀한 기계도 비교의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이 몸을 구성하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는 수많은 조직들에서 어느 것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몸 상태가 건강하여 활력이 넘치려면, 몸을 구성하는 이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상호작용해야 된다. 지체는 개별적이지만 몸 전체에 부속된 유기체이다. 지체는 개별적이지만, 몸 전체를 위해서 기능한다. 지체는 개별적이지만, 다른 지체들과 상호작용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는 지체들이다. 성도는 개별적이지만 교회공동체에 소속된 유기체이다. 성도는 개별적이지만, 교회공동체를 위해서 기능한다. 성도는 개별적이지만, 다른 성도들과 상호작용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와 성도들과의 관계이다. 교회의 은사들과 직분들은 몸의 생명유지와 건강유지라는 두 가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긴밀하게 작용하는 기관계와 같다. 은사들과 직분들에 계급이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교회와 성도상호간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다.

아가페(Agape)와 에로스(Eros)의 차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높낮이와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



그리스도인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애찬(agape feast)에 참여한 모습
(성 칼리스토 카타콤, 2-3세기, 로마)

울이 “더욱 큰 은사”(12:31)로써 아가페 사랑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몸에 필요한 산소와 같기 때문이다.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는 음식물과 산소 두 가지가 있다. 교회공동체에 필요한 음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만찬이고, 산소는 사랑이다. 음식물과 산소가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피를 만들어 심장박동과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만찬과 사랑은 교회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는 양식이자 산소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임을 분명히 밝혔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천명하였다.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교회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음식물이고, 주의 만찬은 이 음식물의 물질적 표현이다.

몸의 지체들이 생명유지와 건강유지라는 두 가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도 사랑 안에서 상호작용한다. 사랑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윤리의 규범이다. 다른 은사들과 직분들과 사역들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들이 옳고 바르게 작용하는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나누는 주의 만찬과 애찬, 사랑으로 작용하는 은사들과 직분들과 사역들이 진정으로 교회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에로스에 의한 사랑을 가장 고귀한 형태의 광기로 칭송하였다. 또 플라톤은 〈향연〉(Symposion)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에로스는 처음에는 육체의 미, 다음



사랑의 신 에로스
(수전 340-320년, 율터스 예술관, 볼티모어)
젊은 에로스가 기둥 제단에 화관을 바치고 있다.

에는 정신의 미, 그리고 최후에는 미 자체의 세계로 사람들을 높여 불사(不死)하는 보물을 얻게 하는 조력자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사랑의 광기를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이데아세계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의 에로스가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하는 치사랑이었다면, 바울이 강조한 아가페 사랑은 완전에서 불완전을 향하는 내리사랑이다. 아가페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단어였으나 주전 2세기경부터 헬라어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쓰였다.

아가페 사랑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미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사람, 쾌락과 전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탕주의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13장 1-3절에서 강조된 부정적 과정법, “만일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최고조에 이른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구제와 봉사도, 요란한 타악기소리에 불과한,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바울은 진실로 신령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였다. 아가페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님께서 솔선수범하신 사랑, 바울이 솔선수범한 사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엡 5:1),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빌 2:5), “나를 본받으라”(빌 3:17)고 권했던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몸에 생긴 채찍자국,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말한다. 비슷한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 생긴 흉터들을 말한다.

세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신 흔적이다. 완전

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부족하여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만들어 굳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몸의 흔적이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의 몸의 흔적도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사도의 흔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4-13절에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고린도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거울
겉면에 거리를 땅고 있는 여인들과 그들을 보고 있는 남성이 부조되었다.

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

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27.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언(고전 14:1)

이교들의 예언

만일 예언이 점과 동일하고, 예언과 점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예정된 운명이 있어야 된다. 만일 예정된 운명이 없다면, 예언과 점은 예견이나 선견에 불과하게 된다.

운명론을 주장한 스토아철학이 주전 2세기부터 주후 2세기경까지 그리스-로마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의 사람들은 예언을 받거나 점을 쳐서 운명을 알고자 했고,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노력해서 바뀔 운명이면, 혹은 예언자나 점쟁이가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비법을 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운명이 아닌 게 된다. 정말로 예정된 운명이라면, 그것을 알아내고, 피하려는 행동조차 운명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반드시 예정대로 성취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나 점쟁이의 신통력이란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예언과 신탁은 교훈적일뿐,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하였다.



칼카스(calchas)
그는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점을 쳤다. 그리스 군대를 위해 트로이 전투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던 자였다.

테이레시아스(Tiresias)
맹인이었던 그는 새소리를 듣고 점을 쳤다. 육신의 눈 대신 마음의 눈을 가졌던 자였다.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맹인이었던 테이레시아스는 새소리를 듣고, 칼카스는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한다. 칼카스는 트로이에 원정한 그리스군의 예언자로서 트로이전

쟁이 10년간 지속된다는 것, 그리스군의 승리에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목마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인물이었다. 테이레시아스는 신(아테나 혹은 헤라)으로부터 육신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의 눈을 얻은 자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서 “신들은 앞문을 닫을 때 반드시 뒷문을 여신다.”는 격언이 생겼다. 테이레시아스는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 오이디푸스에게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것, 암피트리온에게 알크메네의 연인이 제우스라는 것을 알려준 자였다.



도도나(Dodona)의 제우스 신전소와 떡갈나무

바울 당시 이름을 날린 신탁소들에 델포이, 도도나, 암몬(아몬) 등이 있었다. 델포이의 아폴론신전소의 피티아는 에틸렌 가스에 취해 신탁을 전했고, 도도나(Dodona)의 제우스신전소의 무당은 떡갈나무잎사귀 소리를 듣고

신탁을 전했다. 무당들의 예언은 애매모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델포이의 피티아는 알렉산더에게 푸념조로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군요.”라고 했고,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를 공격해도 좋겠는가라고 묻는 소아시아지역 리디아왕국의 크로이소스 왕에게 “페르시아로 진격한다면, 강력한 대국 하나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이 애매모호한 신탁의 해석은 전적으로 신탁을 청하는 자들의 몫이었다. 피티아의 푸념을 신탁으로 받아드린 알렉산더는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고, 신탁을 페르시아에게 이긴다는 뜻으로 해석한 크로이소스는 전쟁에 패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켰다.

구약성서의 역사관

구약성서의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의 활동내용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었다. 이 두 운동의 근거는 하나님과 히브리민족사이의 언약

이었고, 그 내용이 토라(모세오경)이고, 토라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토라는 총 613개로써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할 4개의 계명과 이웃에게 지켜야할 6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라 이외의 나머지 구약성서들은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는데, 성문서는 예배와 전도문서이고, 역사서와 예언서는 두 가지 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토라에 근거하여 성찰한 영감의 글들이다.

역사서들은 두 가지 역사관으로 대별된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역사관을,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역사관을 갖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들은 사사시대로부터 바벨론에 유배될 때까지의 기록이다. 이들 역사서들은 히브리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면 이웃 민족들로부터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연속을 기록하고 있다. 언약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은 흥성(興盛)했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쇠망(衰亡)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신명기 역사서들의 핵심과 재앙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회개와 구원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들은 주전 538년 고국에 돌아오기 시작한 때로부터 432년까지의 유대왕국의 복구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서 복구란 예루살렘성전 재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축수는 물론이고 신앙개혁과 유대민족의 정체성까지 다 포함한다. 유대인들이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각각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손들이 최초 유배 후 67년, 148년, 173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 즉 페르시아 제국의 한 도로 편입되어 있던 유다도의 상황은 야훼신앙과 혈통이 혼합되어있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기들은 민족의 살길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민족의 순수성에 있다고 믿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십일조와 성전세를 바치며,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이방신들을 멀리하며, 절기들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옛 다윗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

고 믿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 민족의 순수성과 야훼신앙을 토라대로 회복하는 것만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유배되는 재앙을 피하는 길이며,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가 와서 옛 다윗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길임을 선포하였다.

성서에서의 예언

성서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의 예언자들과 신탁소의 무당들처럼 앞날에 대해 점을 치지 않았다. 그들의 예언활동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떠나 재앙을 당하는 백성에게 회개운동을 펼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회복운동을 펼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은 이 회복운동에 포함된 것이었다.

성서의 관심은 온통 가나안땅에 집중되어 있다. 구약은 지상의 가나안땅, 신약은 천상의 가나안땅에 관한 말씀이다. 예언의 내용은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약속받았거나 확보한 땅을 빼앗겼을 때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회복의 조건은 회개이고, 궁극적인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완성된다는 내용이다. 땅은 희망(Ha-Tikvah)이었고, 다가올 세상(Olam Ha-Ba)이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가운데 이사야(Yesayahu, 야훼는 구원이시



맨몸과 맨발의 예언자 이사야 (J. 레슈트, 18세기, 아미앵 대성당) 북왕국멸망(722BC) 전후에 활동하였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미켈란젤로, 1512년, 바티칸 시스티나 채플) 남왕국멸망(586BC) 당시에 활동하였다.

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앗시리아에 멸망당한 주전 722년을 전후로 절반씩 40년간 활동하였다. 그에게 두 아

들이 있었는데 ‘마헬살랄하스바스’와 ‘스알야습’이 그들이다. ‘마헬살랄하스바스’는 ‘노락이 신속함’이란 뜻으로 회개운동에 관련된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타민족의 침략을 받게 하여 유배를 보내시겠다는 뜻이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란 뜻으로 회복운동에 관련된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받게 하신 후에 유배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기회가 회개한 자들(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란 뜻이다.

예레미야(Yirmeyahu: 야훼께서 해방하신다 혹은 높이신다)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주전 586년 무렵까지 활동하였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듯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기”(렘 11:10)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31:31-33).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도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3:2)였다. 교회시대의 문을 개방한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행 2:38)였다.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구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보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신령한 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말씀 선포)을 하려고 하라”고 권하였다.

28.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배(고전 14:2-40)

신령함의 척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함의 척도는 세움(살림)이다. 생명과 질서가 신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신령한 은사는 아가페 사랑이다. 바울이, 만일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최고조에 이른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구제와 봉사도, 요란한 타악기소리에 불과한,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포한 것은, 세움(살림)이 없는 것의 무익함을 지적한 것이다. 예언이 방언보다 신령한 이유는 예언이 앞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세움과 권면과 위로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계시)과 말씀을 쉽고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여기서 유익이란 성도들의 신앙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



좌: 에트루리아인 문밖의 문에 그려진 피리(aulos) 연주자(주전 5세기경, 이탈리아 타르퀴니아 고분군).

중: 항아리에 그려진 아폴론과 그의 거문고(kithara)(주전 5세기경, 만해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우: 나팔(salpinx)을 불고 있는 군인(주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의 항아리)

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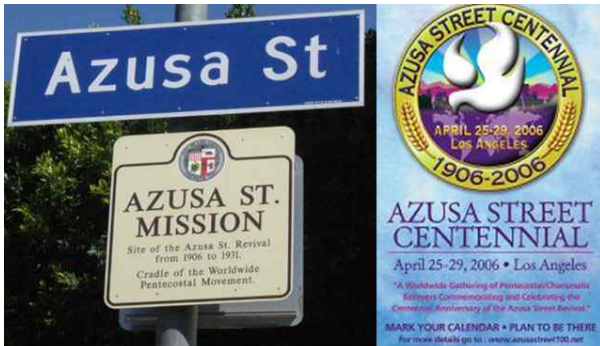
반면에 방언은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세움과 권면과 위로가 되지 못한다. 바울이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지만, 14절에서는 방언기도는 마음(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의 영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적 예배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권하였고, 19절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당대의 신탁소들에서 무당들의 방언을 사제나 시인이 곁에 서서 듣고 통역해서 신의 뜻을 전달해주듯이 통역을 세우지 않고 하는 방언은 곡조가 없는 피리(aulos)나 거문고(kithara) 소리와 같고, 신호가 명확치 않은 나팔(salpinx) 소리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사적인 경우에는 15절에서 마음(생각)으로 하는 기도뿐 아니라, 영혼이 하는 기도를 허용하였고, 또 마음(생각)으로 하는 찬송뿐 아니라, 영혼이 하는 찬송을 허용하였다.

20절 방언운동의 뿌리

바울은 22절에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바울은 예언이 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계시)과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방언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하심에는 반드시 목격자들로부터 놀람과 표적이 뒤따른다. 놀람은 능력이 나타난 결과이고, 표적은 목적이다. 예를 들어, 모세나 선지자들 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군들로서 하나님의 뜻(계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예언(말씀)은 듣는 자들한테서 회개와 회복(희망)이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인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

을 피하고 예언하기를 힘써야한다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은 잊힌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다. 기독교의 주류신학에서는 신령한 은사들이 기독교 창립과 신약 성서 27권의 완성으로 그 사명이 끝났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비주류신학으로써 가끔씩 오순절 성령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으나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되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곤 하였다.



오늘날의 오순절 방언(성령)운동은 1905년에 침례교회에서 나온 소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로스앤젤레스 브레아 거리(Bonnie Brea Street)에 ‘사도 믿음 선교 교회’

아주사 거리 선교교회 사적지 표지판(좌)과 100주년 기념대회 포스터(우)
미국 LA 아주사 거리 선교교회(구 사도 믿음교회, 담임: 흑인 목사 William Seymour)는 1906-1931년 기간에 전 세계 오순절 방언운동의 요람이었다.

(Apostolic Faith Mission)를 세운데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1906년 4월 아주사 거리(Azusa Street)에 건물을 임대하여 ‘아주사 거리 선교 교회’(Azusa Street Mission)로 새 출발하였고, 이후 1931까지 전 세계 방언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초기에 이 운동을 이끈 인물은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어(William Seymour)였다.



2006년 4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와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지에서 아주사 거리 선교교회 100주년 대회가

세계 오순절 방언운동의 요람이었던 미국 LA 아주사 거리 선교교회 100주년 기념대회 때의 한 장면(2006년 4월 25-29일)

‘2006년에 다시 함께’란 주제로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오순절연합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조용기 목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군중이 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참고로 오순절교회 계통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적 예배에서의 질서

바울은 26절에서 공적 예배에서 하는 모든 순서의 목적을 세움(살림)에 두라고 권하였다. 또 바울은 31절에서 예언과 방언은 그 목적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데”에 두되, 40절에서 순차에 따라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하였다. 고린도교회에는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37절) 자들이 남녀무론하고 많았고, 성도들 앞에 나서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바울은 34절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였다.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치며 춤추는 디오니소스 여사제들 (주전 450년경, 파리 루브르). 이 광란의 축제 때 영들러 살던 여성들이 마음의 치유와 해방을 맞보았다.

평소 남녀평등주의를 표방했던 바울로 볼 때, 이곳에서의 충고는 다소 충격적이다. 반면에 이 무렵 이교 문화에 폭 젖어있던 헬라 여성들의 관행으로 볼 때, 바울의 충고는 시의적절한 면이 충분하였다. 디오니소스 예배의 큰 특징은 여성들이 주관한다는 점, 숭배자들이 광란상태에서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점, 술 취함과 집단혼음과 광기로 인해서 무질서하다는 점, 날고기를 먹는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지팡이를 흔들며 무리지어 행진하였고,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 치고 고함치며 춤(헤드뱅잉)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숲속이

나 들판으로 나갔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동물을 산 채로 찢었으며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셨다.

플라톤은 이런 육체적 광기가 이데아세계로까지 승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울이 이를 기독교에서 성취시켰던 것이다. 디오니소스 제전이 제공한 마음의 치유와 해방은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에서 온 것으로서 오늘날의 클럽문화에 비교될 수 있다. 바울은 기독교를 이런 이교문화와는 확실하게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다.



석판에 복조된 디오니소스 축제(주후 140-160, 이터리 나폴리)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델포이와 도도나의 신탁소무당들이 무아지경에서 내뱉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보다는 방언을 더 신령한 것으로 여겼고, 공적 예배 때 자신의 신령함을 앞 다투고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성도들이 서로 먼저 설교하겠다고 다툼 것과 같다. 이 무렵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신령한 것이 사랑이고, 세움(살림)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예언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성서시대의 예언자들은 방언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29.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시8(고전 15:1-11)

“전하여 준 대로”(kathos paredoka)

사도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자를 말한다. 바울의 경우, 육신의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또 배운 것을 전파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파송된 자이므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있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9장 1-2절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하였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사도직의 결과물이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신령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가장 뛰어나게 표현된 것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설교)하는 것이



2천년 전 이집트 파이움(Fayum) 지역민들은 영생을 꿈꾸며 시신들을 미이라로 보존하였고, 초상화를 그린 판자로 미이라의 얼굴을 덮었다.

예언이며, 인간을 회개케(권면)하여 회복(희망, 위로)시키고 세우는(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복음의 루트는 예수님 한분뿐이란 것

이 바울의 지론이다. 그러므로 전하여 준 대로, 배운 대로 믿고 그 가운데 굳게 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1-3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실천이 정통(옳음)인지를 알 수 있다.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지어질 당시 수집된 책들의 정경여부를 결정지은 잣대는 사도들의 전통(가르침과 실천)이었다.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엡 2:20)고 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모퉁잇돌”이란 건물 네 모퉁이에 놓는 주춧돌과 같은 것으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뤄진 사실들이 교회의 근간이란 뜻이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 전하고 실천한 내용들이 교회의 기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라고 권하였고(롬 6:17),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고전 11:2)하였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후 3:6)고 충고하였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심지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고 하였다.

“성경대로”(kata tas graphas)

바울의 말씀은 분명하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사도전통이고 정통(옳음)이며, 그것들을 굳게 지키고 믿어야(2절), 또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야(딤후 3:14-17)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였다는 것이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각각 한 번씩 “성경대로”(kata tas graphas)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성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족해방과 고토회복을 희망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수백 년째 기다렸던 유대인들로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해석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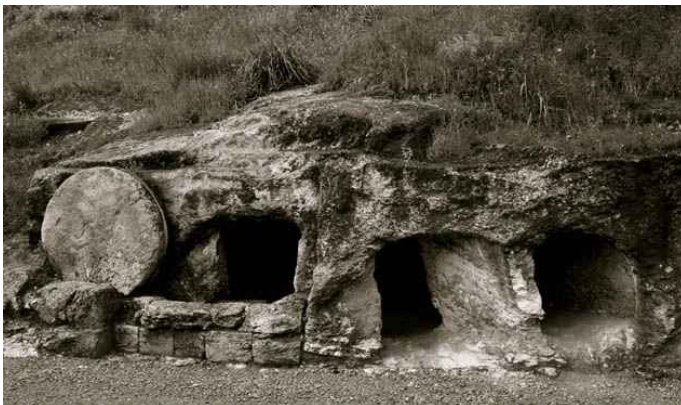
물론다 언덕에 세워진 성모교회 내부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시신 안치할 럼 구약성서를 이해한 사람이 나사렛파라는 새로운 종파가 생기기전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은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예언의 이런 식의 해석은 예수십자가사건, 예수부활사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서를 자세히 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것이었음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서를 유대교 랍비들과 다르게 해석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 때문이었다. 그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의 젊은 예언자가 천국운동을 펼치다가 위정자들에게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체포된 당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되었으며,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당대 최고였던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던 동굴무덤에

서 시신은 사라지고 수의만 남겨진 빈 무덤을 목격하였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분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당사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기타 오백여 추종자들의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쓴 때가 주후 57년경이었으니까 목격자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대였다면, 대부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의 요지는 예수부활의 증언이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에 기초한 것이고, 누구에게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만나보았다는 증언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부활의 정황증거들

예수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점이고 핵심이며 죽음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따라서 예수부활은 기독교변증의 최대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부활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예수부활은 창조나 진화와 마찬가지로 반복된 실험으로 과학적 사실로 입증될 수 없다. 과학적 사실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부활과 같은 기



도로건설 중에 이스라엘의 므깃도 근처 예즈레멜 골짜기에서 발견된 1세기경의 무덤과 입구를 막았던 돌문 (도로가에 있음)

적들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통한 입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서

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히 11:3)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롬 10:9)고 하였다.

따라서 예수부활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유물과 문헌에 의한 고증학 방식으로 입증된다. 바울이 언급한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직접증거와 주일예배, 성만찬, 침례와 같은 정황증거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부활의 진실성 가부는 믿음의 문제이지 입증의 문제는 아니다.

교인들의 다수가 유대인들이었던 초기교회가 엄격하게 지키던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킨 것은 예수부활의 확실한 정황증거이다. 그들이 일가친척과 공동체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버림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한데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려고 주일날 모였다.

침례와 성만찬도 예수부활의 강력한 정황증거들이다. 침례와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이들 예식이 초대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식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무지한 겁쟁이이자 배신자였던 제자들,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어 순교를 무릅쓴 데에는 부활과 성령강림 같은 어떤 강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그리스 로마세계의 철학과 종교들뿐 아니라, 삶 전체를 뒤엎어놓았다는 점이다. 그리스 로마세계에 ‘부활’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부활개념은 기껏해야 포도열매의 신인 디오니소스, 계절의 신인 페르세포네, 음부의 세계에서 살아 돌아온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정도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믿음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비웃었듯이, 기독교 밖에서는 보기 힘든 사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와 로마는 기독교의 양대 산맥인 동방교회인 정교와 서방교회인 가톨릭의 산실이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30.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심(고전 15:12-34)

“죽은 자의 부활” 개념



신들의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헤라클레스 (Martin Desjardins, 16세기, 프랑스 루브르)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믿음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부활을 전파하는 바울을 비웃었듯이 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12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기독교 밖에서는 보기 힘든 사상이었다. 그리스신화에 부활과 승천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기껏해야 디오니소스와

관련해서 포도가 짓이겨져 죽지만 이듬해에 다시 열린다든지, 페르세포네와 관련해서 식물이 겨울에 죽지만 봄에 되살아난다든지 하는 자연현상을 신화로 풀어썼을 뿐이다. 또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같은 영웅들이 영혼들의 지하세계(음부)에 다녀왔다고 하지만, 둘 다 목숨이 붙어 있는 육신으로 다녀온 것이어서 그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헤라클레스의 육신은 장작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다만 그의 영혼은 다른 혼령들과 마찬가지로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올림포스 신들의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영광을 입고 그녀의 딸 헤베와 결혼하였으나 이 또한 육체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동생 세트 신에 의해 죽은 오시리스의 사체

를 누이이자 아내였던 이시스가 수습하였고, 홀몸으로 오시리스의 아이인 호루스를 잉태하였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찾아볼 수 없다. 윤희설도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은 아니다.

그리스로마신화는 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자주 변신하기도 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갖기도 하는, 말그대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신들의 이야기로 풀어쓴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구약성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없다. 에녹, 모세, 엘리야의 사례들에서처럼 승천개념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례에서처럼 부활개념은 없다.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모세는 사후에 시신으로 승천한 것이어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죽은 자의 부활”과 상관없다. 또 바울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없다는 이유로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다.



헤라클레스가 육신의 짐을 벗고 신들의 대전에 올라 자신을 리콕겼던 헤라의 딸이자 신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청춘의 신 헤베와 결혼하는 장면
(Jens Adolph Jerichau, 1816-1883)

“죽은 자의 부활” 신뢰도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음부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뱃사공 카론에게 뱃삿을 주고 밀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를 타고 통곡소리가 참혹하게 들려오는 비통의 강, 깊은 시름의 강,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 불의 강, 이생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망각의 강을 차례대로 건너면 너른 별판에 이르게 되고, 별판 오른쪽에 낙원(엘뤼시온, Elusion), 왼쪽에

지옥(타르타로스, Tartaros)이 있다고 믿었다. 이뿐 아니라, 영지주의 헬라인들은 육체를 악하거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육체를 벗어나 빛의 세계로 갈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했던 것이기 때문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육체부활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영적세계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통치할 미래의 지상세계인 ‘올람 하바’(Olam Ha-Ba)를 희망(Ha-Tikvah)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크게 반대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놀라운 것은 부활사상으로 무장한 기독교복음이 뿌리 깊은



나사르의 무덤과 세부의 모습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종교사상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뒤엎어 놓았고,

지난 2천 년간 서양문화와 문명의 상징이 되게 한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르네상스시대 이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점차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18세기에는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부정하는 계몽주의와 자연신론이 대두되었고, 19세기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20세기에는 비교종교비평과 양식비평 같은 치명적인 성서비평방법론들이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스 라이드(Ipsos Reid)가 캔웨스트 뉴스 서비스/글로벌 뉴스(CanWest News Service/Global News)를 대신 해서 2006년 4월 11-1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의 73퍼센트, 미국인의 78퍼센트가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믿고 있었고, 또 미션널 리서치 센터(Center for Missional Research)가 2007년 3월 22-2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퍼센트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13, 16절).

둘째, 복음전도자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14절).

셋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14절).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15절).

다섯째, 죄 사함과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17절).

여섯째, 이미 죽은 성도들의 수고도 헛될 것이다(18절).

일곱째, 기대하는 것이 이생뿐이면, 죽음을 무릅쓰고 탄압을 받아가며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자일 것이다(19절).

이뿐 아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자들이 전파



동굴부둣의 안벽을 파서 만든 시신 안치대(예루살렘의 왕들의 무덤)

한 복음이 모두 거짓이 되고, 교리 그 자체가 헛것이 된다. 따라서 헛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게 되고, 맹수와 싸우듯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30-32절). 모든 것이 가하다. 진실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외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짓에 “속지 말라”(33절)며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 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20-28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어둠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변화의 능력이 늘 충만할 것이다.

3.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언서(고전 15:35-58)

불로불사를 꿈꾸는 인간



진시황릉에서 발굴된 병마용검의 일부로 불로불사를 꿈꾸며 영생을 찾아나섰으나 사망원인은 수은중독이었다.

인간은 불멸과 영원을 꿈꾼다. 생명공학기술, 대체장기생산기술, 의료기기생산기술, 3차원 인쇄(3D 프린팅)기술 등의 발달로 불로불사(不老不死)를 바라는 인간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



파라오 투탕카문(Tutankhamun)의 미이라관. 9세에 등국하여 18세(1324 BC)에 사망하였고, 불멸의 안식을 얻고자 하여 미이라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하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문의 미이라관과 진시황제의 병마용갱들이 원시적인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아바타(성육신, 분신, 유희, Avatar), 완전기억, 대체장기 등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포스트휴먼(인간이후)시대 또는 신인류시대를 열어 불멸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예를 들어, 삶의 모든 것을 기록 장치에 남기는 완전기억 또는 전자기억 형태로 자신의 일생을 영원히 남길 수 있고, 사후에도 본인의 화신(化身) 아바타가 나오는 가상시뮬레이션(cyber simulation)을 통해서 후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인간의 몸의 모든 장기를 복제하여 부품 교체하듯이 대체해 나갈으로써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인류시대 또는 포스트휴먼(인간이후)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는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을 연장시켜 죽음을 늦출 수는 있으나 죽음을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그 점이 인간과 기술의 한계점이다.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이 그린 <아르카디아의 목동들>이란 그림을 보면, 목동들이 지상낙원 아르카디아에서 무덤을 발견하고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묘비에 이런 글까지 있었다. “나는 아르카디아에도 있다.” 이 말은 죽

음이 지상낙원에도 있다는 뜻이다. 충격에 빠진 한 목동은 묘비에 기대 선채 사색에 잠겼고, 다른 목동은 한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손가락으로 묘비명을 되짚어본다. 또 다른 목동은 우수에 잠긴 눈으로



아르카디아의 목동들(Nicolas Poussin, 1594-1665)
 “나(죽음)는 아르카디아(지상낙원)에도 있다”(Et in Arcadia Ego)는
 묘비명에 목동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
 목동의 어깨에 손을 얹은 여인(역사)이 이를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뒤에 선 여인(역사)을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묘비를 가리킨다. “이게 사실인가?” 목동의 어깨에 손을 얹은 엄숙한 여인(역사)이 주는 답은 간단명료하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많고, 일평생 누린 쾌락이 아무리 클지라도, 또 인간의 생명공학기술, 대체장기생산기술, 의료기기생산기술, 3차원 인쇄(3D 프린팅)기술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히 9:27)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영혼 배교 다 바뀐다며 불멸을 파는 과학
 과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
 인간(너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다.”

육의 몸과 신경한 몸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으며, 어떤 형체가 된단 말인가?”(35절)라며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의 반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부활이전의 육신과 부활이후의 육신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36-38절에서 바울은 식물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

이 나오듯이, 또 새싹이지만, 종자에 따라 이전 것과 동일한 형체 이듯이, 인간도 죽으면 각 사람에 따라, 새로운 몸이지만, 동일한 형체를 주신다고 하였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순간에 알아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육신을 갖지만, 형태적으로 부활이전의 사람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부활한 몸과 부활이전의 몸과의 차이점은 부활한 몸이 영화로운 성화된 몸인 반면, 부활이전의 몸은 영육이 죄악에 물든 몸이다. 이 죄악에 물든 몸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은 영화로운 성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는 또 영적부활이 아닌 육체부활을 뜻한다. 영적부활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성화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육체부활은 육적으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39-49절에서 몸의 생김새가, 사람, 짐승, 물고기, 새가 다르듯이, 또 해, 달, 별의 밝기가 다르고, 별과 별사이의 밝기가 다르듯이, 부활한 몸도 이생의 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2절부터 보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차이, 육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의 차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의 차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가 그것들이다. 바울은 육의 몸은 첫째 아담으로 대표되는 생명(땅의 사람)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령한 몸은 둘째 아담(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생명의 영광 하늘에 속하여 하늘로 돌아갈 것이며, 이생에서는 땅에 속한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

50절의 “혈과 육”은 썩을 것, 육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말하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

라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곳이므로 유업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살려면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곧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스트휴먼(왕지원), 바이오닉우먼 소녀즈와 6백만불의 사나이, 사이보그 로보캅
 인간은 한계를 극복한 인간이후시대를 꿈꾸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피난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51절의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는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에 부지불식간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52절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이미 죽어 땅속에 묻힌 그리스도인들도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부활하여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란 뜻이다.

53-54절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며, 육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으며,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순간이 바로 사망을 멸망시키는 순간이요, 음부의 세계가 정복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하는 순간임을 말한다.

55절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호세아 13장 14절의 인용으로써 “사망”은 “스올” 곧 음부 또는 죽음의 세계를 말하고, 사망의 “승리”와 “쓰는 것”은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극심한 공포, 재앙, 고통을 말한다.

“어디 있느냐?”는 기세등등하던 골리앗 같은 적장을 단칼에 쓰러뜨린 다윗 같은 무장이 비웃는 말로써, “기고만장하던 독종이 뼈드러진 꼴이 보기 좋다”는 뜻이다. 56절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죄는 율법에서, 사망은 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57-58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늘 감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32.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 예베세(고린 16:1-24)

제3차 선교 마무리를 위한 계획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선교일정을 마친 후 마케도니아, 그리스,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차례로 순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글이다. 바울은 실제로 이 계획을 주후 57년에 실행에 옮겼다.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들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함이었고, 둘째는 이들 교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교회에 기부할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충고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성의 뜰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궤가 놓여 있었다. 우측은 라복가 바쳤던 궤통이다.



8-9절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한 글로 보아 고린도전서는 주후 57년 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순절

절기는 보통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닿기 때문이다. 바울은 57년 초여름 때까지 에베소에서의 정착선교를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그해 11월말쯤에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며, 고린도에서 57년 12월경부터 58년 2월경까지 3개월간 과동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바울은 주후 58년 3월 중에 고린도를

출발해서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냈고(행 20:6),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 했다. 또 8-9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체류하는 동안 많은 환란을 겪었음을 암시해 준다.

첫째,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전쟁에 패하여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이 차꼬에 묶인 채 개선행렬 끄트머리에 서서 아레나를 가득 메운 군중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유로 말한 것이다.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처절한 싸움이 마치 검투사가 아레나에서 맹수를 무찌른 것같다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겪었던 적들과의 처절한 싸움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셋째, 고린도후서 1장 8-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권면과 인사

10-12절은 고린도교회와 후배 목회자에 대한 배려의 글로써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니,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를 잘 영접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편리를 도모해 주고, 일을 마치면 안전하게 돌려보내 달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아볼로의 근황을 아울러 전하였다. 바울은 그에게 고린도로 건너가서 사역해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그로부터 다음 기회에 가겠다는 허락만 받았다고 전하였

다. 이처럼 바울은 목회자로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양 떼를 돌보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13-24절까지는 권면과 인사이다. 첫째 권면은 (1)깨어 있으라. (2)믿음에 굳게 서라. (3)남자답게 강건하라. (4)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권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

땅한 대접을 하라고 권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스테바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스테바나는 바울이 아가야에서 전도하여 얻은 첫 열매로서 교회봉사에 충성을 다한 일군이였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부탁하였다. 끝으로 바울은 정성과 애정을 담아 친필로 마지막 인사부분을 쓰면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며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길 간구하는 따뜻한 인사로 끝을 맺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기독교 예배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절에서 연보하는 날로 “매주 첫날에”가 언급된 것은 “주일” 또는 “주님의 날”로써 예배가 일요일에 모여 드려졌음을 암시하는 매우 귀중한 내용이다. 고린도전서는 “그 주간의 첫날에”(안식 후 주 첫날, 행 20:7)가 언급된 사도행전보다 짧게는 대략 10년, 길게는 20년 먼저 기록된 글로써 주후 30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 불과 27년 밖에 안 된 때였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서의 책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다음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다.

둘째, 20-24절에서 최초의 기독교 예배순서의 세 가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3)“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이다.”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이 구절들을 일컬어 “서신의 결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용법일 뿐 아니라,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즉 성찬을 들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간의 대화”라고 하였다.

일요일 예배와 내용



마라나타(Marana Tha: 주여, 오시옵소서!)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주의 만찬 기도문으로써는 아람어로 보존된 ‘마라나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도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고린도교회에 아람어로 전수되었다는 사실은 이 기도문의 중요성을 짐작

케 한다. ‘마라나타’는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원함으로써 주의 만찬을 통해서 미래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앞당겨 그의 임재를 미리 맛보는 표지로서 설명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말(1:5-6)에서부터 ‘마라나타’라는 끝맺는 기도와 마지막 축사(22:20-21)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예배의 관례를 암시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평화의 입맞춤과 마라나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마지막 인사말은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 예배의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 추정이 옳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은 다른 성서적 증거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예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의 만찬 제정사와 관련된 몇 개의 성구들은 ‘성찬 봉헌’, ‘주의 만찬 기도’, ‘분병례’, 간단한 ‘주의 만찬 설교’ 그리고 ‘성찬배수’로 이어지는 예배를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이들 성구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3-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써 한결 같이 “떡을 가지사(봉헌), 축사하시고(주의 만찬 기도), 떼어(분병례), 주시며(성찬배수/聖餐拜受), 가라사대(교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증언들을 종합해서 예배순서를 재구성해 볼 경우, 예배는 제1부 말씀 예배와 제2부 주의 만찬 예배로 나뉜다. 먼저 말씀의 예배는 (1)성서봉독(바울 서신의 봉독), (2)집례자의 설교, (3)기도, (4)찬송시(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엡 5:16; 골 3:16; 고전 14:26)로 구성될 수 있다. 주의 만찬 예배는 (1)봉헌(“떡을 가지사”), (2)주의 만찬 설교(“가라사대”), (3)주의 만찬 기도(“축사하시고”, 고전 10:16), (4)주의 기도(마 6:9-13), (5)인사와 평화의 입맞춤(고전 16:20-24), (6)주의 만찬예의 초대(고전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 구절은 주후 100년경에 쓰인 <디다케> 10장에 나온 “사람아, 만일 거룩하면 오라.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과 거의 비슷하다), (7)분병례와 참여(“떼어 주시며”), (8)헌금, (9)축도(고전 16:23-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로 구성될 수 있다.

33.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고후 1:1-7)

그리스와 터키를 잇는 선교해브



바울의 후원자였던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 루디아.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수입하여 팔았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마게도냐’란 지명을 일곱 번 언급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넓은 의미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트로이 등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빌립보를 뜻한다. 빌립보에는 바울의 강력한 후원자인 루디아가 있었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였고, 터키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수입하여 팔고 있었다. 바울이 그녀를 기도처

에서 만난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행 16:14)로 기술한 것을 볼 때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빌립보와 그녀의 집은 바울과 그 일행을 그리스와 터키로 잇는 가교 또는 허브(축)가 되었다. (드로아와 가보의 집은 터키와 그리스를 잇는 또 다른 허브였을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는 주후 57년 초반이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중반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후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해 말 혹은 이듬해 초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씀에서 “구원”은 영혼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의미를 물리적 신체적 죽음에 가까운 환난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값진 것이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뿐 아니라, 남 갈라디아의 루스드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죽음에 가까운 환난들을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셨다. 그로써 바울은 하나님은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영혼뿐 아니라, 죽은 목숨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의 인사, 특히 3절에서 언급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죽음에 가까운 듯한 환난들을 겪으면서 뻗속 깊은 곳까지 체득된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던 장소 루디아기념교회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데서 나온 신앙고백이다.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은 1절에서 자신과 디모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바울과 디모데가 그동안 에베소에서 당했던,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환난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는 환난 중에서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

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환난을 겪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 뜻이 6-7절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1974년에 완공된 발루스의 루디아기념성교회
바울은 주후 57년 중반에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크게 보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헬라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지에서 당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환난은 그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로부터 당한 것이었다.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바울에게 해코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 로마가 유대당국에게 본토든 외국이든 로마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유대교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로마법과 유대교법을 모두 따라야 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유대교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대교 회당의 질서와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폄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단자인 바울을, 사형권이 없어서 직접 처형할 수는 없었지만, 옥에 가두거나 39대의 곤장을 마음껏 칠 수가 있었다. 바울은 이 곤장을 주후 57년까지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

법한 법절차 없이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법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어서 증오가 들끓던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은 자주 바울에게 불법을 저질렀다. 그들이 바울에게 자주 써먹은 수단은 소란을 피워 대중의 손에 찢겨 죽게 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암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여 위해를 가하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세뇌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또한 바울에게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고 바울로부터 유대교를 지켜내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바울의 유대교 회당 전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교 회당을 찾아다니며 전도한 것은 그들의 교인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인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빌립보의 8각형 교회당의 침묵계단

을 고백하고 개종 침례를 받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전도를 위협적으로 뿌리쳤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하늘 가나안땅에 관한 복음을 받아드리기에는 조상대대로 그들이 희망(Ha-Tikvah)해왔던 지상 가나안땅회복과 민족해방이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대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동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던 헬라인들의 다수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였다. 이 무렵에는 많은 수의 유력한 헬라인들이 유대교의 회당 기도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결국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교공동체의 강력한 탄압 때문에 그들을 배제한 채, 복음을 수용한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헬라인들만으로 지역 내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종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그들을 빼앗긴 디아스포라 유대교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교인수의 감소뿐 아니라, 그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명예마저 빼앗긴 셈이어서 바울에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개신교에서는 설교자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입에 올리곤 한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그가 1,2,3차 선교지들에서 신체에 물리적인 린치를 당하여 죽음에 이를 때마다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뿔속 깊이까지 체득한 신앙체험이 있다. 3-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체험이 쌓여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34.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고후 1:8-11)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1)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언급한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에베소 한 곳에서 바울이 당한 환난만으로도 그가 일생동안 받은 박해가 얼마나 위중했는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신상의 위험들과 가능성 있는 투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외상을 경험하였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이 견딜 수 없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고, 사망선고 즉 죽음에 거의 이른 지경이었다고 실토했다.



스페인, 메리다 원형극장에 그려진 맹수와 사울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였고, 15장 32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들 말씀이 실제로 바울이 죄수로서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끌려가 맹수와 겨루는 검투경기에 투입되었다는 뜻인가를 놓고 학자들은 많은 말을 쏟아냈다. 검투경

기는 고대 로마시대 때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맹수 간에 치러진 격투경기를 말한다. 검투사는 자원하여 된 자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전쟁노예들이거나 죄수들이었다. 바울은 로마시민권자로서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경기장 일대에서 발화되어 9일간 로마시의 삼분의 일을 태운 대화재 때 간신 티게리누스의 계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긴급히 체포되어 토굴감옥 맘머티메에 갇혔다가 네로의 치세말기인 주후 67년경에 참수된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기결수였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맹수와 싸운 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바울의 표현은 에베소에서
의 환난이 에베소
또는 세상이란
원형극장에서
구경꾼들 앞
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검투사
처럼 목숨을
결만큼 힘
겹고 매우
위험한 것이
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로마시대 검투사들의 결투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2)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후 55년부터 57년까지 체류한 2년 3개월 기간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네로가 주후 54년에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의 모친 아그리피나가 제국을 섭정할 욕심으로 친인척을 무론하고 정적들을 제거하였다. 이 때 네로의 인척으로서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시라누스(Silanus)가 독살되었다. 그리고 시라누스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임이 정해지지 못한 채 복수의 인물들이 공동으로 총독직을 대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를 시작하였고,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은 이 혼란기를 틈타서 바울을 고소하였을 것이고, 뇌물을 받은 통치자들이 바울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고대 로마시대 검투사들이
집단으로 매장되었음을
선명한 문자로 보여준
모비 (BBC 인터넷판)



검투사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의 상흔들. 왼쪽 상단의 두개골
윗부분에는 날카로운 삼지창으로 찔린 듯한
흔적이 있다. (BBC 인터넷판)

고린도후서 11장 23-25절에 따르면,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다.” 바울

이 주후 57년 중반까지 유대인들에게 39대의 곤장을 맞은 것이 다섯 번이면, 그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은 에베소에서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체류하였고,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이듬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유대총독의 재가를 받아 사형에 처하려고 인간힘을 썼던 자들이다. 그 같은 수법으로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시아총독들의 재가를 받아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자 그를 유대교회당의 법정에서 세워 40에서 하나를 뺀 곤장을 쳤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독교가 로마관리들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그만큼 기독교는 무흠하고 합법적인 단체였음을 변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제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유일하게 보도한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의 소동 사건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무흠과 서기장의 공정성을 부각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9장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의 연설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발생한 이 소동을 기회로 삼아 바울과 그 일행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 알렉산더의 연설을 듣지 않았고, 서기장이 균중을 평화적으로 해산시킨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으나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바울은 시급히 에베소를 떠나야했다.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3)



2만5천석을 갖춘 고대도시 에베소의 극장 배우들의 대사가 끝대기까지 돌리는 천년유형시설을 갖췄으며, 은 세공업자 데메트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소란을 피웠던 곳이다.

능성이 있다. 디모데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8-10절의 말씀, 곧 “형제들아 우리가 아

바울은 ‘알렉산더’란 이름을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각각 한 번씩 언급하였다. 전서 1장 20절의 알렉산더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고, 후서 4장 14절의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는 바울일행의 전도를 심히 대적하여 해를 많이 입힌 자였다. 이 알렉산더가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일으킨 소동 때 에베소 극장에 집결한 균중에게 바울을 제거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려 했던 자와 동일 인물일 가

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에베소의 사도 요한 교회당의 침례탕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한 말씀의 강도(強度)가 얼마나 센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이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끝낸 이듬해인 주후 58년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베소)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붙잡혀 못매를 맞고 재판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넘게 하고 있었으나 풀려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바울은 네로에게 상소하였고, 네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유라굴로’(Euraquilo) 광풍을 만나 14일간이나 캄캄한 죽음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한 바가 있다.

이로써 우리는 왜 바울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전 16:9)고 했는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갈 6:17)고 했는지,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는지를(롬 16:4) 가늠해 볼 수 있다.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자체였다.

35. 갈등과 화해(고후 1:12-24)

고린도전후서가 쓰인 배경

바울은 주후 34년경에 개종하였고, 10여년 후에 시리아의 안디옥교회에 초빙되었으며, 1-2년쯤 후인 40년대 중반에 선교여행에 나서 키프로스과 남 갈라디아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주후 51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51-2년경에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체류하며 고린도와 인근 도시들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52-3년경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건너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후 55-7년경에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체류하며 에베소와 인근 도시들과 심지어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인 일루리곤(Illyricum, 롬 15:19)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모든 복음을 바울이 직접 전파한 것은 아니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울이 동료 사역자들을 먼 이웃나라에까지 파송한 거점도시들이었고, 드로아와 빌립보는 이들 지역들을 오가는 허브였다.



고린도에 세워진 바울기념교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고린도를 떠난 지 대략 5년만인 주후 57년 봄쯤이었다. 그 5년간 바울이 몇 번이나 고린도교회를 방문했는지,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차례의

공식적인 방문과 서신들 중간에 최소한 한 차례의 짧은 가슴 아픈 방문(12:14; 13:1)과 두 차례 더 편지를 썼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적어 보낸 편지가 있었고(고전 5:9) 고린도후서 직전에 디도 편에 보낸 “눈물로 쓴 편지”(고후 2:4)가 있었다. 학자들의 다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쓴 편지에 침묵하지만,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0-13장이 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은 ‘글로에의 집 편’(고전 1:11) 으로부터 고린도교회에 파당과 분열(1장), 음행(5장)과 소송(6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린도교회의 대표들이 보내온 편지(고전 7:1)에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의 문제(7장),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8-9장), 이교축제에 물든 자들의 공적예배에서의 무질서 즉 주의 만찬(10장), 기도나 예언할 때의 옷매무세, 특히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11장), 은사(12-14장) 및 부활(15장) 등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들 문제들의 해결책을 상세히 적어 디모데 편에 보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에 디모데가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바울의 적대자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잠시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바울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냈다.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조급증에 빌립보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적대자들의 반란이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해의 뜻이 담긴 글을 써서 디도의 편에 다시 보냈는데, 그 글이 고린도후서이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취소에 대한 해명(1)

고린도후서는 주후 57년 가을쯤에 빌립보에서 기록되었다. 봄쯤에 전서를 보내고 나서 여름쯤에 가슴 아픈 방문과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후서를 썼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해 11월말쯤에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하여 58년 2월경까

지 머물렀고, 춘분이 지난 음력 보름날에 닿는 유월절 명절을 빌립 보에서 보냈으며(행 20:6),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닿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낼 때 성전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투옥되었다가 주후 60년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네로에게 재판을 신청하여 로마로 이송되었다.



에베손파들이 율법교사로 추종하는 예수아(예수님)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참고 12:14)고 단언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놓고 적대자들이 1장 12절에서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지혜”를 따른 계획을 세웠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비아냥거렸거나 바울 자신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 계획했던 방문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과동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주후 57-8년 사이에 시행되었으나 그 전 여름쯤에 한번 더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문은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한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오느냐에 달려있었다. 다행히 디도가 적대자들이 굴복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고, 바울로서는 불편하고 불필요한 방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바울은 방문 대신에 화해의 뜻이 담긴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의 편에 다시 보냈던 것이다. 바울은 18-20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

바울은, 만일 후서 10-13장이 눈물로 쓴 편지가 맞는다면, 13장 1-2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 믿을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한 믿을만하며, 자신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여서 일구이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23-4절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20-2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선수금과 인감으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과 같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하였다. 그만큼 바울의 계획은 신중하고 확고하였으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뉘우치고 믿음에 섰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남기를 원하여 계획을 취소했노라고 해명하였다.

바울의 적대자들: 에비모과

바울은 전서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적대자로 부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로 불렀다. 이들은 바울로 하여금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만들고 눈물로 편지를 쓰게 만든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후서의 적대자는 전서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침투한 자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와 그를 추종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이들은 분명히 “히브리인”(11:22)들로서 “지극히 큰 사도들”(11:5,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11:13)들로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11:4)을 전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바울의 적대자가 갈라디아지역 교회들에도 나타나 “다른 복음”(갈 1:6,7,9)을 전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

하였다. 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고후 11:13)고 하였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히브리파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예수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나 메시아운동 정도로 여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들’ 또는 사람들이 ‘나사렛파’(노쯔림, Notzrim)로 부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나사렛파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띤 그룹이 에비온파이고, 복음주의적 성격을 띤 그룹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에비온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구원론, 즉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성별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또 율법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서 온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해서 생긴 조직이었을 수 있다.



에비온파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장이었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에비온파(Ebionites)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율법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준 참교사로 떠받든다. 또 그들은 이 그룹의 지도자로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를 꼽는다. 에비온파는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대로와 노아홍수 이전처럼 채식을 고집한다. 에비온파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유

대교의 배신자와 이단자로 보기 때문에 바울서신들을 성서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들이 신약성서에서 받아드린 책은 히브리어 마태복음뿐이다. 반면에 나사렛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등을 믿는다. 따라서 나사렛파는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범주에 속하

지만, 에비온파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을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지만,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에비온파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문화와 이방문화들을 정치적으로 혼합한 이방종교에 불과하다고 본다. 에비온파들은 역설적으로 신약성서교회는 구약성서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36. 갈등과 화해(고후 2:1-13, 7:5-16)

바울의 고린도 방문취소에 대한 해명(2)

바울은 12장 14절에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였다고 했고, 13장 1-2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두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신 19:15)이 있다. 내가 두 번째로 갔을 때 전에 죄를 범한 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비록 지금은 떠나 있으나 다시 경고한다. 내가 이번에 세 번째로 가면 죄 지은 자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을 취소한 것은 두 번째 방문 때처럼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고심 끝에) 스스로 결심했기”(1절)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 불편한 방문을 반길 자들은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동요하기를 바라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자들일 것이므로 그들이 기뻐할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방문을 취소했다고 해명하였다. 또 바울의 방문은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



바울 일행이 네이살볼리에서 비클립보와 데살로니가로 이동할 때 걸었던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

을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까봐 염려했다고 하였다(2-3절). 공동번역성서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또 가슴 아픈 방문 직후에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4절)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근심케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3-4절)이라고 해명하였다.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을 폄훼함으로써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근심에 쌓이게 만든 자가 있었지만, 그가 시도한 모든 악행들은 바울과 주의 종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므로 그러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하였다(5-6절). 하지만, 그가 이제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고 하니, 교회가 그를 용서



바울의 제2-3차 선교활동무대

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게 돕는 것이고 또 그가 징계를 받고 반발하여 이전보다 더 악한 적대자가 되지 않게 돕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7절) “사랑을 그들에게[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내라”(8절)고 권면하였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취소에 대한 해명(3)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 직을 인정하고 따르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매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 데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 ‘도키멘’(dokimen)으로써 ‘시험’ 또는 ‘시험의 결과’를 뜻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만족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9절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침투한 바울의 적대자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8절의 권고가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는 암시가 담긴 말씀이다.

바울은 10-1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받는 용서가 사탄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임을 말하였다.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용서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용서를 뜻한다. 이런 용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만든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말씀으로 볼 때,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진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었으므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에 전달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드로아에 머물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 같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장기 체류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복음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의 도



그레데에서 순교한 디도와 교회 유적



드로아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로서 트로이 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였다.

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말씀으로 볼 때,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진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었으므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에 전달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드로아에 머물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 같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장기 체류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복음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의 도

착이 늦어지자 눈물의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13절)고 하였다. 여기서 ‘드로아’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Alexandria Troas)로써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25킬로미터쯤 떨어진 항구도시였다. 마게도냐의 항구도시 네압볼리로 가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했다. 드로아에는 바울이 묵었던 가보의 집이 있었고, 누가의 집도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해의 편지의 결론문구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다시 믿음위에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라 불리는 화해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1장부터 7장까지로써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결론문구가 7장 5-16절까지이다. 이 화해의 편지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회개한 것, 고린도교회와 바울사이에 신뢰가 회복된 것, 디도가 교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곳으로 알려진 빌립보 감독 로마시대의 사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회로부터 사랑과 환대를 받고 돌아온 것에 고무되어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화해의 편지를 썼다. 이 위로와 기쁨을 바울은 ‘화해 신학’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논문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이다. 이 글이 길어져 결론문구가 멀리 7장 5절 이후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나머지 8-9장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요청한 글이고, 10-13장은 대적자들을 반박한 글이다. 이 10-13장의 글이 눈물로 쓴 편지일 가능성이 높다.

화해 편지의 결론문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첫째, 바울과 디도에게도 육체의 약함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5절).

둘째,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디도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6절)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디도가 가져온 기쁜 소식으로 바울을 위로하셨고, 불안해하는 디도가 환대를 받게 함으로써 위로하셨으며, 고린도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게 하고, 잘못을 누우치게 하며, 열정을 품게 함으로써 위로하셨다(7절).

셋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위로와 격려와 살림의 손 내밀기가 되지만, “세상 근심”은 비방과 비난과 죽음의 손가락질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근심은 위로와 격려와 살림의 손 내밀기였고, 대적자들의 근심은 비난과 비방과 죽음의 손가락질이였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준엄한 편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분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9절). 만일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비방과 비난과 죽음의 손가락질을 이어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10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교회로 하여금 누우침을 “간절하게 하며,” 옳음을 “변증하게 하며,” 불의에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하며,” 바울과의 재회를 “사모하게 하며” 바울의 가르침에 “열심 있게 하며,” 이단자들을 “벌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바울의 근심과 눈물로 쓴 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고린도교회의 근심에 위로와 기쁨과 안심과 신뢰와 살림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12-16절).

37. 화해의 복음(고후 2:14-17)

모잠비코의 개선행진(Pax Romana)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신다”(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는 뜻이다. 헬라어 ‘드리암뷰오’(thriambeuo)는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는 뜻으로 로마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이긴 후에 돌아올 때 전과(戰果)를 적은 현판들을 들고 전리품목과 포로들을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행진을 말한다.



티투스의 개선문 복조(주후 81년, 복사본, 미국 LA카운티 미술관)
오른쪽에 투가를 걸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서있고,
뒤에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고 있다.
전차 옆에 상체가 드러난 사람은 평민들, 투가를 걸친 사람은
원로원의 의원들 대표한다.

말고베를 붙잡고 있는 여성은 여신 로마 또는 여신 동명을 상징한다. 후 81년경에 로마에 개선문을 세웠는데, 비문에 “로마의 원로원(senate)과 시민들이 신성(Divine) 티투스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헌정함”이라고 새

바울시대가 후 황제들은 신성시되었고, 그들의 승리는 여신 니케와 관련지어졌다. 로마군 총사령관이 되어 유대-로마전쟁(주후 66-70)

을 지휘했던 티투스는 주

후 81년경에

기게 하였다. 그리고 개선문의 안쪽에 개선식 장면들을 부조케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토가를 걸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타 있고, 날개를 펼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이다. 티투스의 전차 옆에 상체를 드러낸 평민과 토가를 걸친 원로원의 의원을 상징적으로 배치하였고, 여신 로마 또는 여신 용맹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붙잡게 하였다. 로마제국에 승리와 평화(Pax Romana)를 가져다주는 이가 황제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고, 매일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믿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선행진의 모형을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펼쳤던 가나안땅을 향한 행진에서 찾았다. 늘 배고픔과 목마름과 곤고함과 피곤함과 핍박과 싸움이 있었지만, 구름기둥이 히브리인들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처지가 종종 개선행진에 강제로 참여한 노예들처럼 처참하였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바울은 14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승리자로 개선행진에 참여시켜주신다고 확신하였다.

실체로서의 개선행진(Pax Christi)

바울이 확신했고 내다보았던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고, 제국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넘쳐나게 되었다. 이 일의 시작은 주후 313년 2월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1세(주후 272-337)와 리키니우스(Licinius)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6월에 발표한 칙령으로 이뤄졌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들

에게 자유가 허락되었고, 몰수당한 교회의 재산들이 반환되었으며, 기독교 탄압을 위한 법안들도 모두 폐지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특별주화(주후 315년)
투구머리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겼다.

다. 이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둠으로써 사두정치체제를 끝내고 단독 황제가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에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았고, 즉각 군기(labarum)와 군인들의 방패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기게 하였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동시대의 인물로서 가이사라의 주교이자 최초로 교회사를 저술한 유세비우스(Eusebius)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환상을 본 직후부터 ‘키-로’가 새겨진 투구를 즐겨 썼다고 기술하였다.

유세비우스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은화가 주후 315년에 이태리 북부 티키눔(Ticinum)에서 발행된바 있다. 이 은화는 증정용으로 만들어져 널리 통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은화의 가치가 큰 이유는

주후 312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키-로’를 군기와 방패에 새기게 한지 불과 3년 이내에 주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은화에 새겨진 황제의 투구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주화(주후 337년경)
앞면에 월계관을 쓴 투구머리에 콘스탄티누스대제(CONSTANTINVS MAX AVGV)라고 썼고, 뒷면에 뱀을 짚어 누른 군기 사이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노폴리스(SPES PUBLICA CONS)라고 썼다. 군기 상단에는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겹쳐서 썼다.

벼슬에서 ‘키-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상을 본지 25년 후인 주후 337년에 발행된 동전 앞면에 월계관을 쓴 두상 주위로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VS MAX(imus) AVG(vstvs)〉라고 썼고, 뒷면에 뱀을 짊어 누른 군기사이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노폴리스”〈SPES PUBLICA CONS(tantinopolis)〉라고 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군기 상단에는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를 겹쳐서 썼다. 이후 ‘키-로’는 교회와 비잔틴제국의 황제들이 즐겨 사용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써의 개선행진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금화(주후 393-395년경)

앞면: “우리의 주 테오도시우스, 경건하고 유복한 황제”(DN THEODOSIUS PF AVG)라고 썼다. 뒷면: 테오도시우스가 오른손에 군기, 왼손에 지구위에 선 여신 승리를 물려주고 포로를 밟고 선 모습. “세 명의 황제들의 승리, 신성한 돈, 금관형에 의한 승금”(VICTORIA AVGGG SM COMOB)이라고 썼다. 가 극적으로 주교로 임명받고 삼위일체론을 지지하고 있었고, 밀라노에 머물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도 380년에 칙령을 받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선으로 325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신앙고백서이자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한 니케아신조를 신봉하게 되었다. 삼위일체론자들과 단일신론자들 사이의 대립이 극심하던 때였지만, 테오도시우스는 380년 2월 28일에 모든 시민이 니케아신조를 고백하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때부터 삼위일체설을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그리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지 8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4세기말 밀라노에는 주지

방장관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가

도인으로 인정되었고, ‘보편적’(catholic)이라는 호칭이 최초로 문서에 등장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주후 385년부터 희생 제사를 금지시켰고, 391년에 로마와 이집트에서 이교숭배를 금지시켰으며, 392년에는 전 제국에서 금지시킴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었던 것처럼 기독교 천년왕국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3-5년 사이에 주조된 금화 앞면에는 “우리의 주 테오도시우스 경건하고 유복한 황제” <D(ominus)N(oster) THEODOSIVS P(ius)F(elix)AVG(vstvs)>라고 쓰게 하였고, 뒷면에 테오도시우스가 오른손에 군기, 왼손에 지구위에 선 여신 니케(승리)를 올려놓고 포로를 밟고 선 모습과 “세 명의 황제들의 승리, 신성한 돈, 금관청(金官廳)에 의한 순금” <VICTORIA AVGGG(=Augustorum) S(acra)M(oneta) COM(es Auri)OB(ryza)>이라고 쓰게 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 돌에 새긴 승리의 여신 니케를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개선 행진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승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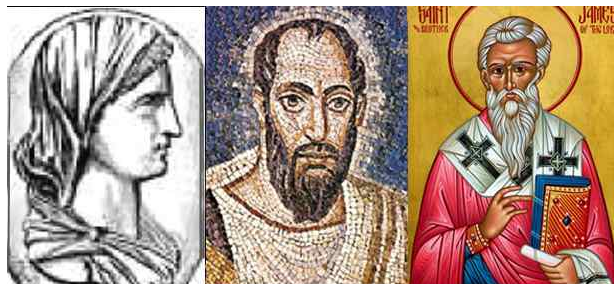


생명을 살림으로써 얻는 승리요, 이 행진은 생명의 향기를 뿌리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황제들이나 장군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얻는 승리와 노예로 사로잡고 재물을 탈취하며 사망의 냄새를 풍긴 행진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다. 또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풍기는 생명의 향기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8. 화해의 복음(고후 3:1-6)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바울시대에는 교통과 통신수단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하였다. 신약성서가 아직 없던 때여서 방문자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할 마땅한 수단이 없던 때였다. 그런데다가 이 시대에는 떠돌이 사역자들이 많았고, 그들 중에는 이단자인 에비온파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영지주의자 마르티온,

복음주의자 바울,

불법주의자 야고보

주후 30년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27권의 글이 신약성서로 확정되고,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360년 정도가 걸렸고, 이 기간에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여러 복음서, 서신서, 행전들이 나왔다. 교회들은 저마다 힘닿는 대로 문서들을 수집하였으나 예배 때 낭독해도 좋을 문서인지를 결정해야했고, 그 잣대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인 27권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동방교회는 367년에 서방교회는 393년과 397년에 각각 이들 27권을 신약성서의 정경으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신약성서 27권에 들지 못하였으나 신뢰할만한 글들을 ‘정경 외 경전’(외경)으로, 그밖에 저자가 의심

마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360년 정도가 걸렸고, 이 기간에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여러 복음서, 서신서, 행전들이 나왔다. 교회들은 저마다 힘닿는 대로 문서들을 수집하였으나 예배 때 낭독해도 좋을 문서인지를 결정해야했고, 그 잣대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인 27권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동방교회는 367년에 서방교회는 393년과 397년에 각각 이들 27권을 신약성서의 정경으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신약성서 27권에 들지 못하였으나 신뢰할만한 글들을 ‘정경 외 경전’(외경)으로, 그밖에 저자가 의심

되거나 사도성이 떨어지는 글들을 ‘위경’으로 취급하였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주후 3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까지 팔레스타인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였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성육신을 부정하고 율법과 물질을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를 포기하지 못하였다. 이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피차 상극으로써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 대적한 자들은 유대교를 포기하지 못한 에비온파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문자적으로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떠돌이였고 노예였다. 땅은 그들이 수천 년간 꿈꿔왔던 희망(Ha-Tikvah)이었고, 다가올 세상(Olam Ha-Ba)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까닭도 그가 가나안땅의 희망을 품었던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땅을 차지하고 주권을 행사한 기간은 1천년이 넘지 않지만, 주권을 빼앗겼거나 속주민으로 살았던 기간은 3천년이 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절박함은 율법준수의 엄격함으로 나타났다. 유대교는 민족해방과 가나안땅회복이 ‘토라’(모세율법)와 토라보호를 위해서 만든 율타리법인 규례를 철저히 지킬 때 이뤄진다고 믿고 가르치는 민족종교이다.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충돌

유대인들은 그들의 숙원인 민족해방과 고토회복이 오실 자 메시아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예슈아)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운동이 주후 30년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 신앙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자 유대인공동체가 술렁였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였다. 대다수는 민족해방도 고토회복도 이뤄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메시아로 믿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배신행위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소수의 무리였지만, 예수님을 율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우쳐준 위대한 랍비로 인정하여 그의 가르침과 사상을 따랐는데, 그들이 바로 에비온파였다.

한편 예수님을 율법교사 이상의 특별하신 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으로, 지금은 영으로 그들을 돕고 계신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며, 그분이 머지않아 재림하시면 완벽하고 철저한 메시아왕국이 건설된다며 회개와 회복운동을 펼친 무리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나사렛파’(노쯔림)라고 불렀으나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주후 66년경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피신했던 펠라(요르단). 성도들은 유대-로마전쟁 당시 계시예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곳으로 피신하였다.

나사렛파 운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그 운동이 민족종교인 유대교의 틀과 한계를 벗고 세계종교인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건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렛파는 대부분 바울의 복음주의 기독교에 흡수되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사방 각지로 흩어져 순회하는 동안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책임아래 있었다. 가이사랴의 주교 유세비우스가 남긴 <교회사> 3권 5장에 따르면,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주후 66년경 유대-로마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계시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로 피난하였다. 펠라(Pella)는 요르단을 사이에 두고 사마리아 땅과 마주한 베레아 땅으로써 현재의 요르단 북부 요르단강 주변에 있었던 도시였다. 베레아는 이방지역이어서 유대

-로마전쟁 때 피해를 면한 곳이다. 펠라는 주후 635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율법해석과 마태복음만을 인정해온 에비온파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유대교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차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독교 복음에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에 편향된 기독교 종파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로 인해서 순수하고 복음적인 신약성서 교회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에비온파의 활동



주후 51년에 개최된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
야고보(중앙)가 손에 이방인 교회들에
보낼 공의회 결의 사항을 적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바울이 3장 1-6절에서 언급한 먹으로 쓴 추천서를 거론하고, 석비에 쓰인 십계명과 율법조문을 자궁하는 옛 언약의 일군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은 에비온파에 속한 유대인이다. 신약성서에 에비온파의 활동이 잘 드러나 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교회까지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1절)고 가르쳤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교회에 쟁론이 벌어졌다. 이에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교회에 보내 사도들의 판결문을 받아오게 하였고, 51년경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

15:5)고 주장하였다. 이 같이 주장하는 에비온파가 안디옥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교회와 고린도교회를 들쭉서놓고 있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배경이다.

바울의 선교방법과 전도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 났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이 에비온파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들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수차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보고를 받고 인정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이 에비온파이거나 에비온파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인들과 동일한 선민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 경외자’ 또는 유대교의 절반 개종자 정도로 받아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적대자가 예루살렘의 추천서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예루살렘교회의 승인서가 아니라 에비온파의 승인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바나바 및 다른 유대인들조차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였다(갈 2:12-13). 이런 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거짓 사도’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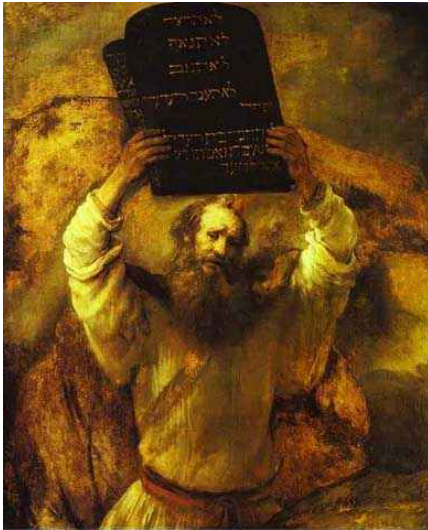
바울과 디모테와 디도는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추천서가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고린도교회를 세운 개척자요 사역자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도와 디모테를 위해서 글을 쓴 것은 특별임무 때문이었지,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2절)고 하였다. 고린도교회야말로 그 어떤 추천서보다 가장 확실하게 바울일행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추천서요, 율법서처럼 가죽이나 십계명처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쓴 것이었다(3절). 또 바울은 자신들이 에비온파가 자궁하는 옛 언약의 일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일군으로서,

죽이는 율법조문으로 사역하지 않고, 살리는 영으로 한다고 차별화 시켰다(6절).

39. 화해의 복음(고후 3:7-18)

모세와 옛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계약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희망(Ha-Tikvah)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꺼내려는 장면
<렘브란트, 1659년, 세계은행 국립미술관 소장>
가신교 화가였던 렘브란트조차 머리카락을
말아 모세의 머리에 붙이난 것처럼 묘사하였다.

한 것을 들어준 것이다. 옛 언약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언약을 지칭한 말로써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 하나님께 희망했던 것은 지상 가나안땅과 민족해방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하신 것은 계명들(토라)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희망한 땅과 해방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새 언약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을 지칭한 말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희망한 것은 하늘 가나안땅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하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희망해온 것은 문자적이고 유한하고 일시적인 땅에 속한 것이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해온 것은 영적이고 영원하고 무궁한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옛 언약을 예수님과 새 언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인식해왔다.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든 모세
후세페 데 리베라, 1591-1652, 스페인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6:9), ‘좋은 소망’(7:19), ‘더 좋은 언약’(7:22), ‘더 좋은 약속’(8:6), ‘장차 나타날 좋은 것’(10:1)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미리 세우신 ‘더 좋은 계획’에 따라(11:40) 지상의 것을 희망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을 희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 가나안땅에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놓으셨다(11:16)고 밝혔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14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서 이 ‘장차 나타날 좋은 것’ 곧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인장과 보증금의 성격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마치 구름기둥이 광야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상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가나안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또 바울은, 본서 2장 17절과 4장 2절에서, 자신들은 새 언약의 일군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처럼 간교하게 행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군답게 진실하게 행하며, 진리를 밝히 드러낸다고 자부하였다.

모세 말들의 영광

바울은 옛 언약이 주는 희망과 새 언약이 주는 희망의 차이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보았다. 바울은 옛 언약의 성격을 육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으로써 돌판에 먹으로 쓴 편지(3절), 죽임의 일

을 하는 율법조문(6절)이라고 하였고, 율법조문으로 일하는 일군(6절)과 직분에 관하여는 스스로 갖는 만족(5절), 율법조문의 직분(7절), 정죄의 직분(9-11절), 없어질 영광(7절), 일시적인 영광(9-11절)이라고 하였다. 새 언약의 성격에 관하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2-3절), 살림의 일을 하는 영(6절)이라고 하였고, 영으로 일하는 일군(6절)과 그 직분에 관하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족(5절), 영의 직분(8절), 의의 직분(9-11절), 영원한 영광(8절), 더 큰 영원한 영광(9-11절)이라고 하였으며, 더 큰 영광이 도래함으로써 과거 일시적으로 영광되었던 것은 사라지게 되었다(10절)고 하였다. 또 장차 없어질 것에도 영광이 주어졌다면, 영원한 것에는 더 큰 영광이 주어진다(11절)고 하였다.



십계명 돌판을 받는 모세(사갈, 1952년)
20세기의 대담적인 화가이자, 유대인이었던 사갈은 모세를 그린 모든 그림에 뿔 모양의 광채를 그려넣었다.

모세 얼굴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으로써 그 성격이 육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었다. 출애굽기 34장 29-32절에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 부분을 주후 405년에 라틴어개역을 완성한 제롬은 “얼굴에 뿔이 돌아있었다”고 번역하였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읽기에 따라서 이곳에 쓰인 히브리어 자음 QRN은 명사일 때, ‘광채’(카란) 또는 ‘뿔’(케렌)이 되고, 동사일 때, ‘빛을 발하다’(카란) 또는 ‘뿔이 돋다’(케렌)가 된다. 이 부분이 뿔로 번역된 라틴어 불가타(Vulgate) 성서는 1960년대까지 가톨릭교회의 유일무이한 공식 개역성서였다. 따라서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유럽의 예술가들이 모세를 조각하거나 그릴 때 머리에 돋아난 뿔이나 뿔 모양으로 뻗어 나오는 빛을 덧 붙였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를 모세의 “얼굴이 뽕 모양으로 빛났다”로 이해한다. 뽕과 광채는 신적 영광과 힘(권세) 또는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었다. 모세는 평상시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베일을 벗었다. 모세가 백성 앞에 서서 말할 때 베일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평소에 베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이 모세를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모세 얼굴의 베일



방화로 소실된 갈릴리 호숫가의 외영이거기년 교회당
2015년 6월 17일 발생된 이 화재는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며, 그들은 출입문 쪽에
"가짜 신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낙서를 남겼다. 영광 곧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
이고 잠정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영원하고 절
대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바울과 기독교를 탄압하였고 지금도 그
같은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모세 얼굴의 베일은 무지와 완고함의 상징이었다. 바울이 13 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고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얼굴에 베일을 썼지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므로 베일을 쓴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세 얼굴의 영광 곧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바울과 기독교를 탄압하였고 지금도 그 같은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유대교인들이 ‘희망’(Ha-Tikvah)했던 가나안땅과 해방의 영광은

일시적이었다. 그들이 주권을 누린 기간은 1천년이 못됐지만, 주권을 빼앗긴 기간은 3천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들은 조상대대로 희망했던 가나안땅과 해방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자국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폭탄을 소포로 보내 상해를 입히곤 한다. 또 2015년 6월 17일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오병이어기념교회당에 불을 질렀고, 출입문 안쪽 벽에 “가짜신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낙서까지 남겨놓았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구약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모세 얼굴의 베일 때문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바울은 “그 수건은” 곧 완고한 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14절)고 하였다. 또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15절) 때문에 일시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 그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나중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모세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얼굴에 베일을 썼지만, 그 베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벗겨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15-16절)고 하였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유대인들이 지난 2천 년간 끔찍한 불행을 겪게 된 것은 유대교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진리에 사로잡혀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기독교 진리를 배척한데서 비롯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18절에서 영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유함을 받아 무지의 베일을 벗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 나날이 성화되어 큰 영광에 도달할 자들이며,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영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변증하였다.

40. 화해의 복음4(고후 4:1-18)

하나님의 형상

바울은 단언하기를,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처럼 간교하게 행하거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하게 행하며, 진리를 밝히며,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림과 세움의 일을 하는 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이고, 그 직분이 영과 의의 직분이기 때문이며, 그 바라는 바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4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에페소스의 아데미 신전의 전사(by Roger Pay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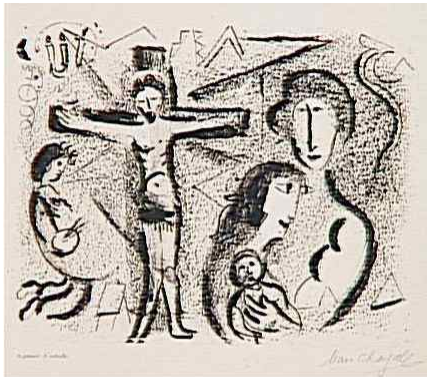
바울은 하늘 가나안 땅과 영생에 관한 복음이 밝히 드러나 있지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들이 완고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하였다(3절).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4절)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롬 8:29) 다름 아닌 당신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바울은 하늘 가나안 땅과 영생에 관한 복음이 밝히 드러나 있지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들이 완고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하였다(3절).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엡 5:1)고 권한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권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 12:2)을 이루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능케 하는 인성을 말한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간들에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영과 의의 직분을 가지고 영으로 일하는 일군답게 살림과 세움과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가족(사탕, 1959, 석화, 프랑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움과 살림의 하나님의 형상임을 표현하였다.

의 형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골고다언덕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곧 세움과 살림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하였다.

질곡 속의 보화

바울이 진실로 바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다(빌 3:10). 그렇게 함으로써 바

울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 더 좋은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하였다. 10-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바로 그의 이런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주 되신 것과 자신들이 그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였고(5절),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6절)고 하였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 엄청난 보화(속사람)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겉사람)에 담겨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심히 큰 능력,” 곧 육신의 생명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 더 좋은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2010년 7월 8일자 CNN 발표에 의하면, 질그릇에 담긴 52,503개의 로마시대의 주화가 4월 11일 영국 남서부 서머셋 주 프롬(Frome)의 밭에서 병원 요리사로 일하는 데이브 크리스프(Dave



질그릇 속의 보화(주후 253-305, 영국 서머셋 박물관)
영국과 프랑스 북부를 통치한 로마황제 카라우시우스(carausius, 주후 286-293년) 시대의 매장물. 질그릇 속에 60억 원어치나 되는 주화 52,503개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주화는 카라우시우스 케티벤투스(c. Adventus) 은화 데나리온이다.

Crisp)의 금속 탐지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이들 주화 가운데 766개에 주후 286년부터 293년까지 현 영국과 프랑스 북부지역을 통치했던 로마황제 카라우시우스(Marcus Aurelius Carausius)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다. 또 2012년 7월 10일자 뉴스에 의하면, 텔아비브대학교와 이스라엘 자연 및 공원 관리국(Israel Nature and Parks Authority) 발굴팀이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고대도시 아르스프(Arsuf) 요새에서 주후 13세기에 십자군의 호스피탈 기사단이 질그릇에 담아 숨겨둔 108개의 파티마(Fatimid) 왕조의 디나르 금화, 5억 7천만 원어치를 발굴하였다.

심히 큰 능력



질그릇 속의 보화(주후 13세기, 이스라엘 아르스프)
십자군의 호스피탈 기사단이 아르스프(Arsuf) 요새에 숨긴 108개의 디나르 금화. 파티마(Fatimid) 왕조가 주조한 것으로써 5억 7천만 원어치에 해당된다.

바울이 언급한 질그릇(겉사람) 속의 보화(속사람)는 없어질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영적인 보화, 하늘의 보화, 영원한 보화, 더 영원한 영광의 보화를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말한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을 지닌 새 언약의 일꾼들은 8-9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10-11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몸에” 또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

타나게 하려 한다”고 피력하였다. 또 12-13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토록 죽음에 가까운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기꺼이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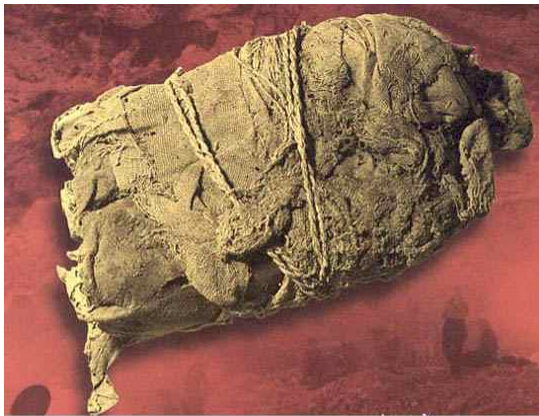
비록 바울이 지상에 속한 것과 육적인 것을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악하게 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질그릇)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보화)은 날로 새로워진다”(16절)는 말씀에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굴욕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 악해서가 아니다.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더욱 쪼아진다는 뜻이기보다는 세상을 하직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천상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무한한 것과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슬프고 애통한 일이겠지만, 14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 이유를 17-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고난이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가볍다는 것은 수고와 고난이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기보다는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질그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화)이어야 한다. 지상에서의 삶(질그릇)은 잠깐이지만, 천상에서의 삶(보화)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41. 화해의 복음(고후 5:1-10)

죽음을 삼킬 생명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6절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 걸 사람에게 담긴 속사람이란 표현을 썼다. 거기에 더해 바울은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을 삼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표현을 썼다. 여기서 질그릇, 걸사람, 장막 집은 땅에 속한 것들으로써 깨지거나 낡아지거나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다. 땅의 것들이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을 자연법칙, 엔트로피법칙, 제2열역학법칙이라고 부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 자연적인 것에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담는 것이다.



유대인 여성 바바사(Babatha)의 문서 파우치(주후 96-134년)
1960년 사해인근 엔게데의 '편지 동굴'로 알려진 곳에서
혁명가 바르 코크바의 서신들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혼인,
소유물 이전, 후견인에 관한 법적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울은 깨지는 질그릇 같고, 낡아지는 걸 사람 같으며, 무너지는 장막 집과 같은 땅의 것들을, 영지주의자들 처럼, 벗기를 사모하지 않고 덧입기를 사모하였다(2절). ‘덧입기’란 입고 있는 옷 위에 걸쳐 입는다는 뜻이다. 땅에 있는 장막 집을 벗지 않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껴

입는다는 뜻이다. 깨어질 질그릇 속에 영원한 보화를 담고, 날로

남아지는 겉사람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담는 것은 영적 부활과 현재구원을 말한 반면, 무너질 장막 집 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은 주님 재림의 때에 있을 육체부활과 미래 구원을 말한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깨지고 남아지고 무너질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들이 고집한 땅과 해방과 같은 세상 것들에는 영적인 보화가 없고, 영원히 살 속사람이 없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없는 겉껍데기였다. 반대로 영지주의 헬라인들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질그릇, 겉사람, 장막 집으로 표현된 세상의 것,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하여 벗고자하였다. 반면에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하늘의 것을 담고, 유한 것에 영원한 것을 담고,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담고자하였고, 깨지고 남아지고 무너지고 말 육체에 영원하고 영화로운 육체를 덧입고자하였다. 이것이 복음주의자가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2-4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상반된 말씀이다.

인간과 보습금 대신 성경



이집트 엘레판티네에서 발견된 인봉된 주전 5세기 파피루스 문서
엘레판티네는 바빌론에 유다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곳이다. 이 문서구리미는 1907-08년에 발견되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군으로서 어둠이 빛에, 무질서가 질서에, 죽음이 생명에 삼키는 일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비록

육신은 나날이 깨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져가지만, 영혼은 나날이 빛나고 새로워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릴 것을 믿었다. 그리고 ‘육체’라는 우리의 장막 집이 기어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주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겪은 그 듯한 고난과 죽음조차도 애석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쉬며 영광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기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확고한 것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금과 인감으로 주셨다고 하였다(5절). 바울은 ‘장차올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였고(엡 1: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고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상속(기업 혹은 유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금과 인감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엡 1:13-14)고 하였다.



바울은 5절에서 상속(기업 혹은 유업)이란 말 대신에 ‘장차올 것’이란 표현을 썼다. 우리말 성경은 5절을 “이것을(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로 번역하였는데, 영어성경은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로 번역하였다. ‘장차올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화로운 것으로써, 하나

바스울의 아들 고달라의 인장(상)과 셀레마의 아들 유갈의 인장(하)이 석조건물에서 발견되었다(렘 38:1).

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엡 2:8) 이 약정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성령님이 보증금과 인감으로 표현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무신론자들은 “신은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외친다. “진실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외친다. 또 성적 소수자들은 “신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라”며 무지개빛깔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과연 그들의 삶이 무지개빛깔처럼 아름다울까? 그들이 외치는 자유지상주의가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까? 오히려 신이 없다가나 내세가 없다는 발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잘 깨지는 질그릇 같고, 낡아지는 걸사람 같으며, 무너지는 장막과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깨지지 않고 영원한 보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할 것이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 간에 그 몫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IHSUS XRISTUS BASILEU BASILE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S XS BASILEU BASILE(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C XC NIKA(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비잔틴시대의 주화(주후 969-1081년)
 항제 대신에 복음서를 안고 계시신 예수님을 새겼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모조리 있는 자는 저를 사랑하고 믿는 자는 저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핍박하며 멸망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참아내는 자는 천국에서 보응을 받으리니 내가 아버지께 그를 위하여 보증을 서겠습니다. (골 3:12-14)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비잔틴시대였던 주후 969-1081년 사이에 주조된 주화들을 보면, 전면에는 전통적으로 들어가던 황제들의 화상대신에 복음서를 안고 계신 예수님을 새겨 넣고 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황제의 황제,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깨닫고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치시킨 것이다. 그리고 뒷면에는 주로 십자가를 새기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IhSuS XRISTuS bASILEu bASILE 또는 줄여서 IS XS bASILEu bASILE) 혹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를 새겨 넣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승리자로 인정하는 자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처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세상의 것,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지주의 헬라인들처럼 세상의 것,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은 무시하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것에 하늘의 것을 담고, 유한 것에 영원한 것을 담고,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담는 일에 헌신한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여 정죄하기보다는 상반된 그것들을 통합하여 복음주의를 만들어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시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 육이 영을 담는 통전적인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육은 깨지면서, 낡아지면서, 무너지면서, 영은 더욱 빛나고 새로워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이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져 사망하게 될 것을 삼켜버리게 될 것을 믿었다.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힘입어 율법주의(正)를 영지주의(反)와 통합하여 복음주의(合)를 변증법적으로 도출해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교들과 차별화하고 성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42. 화해의 복음6(고후 5:11-21)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새 언약의 일군으로서 바울은 품삯을 바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처럼 간교하게 행하거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군답게 진실히 행하며, 진리를 떳떳이 드러냈다. 바울이 진실로 바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 더 좋은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하였다. 그가 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늘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군으로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엠블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은 극우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것을 전파하였다. 게다가 바울은 최후심판을 믿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전파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최후심판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려고 전도에 힘썼다. 바울은 하나님도 아시는 이 같은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랐다(11절). 그러므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군으로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12절)처럼 자기자랑을 늘어놓거나 대접을 받으려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수고하였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는 말로써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또 다시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세우려고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순수함과 진실함과 헌신함을 사랑삼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기를 바랐다(12절).

그러면 바울이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12절)은 누구였는가? 바울은 그들이 16절에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던” 자들이란 말로써 율법주의 유대인들이란 점을 암시하였다. 철저한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철저히 거부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에 고착되어 있었다. 바울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깨지는 질그릇, 낡아지는 겂사람, 무너지는 땅의 장막만 고집하는 자들이었고, 그것들 속에 담아야할 하늘의 영원한 보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빛이 나는 속사람,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던 자들

조상대대로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에만 집착해온 민족적 배타주의 유대인들 가운데 극우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영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아랍인들을 향해서 일 년에도 수백 혹은 수천 건 씩 테러를 일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이 극우 유대인들의 테러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에 죽음을, 예수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극우 유대인집단인 프라이스 태그(Price Tag)가 2012년 2월 20일 예루살렘의 침례교회당 외벽에 남긴 스토크레이 낙서이다.

다. 여기서서는 그들이 남긴 낙서내용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2012년 2월 20일 예루살렘에 있는 한 침례교회당 외벽 여기저기에 스프레이 낙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에 죽음을, 예수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이었다. 또 2013년 5월 31일 예루살렘의 성모승천성당의 외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숭이다”라고 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또 2014년 5월 8일 예루살렘의 루마니아 교회당 외벽에서는 “프라이스 태그, 예수 쓰레기. 유대인에게 다윗 왕을”이라고 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철저한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부해왔고, 고토회복과 민족해방만을 희망해왔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보화, 속사람,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대한 희망이 없는 대신 깨지는 질그릇, 남아



“그리스도인들 원숭이”라고 쓴 스토크레이 낙서

극우 유대인집단인 프라이스 태그(Price Tag)가 2013년 5월 31일 예루살렘의 성모승천성당의 외벽에 남긴 것이다.

아지는 겉사람, 무너지는 땅의 장막 집에 대한 희망만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과거 수천 년간 깨져버리고, 남아져버리고, 무너

져버린 땅의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영지주의 헬라인들은 깨지는 질그릇, 낡아지는 겂사람, 무너지는 땅의 장막, 곧 육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땅의 것들을 죄악시하였고, 그림자로 보았으며, 갇힌 동굴, 갇힌 감옥, 갇힌 무덤에서 벗어나듯 그것들에서 벗어나 고자 하였고, 그 속에 담아야 할 하늘의 영원한 보화, 속사람, 영원한 빛의 세계만을 실체로 인정하여 추구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깨지는 질그릇, 낡아지는 겂사람, 무너지는 땅의 장막을 영지주의자들처럼 죄악시하지 않았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집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질그릇에 보화담기(4:7), 겂사람에 속사람심기(4:16), 땅의 장막 집에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히기(5:1-4)를 추구하였다.

화해의 복음



“프라이스 태그, 예수 쓰러기. 유대인에게 다윗 왕을”
극우 유대인집단인 프라이스 태그(Price Tag)가 2014년 5월 8일 예루살렘의 루마니아 교회당 외벽에 남긴 스토크레이 낙서이다.

바울은 자신들이 품삯을 바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사는 장사꾼처럼 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는 이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이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외모로 하지 아니한 이유를 14-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인 그 사랑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15절)고 하였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서 6장에서 3P, 곧 죄로 인한 형벌(punishment), 죄의 권세(power), 죄의 실재(presence)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자원함으로 순종의 종(16절), 의의 종(18절), 하나님의 종(22절)이 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일인 생명과 빛의 일을 하게하셨다. 우리가 마귀의 일인 죽음과 어둠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열어주셨다(롬 5:10-11).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을 일컬어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18-19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는 사신의 직분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려고, 곧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사신의 직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맡기셨다고 설교하였다. 여기서 화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말한다.

20절에서 “사신”(사절, 대사)으로 번역된 ‘프레스뷰오펜’(presbeuomen)은 장로(presbyter) 혹은 연장자(elder)란 말을 내포하고 있다. 교회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감독하는 목사(pastor)를 뜻하였다(행 20:28). 그런 이유로 장로(pastor)를 설교자(preacher), 전도자(evangelist) 또는 목회자(minister)와 구별 짓는 교회들이 많고, 일부 교회들에서는 목회자가 장로를 겸직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비취볼 때, 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신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43. 화해의 복음(고후 6:1-13)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한다. 6장 4절의 “하나님의 일꾼”은 3장 6절의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그리스도의 일꾼,” 로마서 15장 16절의 “예수의 일꾼”과 동일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롬 15:16)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고전 4:1),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5:20),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6:1)를 말한다. 반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11:4)을 전한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한 자들로서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속이는 일꾼”과 “사탄의 일꾼”(11:13-15)들이었다. 바울이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이들 “속이는 일꾼” 또는 “사탄의 일꾼”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아 그들과 함께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



시간의 신 크로노스(Chronos)
수염은 태고, 날개는 시간의 덧없음,
모래시계는 종말, 낫은 심판, 아이는
시간이 삼키고 딸 죽음을 상징한다.

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은 같은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고전 2:2)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골 1:14, 엡 1:7),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엡 2:19)을 말한다. 이 엄청난 복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고전 2:1)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고전 2:4)로 된 것이 아니고, 에비온주의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과 영지주의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고전 2:2)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이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꺼려했고,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들이 희망한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가져다줄 영웅적 메시아나 헬라인들이 희망한 영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민족색깔남녀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는 당신의 비밀(mysterion)을 만천하에 공개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의 역사인식(1)

바울이 인식한 역사는 이렇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유대인들이 희망해온, 결국은 또 다시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고 말,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과 인류구원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것이다(6:2, 사 49:8). 이 ‘때’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바울의 역사인식이었다.

바울 당대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하였다. 우주역사 또는 인류역사처럼 객관적 보편적 양적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로 이해하였고, 정해진 시간 또는 특별한 시간처럼 개인과 관련된 주관적 구체적 질적 시간을 ‘카이로스’(kairos)로 이해하였다.



프란체스코 사르비아티(1510-63)의 카이로스
별거숭이 몸이 앞으로는 길지만, 뒷머리는
없으며, 등과 발뒤꿈치에 신속하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천칭과 칼이 들려
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신속히
판단 결정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프란체스코 사르비아티(Francesco Salviati, 1510-63)가 그린 ‘카이로스’를 보면,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가 없고, 등과 발뒤꿈치에 순간속도를 높이기 위한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천칭과 칼이 들려 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신속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확한 시간’ 또는 ‘기회’로도 번역될 수 있는 카이로스(kairos)는 앞머리카락을 길게 늘어트린 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천칭을 들어대며 값을 치른 후에 가져가라고 말한다. 값을 따지며 망설이는 순간 시간은 순식간에 돌아서 날아가 버린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손을 뻗어봤자 뒷머리가 민머리인데다가 별거숭이 몸이어서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회, 남녀노소 빈부귀

천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나안 땅의 시민권자가 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있다. 크로노스를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 그에게는 긴 수염과 날개가 있고, 손에는 모래시계와 낫이 있으며, 양발사이에 아이가 있다. 여기서 수염은 시간의 태고성, 날개는 시간의 덧없음, 모래시계는 역사의 끝, 낫은 추수 심판, 어린아이는 시간이 삼키고 말 죽음을 상징한다. 모래시계가 멈추듯이 역사는 멈춰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의 역사인식(2)

바울은 자신의 품행이나 인격 때문에 복음이 배척당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3절),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4-5절)을 참아냈고, 그런 중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로 무장하여(6-7절) 충실하게 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광과 욕됨”을 한 몸에 받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한꺼번에 들었다(8절). 그러나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8-10절)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기업의 총수들에게 충실했던 비서들이 CEO로 승진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 충실했던 일꾼들이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이 엄청난



다고 확신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

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권면하였다(11-13절).

바울은 “나타날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또는 ‘장차 올 세상’(Olam Ha-Ba)에 대해서 후천년설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바울의 대적자였던 에비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왕국의 문자적 회복을 희망하였으므로 시대구분론(세대주의)적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부정하였으므로 전천년설적이었다. 바울은 깨어질 질그릇 속에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담고자 하였다. 또 무너질 장막 집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희망하였다. 질그릇 같고, 겉사람 같고, 장막 집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21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눅 5:38)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으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것이다(사 11:9)고 한 이사야의 예언과도 같다. 그러므로 지금은 장막 집이 하늘의 처소로 덧입히울 때까지 질그릇에 하늘의 보화를, 겉사람에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담아야 할 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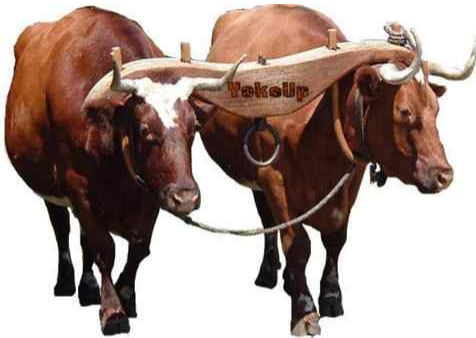
44. 화해의 복음8(고후 6:14-18)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1-13절에서 화해를 권한 바울은 14-18절에서 분리를 권하였다.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헌신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민족성별 빈부귀천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여 이 세상이란 질그릇과 겉사람 안에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담고자 하였고, 중국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덧입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품행이나 인격 때문에 방해받고 트집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였고,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3절),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4-5절)을 참아냈으며, 그런 중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로 무장하였다(6-7절).

그렇다고 바울이 세상을 인정하거나 세상에 안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헌신하였다.

14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권하였다. 멍에



한 겨리 소의 멍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권면하였다(고후 6:14).

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 소나 나귀 등의 목에 가로 얹는 막대를 말한다. 또 멍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짝을 이루어 보조를 맞춰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도구를 말한다. 모세 율법은 소와 나귀를 겨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힘의 차이가 있는 동물들이 한 멍에를 메는 것을 금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신 22:9-10)고도 하였다.

멍에란 말은 그 속성 때문에 대개는 속박과 예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대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멍에로 생각하여 그 결박을 끊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 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렘 2:20). 베드로도 율법을 멍에로 언급하면서 이르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행 15:10)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복음을 멍에로 언급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고 하셨다. 바울은 죄의 속박을 일컬어 “종의 멍에”(갈 5:1)라고 하였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바울이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떨어져 살거나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말고, 생활도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이든, 무슨 사업이든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사역에 힘쓰는 자들을 일컬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였다.

둘째,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멩예를 메는 것은 마치 소와 나귀가 같이 멩예를 메는 것과 같아서, 윤리도덕과 영적 기준에서 조화롭지 못하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어렵다.

셋째, 멩예는 고정된 틀이어서 약자에게 불리하고, 약자가 끌려가는 양상을 만든다. 신자가 고정된 틀, 즉 기준과 잣대가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불신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신자가 약하고 불신자가 강한 경우, 고귀한 믿음의 기준과 가치를 잃게 될 수 있다.

넷째, 불법이 의가 되게 하고,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생명의 일, 살림의 일, 빛의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



벨리알(Belial)을 왼쪽 팔뚝에 타투한 모습

들과 멩예를 함께 멜 경우,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나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거나 하면, 공격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멩예를 함께 메

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섯 가지 수사학적 표현을 동원하였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14-15절). 여기서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은 함께 할 수 없고, 사귄 수 없으며, 조화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며, 일치되지 않

는다고 수사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화목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반되어 밀어내는 관계, 빛과 어둠처럼, 별이 들면, 어둠이 물러가고, 땅거미가 지면 별이 물러가듯이, 한쪽이 다른 쪽을 몰아내야하는 관계이므로 함께 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다. 법과 불법 또는 전쟁과 평화가 조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이미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말로 이들이 조화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제2차 유대-로마전쟁(주후 132-135년)
당시 혁명가 바르 코크바가 주도한 동진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전면에 사하함의
얼굴을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을 새겨넣었다.

벨리알(Belial)은 루시퍼(Lucifer) 다음으로 창조된 두 번째로 높은 천사였으나 루시퍼와 함께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는 일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였다고 전한다. 이 벨리알은 기독교시대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악마로서 구약성서에서는 가치 없는 자, 불량배, 야비한 자, 사악한 자 등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삿 19:22, 삼하 20:1). 벨리알은 <열두 족장들의 유언>과 <쥬빌리>(희년)와 사해문서와 같은 유대문헌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쥬빌리>에서는 하나

님께 반항한 자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벨리알의 아들들”로 기술하였다. 사해문서(1QM)에서는 벨리알이 빛의 아들들의 지도자인 미카엘의 맞수인 암흑의 아들들의 지도자로 등장한다. 15절에서는 벨리알이 그리스도에 상반되는 마귀로 언급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미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성전 돌담에는 “이방인은 담 너

어 성전영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다가 체포되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인 경고석이 세워져있었다. 미문의 출입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허용되었

지만, 여성들과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미문 안쪽 공간인 ‘여성의 뜰’까지만 허용되었다. 그리고 계명의 아들들로 일컬어지는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



은 열다섯 개의 돌계단 위에 세워진 니카르노

이방인의 성전영내 진입을 금하는 경고문
예루살렘에서 1871년에 발견되었으며, 터키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문에 “이방인은 담 넘어 성전영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다가 체포되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새겨졌다.

문 안쪽 공간인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더 안쪽 공간, 즉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제사장의 뜰’과 메노라와 떡상과 향제단이 놓인 성소는 당번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법궤가 놓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하루 대속죄일 때 들어갈 있었다.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던 유일무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명확한 경계선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어를 함께 메지 말라”는 바울의 언급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성전에 존재했던 차별의 경계선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요구되는 윤리도덕과 영적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다.

45. 화해의 복음(고후 7:1-16)

위로에 대한 약속을 끌어내는 믿음

참되고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6절) 분이시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떠돌이와 노예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자손대대로 가르칠 만큼 낙심이 정말 큰 민족이었다. 그들의 삶은 바울이 5절에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였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과 다툼과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믿음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끌어내고 성취시키는 능력이다.

약속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서 보듯이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상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



바울이 트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

고, 그것을 자기 우상화시킴으로써 그 속에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을 담지 못하였다. 반면에 바울은 이 땅에서의 안식은 결국 깨지고 날아지고 무너질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저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내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주셨음을 확신하였다. 바울은 구약성서를 인용하여 이미 6장 16-18절에서 7장 1절에서 말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레 26:12, 렘 31:1, 32:38)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삼하 7:14)고 하신 말씀이다. 민족성별색깔 노소빈부귀천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말씀이다. 바울이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자라고 말한 것이고,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는 바울의 권면이 성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빌 4:9)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는 말씀이다.

위로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키는 회개

바울의 권면은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의 예언활동처럼 회개와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3-4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정죄하려는데 있지 않고, 회개시켜 회복시키려는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에 금이 가고 충돌이 생긴 것은 성도들이 처음 고백했던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바알송



빌립보의 바실리카식 교회당 유적(후로 550년경)

배와 신전음행에 빠짐으로써 불행을 자초한 것과 같았다.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충돌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자들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권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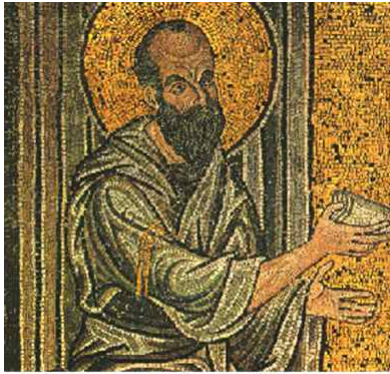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켜주셨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에비온파나 영지주의자들의 꾀에 빠져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님의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큰 혼란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크게 충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은 위로의 하나님의 성별된 공동체로 다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다. 바울의 ‘준엄한 편지’ 혹은 ‘눈물로 쓴 편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시기에 활동한 맨몸과 맨발의 예언자 이사야와 남왕국 멸망시기에 활동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생각나게 한다. 바울의 권면이 다름 아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활동 곧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의 종들의 예언활동은 회개와 회복과 세움과 살림의 일이었기에 늘 신령한 것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단자들의 사슬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바르게 세움을 입었다는 소식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곧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한 근심 때문이라고 하였다(9-11절). 성서 66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고, 위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희망한 가나안땅과 민족해방은 회개함으로써 회복된다는 것이 구약예언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다. 마찬가지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일관된 외침이었다. 사도

들과 선지자들은 구원을 언급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여기서 믿음과 회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이고, 신앙고백과 침례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행위이다. 신앙고백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이고 침례는 회개한 자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와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회심의 행위는 두 가지, 곧 믿음과 회개로 압축된다. 그리고 네 가지 과정은 모두 성령님의 개입으로 이뤄지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약속을 유지, 회복, 성취시키는 동력이다.

위로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기쁨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믿음위에 세웠다는 소



바울이 작성한 편지를 동역자들에게 내밀며 수신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

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라 불리는 화해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1장부터 7장까지로써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결론문구가 7장 5-16절까지이다. 이 화해의 편지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회개한 것, 고린도교회와 바울사이에 신뢰가 회복된 것, 디도가 교회로부터 사랑과 환대를 받고 돌아온

것에 고무되어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다. 이 위로와 기쁨을 바울은 ‘화해 복음’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글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이다. 이 글이 길어져 결론문구가 7장 5절 이후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화해 편지의 결론문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첫째, 바울과 디도에게도 육체의 약함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5절).

둘째,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디도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6절)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디도가 가져온 기쁜 소식으로 바울을 위로하셨고, 불안해하는 디도가 환대를 받게 함으로써 위로하셨으며, 고린도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며, 열정을 품게 함으로써 위로하셨다(7절).

셋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위로와 격려와 살



발립보에서 1975년에 발견된 팔각형 교회당 바닥 모자이크(주후 340년대). 바닥에 새겨진 모자이크의 내용은 이렇다: “주교 포르피리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교회당의 모자이크 바닥을 만들었다.”(Po[rphy]rios episkopos te[n k]entesin tes basilikes Paulo[u ep]oiesen en chr[ist]o).

림의 손 내밀기가 되지만, “세상 근심”은 비방과 비난과 죽음의 손가락질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근심은 위로와 격려와 살림의 손 내밀기였고, 대적자들의 근심은 비난과 비방과 죽음의 손가락질이였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준엄한 편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분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9절). 만일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비방과 비난과 죽음의 손가락질을 이어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10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교회로 하여금 뉘우침을 “간절하게 하며,” 옳음을 “변증하게 하며,” 불의에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하며,” 바울과의 재회를 “사모하게 하며” 바울의 가르침에 “열심 있게 하며,” 이단자들을 “벌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바울의 근심과 눈물로 쓴 편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린도교회의 근심에 위로와 기쁨과 안심과 신뢰와 회복과 살림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12-16절).

46. 하나의 믿음을 위한 선물(고후 8:1-15)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부조금 모금

고린도후서 8-9장은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금을 요청한 글이다. 자급선교를 우선시했던 바울이 이방인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져갈 선교헌금을 모아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모금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의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였다.

첫째, 주후 51년경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총회 때 안디옥교회의 대표였던 바울, 바나바, 디도는 예루살렘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선교협약을 맺고, 히브리파였던 그들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헬라파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였다(갈 2:9-10).

둘째,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금을 모은 것은 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와의 갈등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 선물은 유대교의 나사렛파와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유대교의 나사렛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로 끌어안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갈등의 원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함으로써 또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음으로써 값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바울의 복음주의와 가나안땅회복과 이스라엘민족해방의 조건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예루살렘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곧 에비온파의 꼬드김 때문에 안디옥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등에 변절자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대응했던 바울은 어떤 형식으로든 예루살렘교회와 불편해진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

다섯째, 바울은 이방인교회들이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영적인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롬 15:27).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교회들이 낸 부조금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영적축복을 되돌려주는 감사의 표시라고 믿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적대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안디옥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등에 몰래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에비온파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예루살렘교회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일곱째, 바울은 거액의 부조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엡 4:13)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동성찬 연보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본을 보인 부조금에 대해 소개하였다(1-5절).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지역 교회들을 통틀어 말한다. 이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은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아가야 지역보다 경제가 나빴다고 한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상황을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2절)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기복금을 받는 장면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2절) 하였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3절)하였으며,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4절). 또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 일행에게도 주었다(5절).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성도 섬기는 일’ 곧 구

제하는 일을 ‘은혜’ 혹은 ‘특권’으로 여길 정도로 자발적이었고 능동적이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바울 일행을 후원하였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 지역 교인들의 믿음과 실천은 다른 지역 교인들의 믿음과 실천의 잣대가 되었다. 따라서 8절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믿음과 실천에 뒤지지 않게 고린도 교회도 분발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특권에 참여하기를 권하였고, 그로써 그들의 진실한 사랑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랐다.

빌립보교회는 루디아, 간수, 점 귀신이 들렸던 여자 노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난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교회와 베뢰아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은 스포츠제전과 종교행사가 많고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고린도보다는 경제면에서 뒤쳐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에서 열여섯 차례나 기쁨을 강조하였듯이,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어 차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힌 후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기쁨이 넘쳤고, 구제와 선교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1절에서 이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불렀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모범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믿음이었고,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후하게 베푸는 믿음이었으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이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역설적인 믿음이었다. 바울은 이런 모범적인 믿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상호균등 혹은 상호보완의 원리

바울은 주후 57년 가을 무렵에 고린도후서를 썼고, 동년 말과 후년 초사이의 겨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15장 25절에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모금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부조의 목적을 ”평균케 하려 함“(13절)이라고 밝혔다. 바울은 부조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의 명예를 대신



클라우디우스 고티쿠스(Claudius Gothicus, 주후 268-270년)의 주화
 전면에 “황제, 클라우디우스 경건하고 유복한 통치자”(IMP CLAVDIVS P F AVGV)라고 새겼고, 뒷면에 “공정한 통치자(Aequitas AVGV)”라고 새겼다. 아에퀴타스는 공정한 거래와 정직한 상인의 여신으로서 손에 천평칭과 풍요의 뿔을 들고 있다. 일부 로마황제들은 홍보를 목적으로 주화에 “아에퀴타스 아우구스티”(공정한 통치자)를 새겨 넣게 하였다.

지 않고, 기부자와 수혜자가 피차 주고받음으로써 균등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

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상호균등의 원리가 상호보충의 원리를 밝힌 것인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조행위는 기부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소유권행사이고, 액수의 결정은 기부자의 전권이며(행 5:4), 타인이 강압할 수 없다.

둘째, 부조행위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써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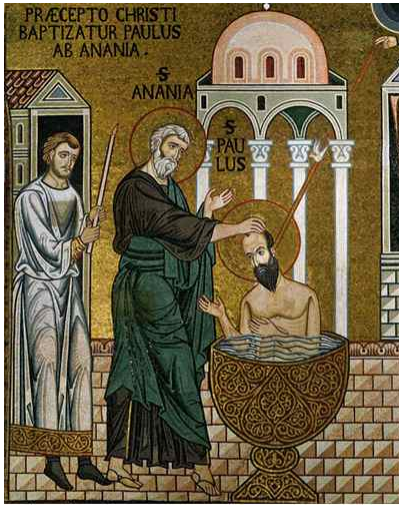
셋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할 마음을 품어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권하기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넷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움에 의존해야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자립에 힘써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의 상호균등 혹은 상호보충의 원리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생활 때 거둬들인 만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들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15절, 출 16:18).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조직은 크든 작든 천국에서나 가능하다. 이 상호균등 혹은 상호보충의 원리가 시행되었던 곳 가운데 쿤란공동체와 예루살렘교회가 있었고, 지난 2천 년간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선의의 시도들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났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오늘날에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보충에 힘쓰고 있고, 수많은 기부자들과 선교단체들이 이 균등과 보충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47. 하나의 믿음을 위한 선물(고후 8:16-24)

고린도교회에 파송된 자들



바울이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모자이크, 주후 1140년)
 시칠리아 팔레르모(Palermo)의 카펠라
 팔라티나(cappella Palatina) 교회당의 성화

디도는 마음이 착하고 신실하며 총명하고 열정을 가진 일군이였다. 디도는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의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다. 바울의 서신을 들고 고린도교회에 왕래하였을 뿐 아니라, 바울로부터 모금을 장려하라는 임무를 띠고 재차 파송을 받았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바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자원하였다(16-17절). 이는 디도가 스승인 바울과 동일한 뜻과 목표를 갖고 열성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23절)고 칭찬하였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가기로 한 두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바울은 추천서에서 첫 번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요”(18절), 주의 영광과 모금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였다(19절, 새번역). 두 번째 사람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일꾼으로 여러 번 확인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22

절). 19절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가져갈 때 우리와 함께 갈 자로 교회들로부터 뽑힌 사람이다. 이 은혜의 모금 프로젝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열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이다.”이다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세 사람을 선정하여 고린도에 보낸 것은 모금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모금액이 거액이어서 그 무게와 운반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화폐나 은행제도 및 송금제도가 없었던 때라 무거운 주화들을 여러 개의 가죽파우치에 담아 여러 사람이 나눠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환전은 필요치가 않았다. 로마 돈은 모든 속주들에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오해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비방 받을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20-21절).

바울은 거액의 부조금을 모으고 있었다. 이것은 자칫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하려 한다는 오해와 비난을 살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고전 16:3)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부조금이 모두 모아졌을 때, 바울은 그것을 여러 지방인교회의 대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교회에 전달되게 하였다(23절).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주후 58년 봄에 바울은 부조금을 들고 배를 이용하여 수리아로 바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아시아를 거쳐서 가게 되었다. 이때 아시아까지 함께 간 자들이 있었는데,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렸다.



설교하고 있는 바울

누가의 진술을 유추해 보면, 이들 7인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머물다가 바울과 헤어져 다시 만나기로 정한 드로아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7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부조금과 편지를 운반해온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 지역명이 나온 이유가 그 때문이었을 것이

다.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교회 앞에서 이방인교회들의 현황을 보고할 지역교회들의 대표들이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거둔 구원의 열매들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들 7인이 모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확실치 않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 유월절을 보낸 후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였고, 먼저 도착한 7인과 합류한 후에 일주일 그곳에서 보냈다. 이들 중에서 바울과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드로비모뿐이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힌 지 2년 후에 네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 같은 배에 승선한 사람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였다(행 27:2). 드로비모도 이들과 함께 가기로 했으나 병이 들어 밀레도에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딤후 4:20).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교회에 추천한 사람들은 아리스다고와 드로비모였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부조금 모금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디도를 파견하였고, 디도와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이미 모금프로젝트를 완수한 두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모금프로젝트를 끝낸 다른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도 고린도에 모였던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들은 각각 자기들이 대표한 지역교회가 모아준 돈과 편지를 지참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모인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간 과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도와 함께 온 두 지역 대표자들과 그 후에 합류한 다른 지역 대표자들이 가져온 부조금과 편지는 고린도교회를 분발시키는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그의 제자들(동역자들)

시계바늘 방향으로 바울, 디도, 아리스타고, 드로비모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기서는 디도, 아리스타고, 드로비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먼저 디도는 안디옥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후 51년경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총회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의 대표로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디도가 참석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의 대표자, 곧 이방인 선교 열매의 산 증거를 사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후 디도는 바울이 자신의 동료요 동역자로 생각할 정도로 주의 일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였다.

디도는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디모데보다 연장자로서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피를 받은 혼혈인이었다면, 디도는 순수 헬라인 혈통이었다. 고린도교회의 공동개척자였던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파송되었을 때, 바울을 적대하

는 유대인 에비온파가 교회에 숨어들어 혼탁시켰으나 이를 디모데는 막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에베소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를 짧게 방문하였으나 사태가 심각하여 어찌해보지 못하고 돌아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어 전달케 하였다. 디도는 디모데와 바울이 막지 못한 사태를 능수능란하게 수습하고 바울이 기다리던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준 인물이었다. 이뿐 아니라, 디도는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가 상호동등하고 독립된 그러나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표명하기위해서 추진한 모금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그것을 고린도에서 시작한 사람도 디도였고(6절), 성공시킨 사람도 디도였다(롬 15:26).

디도와 함께 고린도에 동행한 두 사람은 아리스다고와 드로비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고(행 21:29),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에 누가와 함께 승선했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행 27:2).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다고는 주후 57년 중반 바울이 에베소사역을 마칠 무렵에 발생한 은장색들의 폭동 때 마케도니아 출신 가이오와 함께 연극장에 끌려갔었고(행 19:29),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로 뽑힌 인물이었다. 주후 60년경에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에 누가와 함께 승선했다.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아리스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것으로 언급되었고, 전설에 의하면, 주후 67년경 네로 때 순교하였다. 드로비모는 시리아의 에테사 출신으로서 에베소교회의 대표로 뽑혀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전달한 사람이었다. 드로비모는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성전영내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이 오해로 인해서 바울은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옥살이를 해야 했다. 드로비모도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마찬가지로 주후 67년경 네로 때 순교하였다고 전한다.

48. 하나의 믿음을 위한 선물(고후 9:1-15)

성도를 섬기는 일로써의 부조금

예루살렘교회에 보내는 부조금은 선교사역의 하나로써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1절). 성도를 돕는 일이었다. 성도들에게 베푸는 봉사요 사역이었다. 바울은 1절에서 부조금을 ‘섬기는 일’(diakonia)이라고 하였고, 5절에서는 ‘연보’(eulogia), 12절과 13절에서는 ‘봉사의 직무’와 ‘직무’(diakonia)라고 하였다. 바울은 또 이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3절에서 각각 ‘연보’(logia)와 ‘은혜’(charis)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조금과 연보 등으로 표현된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며, 세움(살림)의 사역이다. 교회와 성도를 헌금으로 섬겨야 할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사역에 전무하는 일꾼들의 생활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며, 각 기관의 활동을 재정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학교 및 각종 선교단체와 사역자들을 재정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운화가 없던 고대에 배를 운송하던 도로, 디올코스(Diolkos)

넷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돌봐야하며, 이들을 섬기는 NGO 단체들을 재정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도들의 재정지원을 받는 하나

님의 일꾼들은 그들을 후원하는 성도들의 대사로, 성도들을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섬기는 일 곧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고린도교회는 이 섬김의 일을 일 년 전부터 준비하였다(2절). 성도를 섬기는 일은 연간 수입과 지출 계획 즉 예산과 결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회와 성도의 열성과 모범은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를 분발하게 만든다. 고린도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은 마케도니아교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 당시 마케도니아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울이 세 명의 대리인을 고린도에 파견한 것은 일 년 전부터 준비한 모금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3절). 고린도교회는 디도와 함께 파견된 두 사람의 교회들, 곧 모금프로젝트를 이미 끝낸 타 지역교회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고린도교회의 열심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분발하게 만든 것과 동일하다. 이점에 있어서는 갈라디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편지로 각 교회의 모금상황을 전해 주면서 피차 분발하도록 격려했다.

축복의 선물로써의 부조금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일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신과의 불편해진 관계로 인해서 중단된 모금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5절)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첫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법칙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6절).

둘째,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7절).

셋째, “하나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7절).

넷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8-9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주심에 의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였다.

첫째, 하나님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10절).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므로...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이다.”(11절)



주전 41-42년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대신관 공화국의 권력”(TI CLAVD CAESAR P M TR P)이라고 새겼고, 뒷면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PACI AVGVSTAE)라고 새겼다.

셋째, 함께 나누는 이 봉사의 직무는 궁핍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할 것이다(11-13절).



주전 54년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아그리피나 아우구스투스 신성 클라우디우스 네로 케사르 가족 어머니”(AGRIPPA AVGVSTI DIVI CLAVD NERONIS CAES MATER)라고 새겼고, 뒷면에 “네로 클라우디우스 신의 아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공화국의 권력”(NERONI CLAVD DIVI F CAES AVGV GERM IMP TR P)이라고 새겼고, 중심에 “원로원의 법령에 의해서”(EX S C)라고 새겼다.

넷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그리워할 것이다”(14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15절)고 하였다.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시

기의 황제들은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 41년 1월 24일-54년 10월 13일)와 제5대 황제 네로(Nero, 54년 10월 13일-68년 6월 9일)였다. 만일 바울이 각 지역교회들이 모아준 거액의 부조금을 금화(aureus)로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면,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금화는 은화 테나리(denarii)의 25배의 가치를 지녔다.

세움(שלום)의 일로서의 부조금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건축과 같은 특별한 사업에 필요한 목표금액의 모금달성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액수를 약정해주시기를 권하고 있다. 미국교회들에서는 때때로 신학교 건축과 같은 보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참석자들이 저녁식사(banquet)티켓을 구입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에서 연사들은 참석자들에게 모금목표액수를 말해주고 헌금액수를 약정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이후 주최 측에서는 약정헌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피드백까지 해준다.



트로아(Alexandria Troas)의 대웅당 겸 체육장 유적
에게해의 항구도시 트로아는 오늘날의 에스키 스타탄불에 있었다. 58년 후에 이듬해 58년 봄에 고린도를 떠나 4월초 유월절 때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 있었다. 그런데 57년 겨울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4절의 언급에서처럼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대표자들과 동행했을 뿐 아니라, 타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

바울이 고린도전을 쓴 것은 주후 57년 봄쯤에 에베소에서였고,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동년 가을쯤에 빌립보에서였다. 그리고 바울은 동년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

과도 함께 내려갔던 것으로 추정된다(4절, 행 20:4). 바울은 이들과 잠시 헤어졌다가 주후 58년 봄, 즉 유월절을 보낸 직후에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 일 주일간을 그곳에서 지냈다.

드로아에 머물 때 예배모임이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주간의 첫날, 행 20:7)인 일요일이었다. “안식 후 첫날”이란 요일명이 없었던 유대인식 표현이다. 성도들은 이 날을 ‘주일’(계 1:10) 혹은 ‘제8일째 날’(저스틴, *Trypho*, 41:4)이라고 불렀다. 모인 시간은 일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시간, 곧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해진 직후였다. 예배 중에는 강론과 주의 만찬이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고린도전후서보다 90년쯤 뒤에 기록된 저스틴의 〈변증서〉 67장에 헌금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재물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의향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내고, 모아진 것을 집례자에게 갖다 줍니다. 집례자는 이 헌물을 고아와 과부와 병이나 다른 이유들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나 나그네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한마디로 집례자는 모든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 글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써의 부조금, 축복의 선물로써의 부조금, 세움의 일로써의 부조금이 주일예배 때 걷는 헌금으로 발전되었고, 집례자(장로와 감독)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4.9. 약함과 강함의 역설(고후 10:1-18)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일부 신약성서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말씀의 검을 손에 쥔 바울(웨스트민스터)

원 안에 "estote ergo imitatores Dei sicut filii carissimi"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엡 5:1)라고 새겼다. 바울은 유대교 족쇄에 묶여, 율법(토라) 동굴과 폐쇄주의 배타주의 민족주의 세계관에 갇혀, 바울 자신과 새 언약의 교회를 대적해온 에비온파의 주장을 논박하였다(10:1-12:13). 그리고 고린도교회 방문계획을 밝힌 후 축도로 끝을 맺었다(12:14-13:10).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교회 방문계획이 변경된 이유와 화해를 언급하였고(1:12-2:13), 바울 일행이 수행한 새 언약의 직분과 화해의 복음을 논술하였으며(2:14-7:16), 유대인의 믿음과 헬라인의 믿음이 하나 됨을 위해서 가난한 예루살렘교회에 보낼 부조금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8-9장). 이어서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변증적인 글이고, 8-9장이 권고적인 글인 반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논쟁적인 글이다. 일부 신약성서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 곧 10-13장의 논쟁적인 글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추측이 옳다면, 이

글 곧 10장부터 13장까지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글보다 더 먼저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교회에 전달된 편지가 된다. 그리고 디도의 성공적인 중재로 말미암아 고린도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도함에서 쓴 ‘화해의 편지’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변증적인 글이 된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다 옳다면, 바울이 1장에서 고린도교회 방문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설명한 것은 13장에서 발표한 그 방문계획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고린도후서가 하나의 편지이기보다는 여러 개의 편지들을 하나로 엮은 것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후 57년경에 선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재구성해보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신약성서가 기록된 파피루스 조각 76개와 대문자 필사본(4-9세기) 250개 및 소문자 필사본(9-15세기) 2,800여개가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고대어로 번역된 개역판 및 성구집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이들을 모두 합하면 5,000여개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후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 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목적

바울은 사도권위의 목적 또는 새 언약의 일꾼의 목적이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라고 하였다(8절). 이는 사도 직분의 권위가 세움과 살림의 일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사도권의 잣대 또는 사도권위의 표준이 비방과 비난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세움과 살림의 손 내밀기라고 말한 것이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옛 언약의 일꾼들인 에비온주의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적으로 섬



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자신들 가운데 누가 참으로 사도직분을 가진 자들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공적 예배에서 하는 모든 순서의 목적과 신령함의 척도를 세움과 살림과 생명과 질서와 사랑과 섬김에 둔바 있다. 바울은 이 같은 것들이 빠진 행위를 모두 무익한 것으로 보았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처럼 간교하게 행동하거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하게 행하며, 진리를 밝히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림과 세움의 일을 하는 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이고, 그 직분이 영과 의의 직분이기 때문이며, 그 바라는 바가 땅의 것, 일시적인 것,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8-9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인 부조금(헌금)을 세움과 살림의 일로 보았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세움과 살림을 위해서 전사처럼 투쟁하였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박하였다.

첫째, 바울에게 있어서 유순함이든 담대함이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든 관용이든 모든 행위는 세움과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이런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호도하였다(1-2절).

둘째, 바울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사용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3-4절).

셋째, 바울은 이 무기,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에 속한 모든 “견고한 진” 곧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자 하였다(4-5절). 반면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세움과 살림의 일을 하기보다는 비난과 비방의 일을 하였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복음(심비)보다는 율법(육비)에 치중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1-2절) 혹은 “떠나 있으면 대담”(잘난 체)하지만, 대면하면 “약하고(겁쟁이이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1,8,10절)고 비난한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자량의 범위



바울과 그의 여성 제자 테클라(동굴 프레스코)
에베소에서 1892년에 발견되었으며, 바울을 사랑했던
여성제자 테클라(Thecla)를 바울과 함께 그린 유일한 그림이다.

바울의 자량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세움과 살림을 위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만한 것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12-18절에서 자신의 자량과 적

대자들의 자량이 어떻게 다른가를 폭로하였다.

첫째, 바울은 자화자찬하는 자들과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12절)고 말하였다. 적대자들은 고린도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스스로 사도인척 행동하고(11:13), 고린도교회를 지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자량이든 칭찬이든 그

жат대는 세움과 살림에 있다. 비난과 비방의 손가락질을 휘저으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죽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빛의 일을 행하고, 질서를 세우며, 살림의 일을 행하는 자들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12절).

둘째, 바울은 그리스의 소돔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운 참 사도요, 몸 바쳐 교회를 섬긴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 반면에 에비온주의자들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허무는 거짓 사도들이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가 주후 51년경 예루살렘총회 때 결정된 사항(행 15장)을 준수하고, 그 정해진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범위의 한계란 것은 자신의 선교지역과 그 대상이 이방지역과 이방인들이란 점과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3-16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반면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 곧 안디옥, 갈라디아, 고린도 등지의 교회들을 떠돌아다니며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며 신약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17-18절)고 하였다.

50. 약함과 강함의 역설(고후 11:1-15)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정의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따로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자들이다(고후 5:20).

둘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고전 4:1, 고후 3:6).

셋째, 영광이 넘치는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맡아 세움과 살림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고전 7:22, 고후 3:6-9).

넷째,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고후 2:15).

다섯째,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을 시키는 중매쟁이들이다(고후 11:2).



바법의 간계에 빠진 하와(미켈란젤로)

무화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곧 율법의 상징이다.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율법이 명한 동물제사가 죄악을 온전히 덮지 못한다. 죄악을 온전히 덮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뿐이다.

바울은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고후 5:20, 6:1).

둘째, 그들의 권세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작아지고, 세우는 일을 하면 커진다(고후

10장).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처럼 간교하게 행하거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하게 행하며, 진리를 밝히 떳떳이 드러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림과 세움의 일을 하시는 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이고, 그 직분이 영과 의의 직분이기 때문이며, 그 바라는 바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고후 4:2).

넷째,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후 4:5).

다섯째, 그들은 깨어질 것에 하늘의 보화를 담고, 낡아질 것에 속사람을 담고, 무너질 것에 영원한 것을 덧입히는 개혁가들이다(고후 4-5장).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같이 혹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을 질투하시듯이, 거짓 사도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질투심으로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와가 뱀에 속은 것처럼 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까 몹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거짓 사도들의 믿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은 예비온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자, 옛 언약의 일꾼들(여호와증인들)로서 새 언약의 일꾼들(그리스도증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토라를 엄격히 준수해야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지, 민족성별 빈부귀천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증인들 앞에서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팬(fan)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 교사였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었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움의 대상이었지, 헌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슈아였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행하여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였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할 자가 아니라, 빼앗긴 고토와 주권을 회복시킬 자였다. 그들은 “히브리인”(22절)들이었고, “지극히 큰 사도들”(5절,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13절)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4절)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그 같은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13절)고 하였다.

최근에 정리된 유대인 에비온주의자들의 성명서를 보면, 자신들



현대 유대인 에비온주의자들의 깃발

이 펼치는 유대종교운동이 예수님이 펼쳤던 바로 그 운동이고, 기독교는 바울과 다른 이들이 만든 종교이지, 구약성서의 믿음이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처한 바울은 거짓 교사이며, 유일하고 참된 이방인 선교사들은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말

한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토라와 할례와 침례를 통해서 참된 언약, 곧 구약에 입문할 것을 촉구한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예수님의 기적과 신성과 부활은 동화일 뿐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폐기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홀로 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성문토라를 엄격히 준수하는 여호와증인(Yahwism)들이다.

고린도교인들의 일부가 바울이 심히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거짓 사도들의 간계에 넘어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으드렸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에 합류하였으나 디도의 중재로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마음을 돌림으로써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

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목적

바울이 주후 51-52년경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빌립보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반면에 고린도교회에 침투한 에비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만드는 모습 (빌 타이머, 1997년, 남침례회 주일학교위원회)

후원금을 받아냈으면서 고린도교회로부터는 받지 아니한 것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11절).

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목적은 복음사역을 이유로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자비량 선교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정책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

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3주 정도 머물며 세웠던 데살로니가교회에 쓴 편지에서조차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살전 2:9)고 하였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노동하면서 선교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사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18개월간 장기체류하였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함께 사역하였으므로, 바울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천막수요가 많은 도시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다. 바울은 자신의 자비량 선교를 비난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9절).

주후 57년 말부터 58년 초까지 3개월간 고린도에 체류한 바울은 58년 봄에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3-35).

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삶과 정신 속에 살아남아 있다.

51. 약함과 강함의 역설(고후 11:16-33)

바울의 목회 자세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목회 자세가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첫째, 성도를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다(7-8절).

둘째,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7절).

셋째, 성도들에게 누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였다(9절).

넷째, 성도들을 사랑하였다(11절).

다섯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약한 자나 실족하는 자가 생기면 애간장을 태웠다(28-29절).



바울과 그의 제자들(동역자들)
시계바늘 방향으로 바울, 누가, 두기고, 디모데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변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책망하였고, 적대자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사도직의 우월성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 자랑은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12:5)고 한 말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적대자들은 바울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강경하다”(10:1)고 했고,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10:10)고 폄훼하였다. 이 때문에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 희에게 나타내었다”(5-6절)고 변호하였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전 15:9)고 자기를 낮춰서 말했을 바울이었다. 이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전 3:21)거나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다”(고전 13:4)고 말한 바울이었다.

사랑은 세움과 살림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사도직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폄훼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짓 사도들에 속아 넘어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교인들을 되찾아야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바울의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른 신앙의 반석위에 세우기 위한 애간장 태우는 사랑과 살림의 행위였다. 이 때문에 바울은 16절에서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고 했다. 이 말씀에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바보로 취급당할망정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만큼은 바른 반석 위에 세워놓겠다는 바울의 간절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다.

자랑에 대한 바울의 역발상

유대인들은 내세개념이 거의 없었고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으로 성취될 다가올 세상(Olam Ha-Ba)을 희망(Ha-Tikvah)하였기 때문에 또 그 희망의 성취와 이 세상에서의 복이 다 토라의 준수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한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였고, 강한 것은 정하게 여겨 자랑하였다. 바울을 대적한 자들의 자랑이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자랑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18절).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자랑에 속아 넘어

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의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19-20절)고 책망하였다.

적대자들의 수고와 업적이란 것이 실상은 매우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고린도까지 왔다는 것과 사도들의 추천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13절)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주후 51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총회의 결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자들이 지참한 추천장은 예루살렘의 에비온파들이 적어준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총회의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마음으로 결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행 15:24-29).



바울이 바구니를 이용해 탈출했던 다마스쿠스의 성벽

바울은 적대자들이 그토록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자신도 기꺼이 그들의 광대가 되어 자랑거리를 내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16-18절) 자신이 겪었던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들, 곧 옥에

간힘과 때 맞음과 죽을 뻔했던 일들과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23-29절)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적대자들과는 상반된 발상을 가지고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30절)면서 개종직후에 다메섹에서 아레타스 4세 왕의 총독이 자기를 잡으려고 성을 지키자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주한 일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가 적진의 성벽을 가장 먼저 넘어간 용맹한 군인에게 주는 무공훈장에 빗대어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함과 강한의 역설



나바테아의 페트라 주조 '프루타' 동전(주후 18-39년)
 전면에 아레타스 4세(Aretas IV Philopatris)
 왕과 샤킬라트(Shaqilat) 왕비의 두상을 넣었고,
 "나바테아의 아레타스와 샤킬라트 왕비"라고 새겼다.
 뒷면에 풍요의 별을 X자 형태로 겹쳐 넣고,
 "나바테아의 왕, 백성의 친구"라고 새겼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에서 강한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 반드시 약한 것이 아니라는 역설을 보여줬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세계인들은 가장 강한 짐승의 상징으로 양을 꼽았고, 동시에 가장 순하고 약한 짐승으로 양을 꼽았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역설을 보게 된다. 그 역설이 바로 기독교 사상과 구원교리의 핵심이다. 복음서에서 세상의 구세주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한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양으로 묘사한 것이 그것이다. 기독교에서 양은 양들을 치고 감독해야 할 강인한 목자의 상징이자,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할 여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어린양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된다는 사상이 기독교교리의 핵심이다. 가장 여린 것이 가장 강한 것이

고, 가장 미련한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능력과 지혜는 강함에 있지 않고, 약함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13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다.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들어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물리쳤다.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알렉산더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강한 그리스도를 원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었다.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구원은 속죄제나 속건제 때 바치는 숫양과 같은 희생과 약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다. 세계사가 말해 주듯이, 폭력을 쓰는 나라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다른 더 강한 폭력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시리아가 앓수리아에, 앓수리아는 바벨론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근동과 소아시아 및 그리스 일부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페르시아조차도 헬라에 무너졌고, 헬라는 로마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로마는 비폭력, 평화, 용서, 화해,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무너졌다. 군마대신에 나귀를 타시고, 왕관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홀대신에 갈대를 쥐시고, 왕좌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꺾이고 말았다. 이것이 약함과 강함의 진정한 역설이다.



엘라가바루스(Elagabalus, 즉후 218-222년)의 데나리온 전면에 월계관을 쓴 황제와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 아우구스투스"(IMP ANTONINVS PIVS AVG)라고 쓴 글씨를 새겼다. 뒷면 오른 손에 방향키를 왼손에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운명(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와 "포르투나 아우구스투스"(FORTVNAE AVGV)라고 쓴 글씨를 새겼다.

52. 약함과 강함의 역설4(고후 12:1-21)

셋째 하늘



바울이 언급한 “셋째 하늘”(2절)은 하나님의 성소를 뜻한다. 탈무드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하가다’(혹은 아가다)에는 일곱째 하늘까지 나오고, 위경인 <에녹서>에는

열째 하늘까지 나오지만, 바울은 첫째 하늘인 대기, 둘째 하늘인 우주,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성소까지만 언급하였다. 탈무드의 ‘하가다’에서 셋째 하늘은 만나를 만드는 곳이고, 위경인 <에녹서>에서 셋째 하늘은 에덴동산과 같은 곳이지만, 이 글들에서 말하는 하늘의 층(層)이란 것이 구별된 공간들을 뜻하는 것이어서 바울이 말한 삼층천의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주후 43년경에 어떤 성도가 “셋째 하늘”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고 했다(4절)고 했지만, 학자들은 바울 자신의 체험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지상의 에덴동산을 낙원으로 보았고, 플라톤은 그림자에 불과한 현상세계 너머에 실재세계인 이상(idea)세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신화에서는 깊은 지하세계에 낙원인 상젤리제(엘리시온)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인들은 복사꽃이 핀 무릉도원의 봄을

유포피아로 보았고, 유럽인들은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영원한 봄의 정원인 아르카디아를 유포피아로 보았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를 낙원으로 보았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음성, 문자, 형상(이미지), 꿈, 환상, 기이한 현상(기적), 성육신과 같은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고, 환상은 계시의 이 여러 형태들 가운데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환상이든 계시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는 바울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

밝히 드러내서 회개(권면)와 회복(희망과 위로)으로써 성도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조차도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면, 그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고,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말한 것은, 적대자들이 “사도의 표된 것”(12절)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적대자들의 자랑을 꺾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체의 가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14년 전 즉 주후 43년경에 체험한 사실을 제3자의 체험인 것처럼 우회적으로 자랑하였고,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도 “사탄의 사자” 혹은 “육체의 가시”라는 신체적 약함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딱 꼬집어 말할 수



길에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바울
셰델(Hartmann Schedel)의 목판
인쇄본, <누른베르크 연대기>(Nuremberg
Chronicle, 1493, 독일)에 실린 삽화.

는 없지만, 안질이나 간질로 추정된다.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나를 쳐서”를 간질환자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니발, 율리우스 시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영웅들이 간질 환자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신(神)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질병을 준다.”였다.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썼기 때문에 안질이 의심되곤 한다. 바울은 자주 대필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그 이유가 안질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바울은 제 몸의 가시, 그것이 비록 선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운 파수꾼이라고 믿었고, 둘째는 세 번이나 제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는 자신의 능력이 바로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과 자신이 가장 약한 그 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란 사실에 기뻐한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혹은 마음에 가시를 갖고 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고질병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거의 다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장

미꽃처럼, 향기 짙은 아카시아 꽃처럼,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처럼 제 몸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는 힘이다. 화려한 장미꽃과 향기 짙은 아카시아 꽃과 빛나는 별빛에만 가치가 있고, 줄기의 가시와 밤하늘의 어둠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장미꽃과 아카시아 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함과 향기를 자랑할 수 있고, 밤하늘의 별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욱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 어둠도 화려함과 향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꽃에 못지않게 나뭇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강요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좋든 싫든, 이익을 보든 손해를 입든, 합당하든 부당하든,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운명에 매인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담이 큰 사랑이다. 그러나 이 부담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기에 ‘거룩한 부담’ 혹은 ‘신령한 부담’으로 불린다. 이 무조건적이고 운명적이며 부담이 큰 신령한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계시되어 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바울 <보리스 안레프(Boris Anrep), 웨스트민스터대성당> 좌우측에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을 모자이크하였고, 아래에 라틴어 성구를 새겼다: "SURGE ET INGREDERE CIVITATEM, ET IBI DICETUR TIBI QUID TE OPORTEAT FACERE"(너는 일어나 시나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십자가는 헌신적인 사랑의 표시지만, 동시에 강요된 희생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속에 아픔이 있고, 남의 희생에 굶주린 자들의 원망과 비난이 섞여있다. 이런 원망과 비난의 실체가 실상은

우리 자신 속에서 자주 발견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랜 자비를 입고 산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원망의 화살을 쏘 부친 적이 있다면, 또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 자식 된 자로서 부모를 배신하는 원망의 화살을 쏘 부친 적이 있다면, 가장 헌신적인 사랑에조차 강요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본능(욕심)에 지배받고, 죄와 허물을 피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강요하게 된다. 특히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 사랑을 강요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이유이다.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강요당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자율적이고 숭선적인 사랑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인간은 기껏해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므로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붓고서도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듣고 계시듯이, 또 “하나님을 본받으라.” 혹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치며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듯이, 사랑에는 희생을 감수하고 비난도 받아야하는 ‘이중 부담’(double burden)이 따른다. 이 부담이 커질수록 사랑과 신령함이 커지지만, 동시에 아픔과 실망도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기듯이, 인간의 참 사랑도 결국 이기고 승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 부모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자가 아니다. 그것은 타락한 자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닌 것도 같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또한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사랑의 목적이 이익과 착취에 있지 않고, 세움과 살림에 있다면, 바울이 적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53. 약함과 강함의 역설(고후 13:1-13)

사도의 권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 방문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가면, 두 번째 방문 때 경고한바와 같이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신 19:5)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요구했던 것 같다.

평소 바울은 세움과 살림의 일을 위해서 약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강한 분이였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짓값을 짊어지시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실상은 그분이 약한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셨던 것과 같다.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랑의 주님으로 그려졌고, 순하고 약한 어린양으로 묘사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준엄한 심판의 주님으로 그려졌고, 일곱 뿔 일곱 눈의 어린양,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이제 그분과 함께 강하여져서 그들에게 사도의 권세를 엄중히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는 모두 성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여 그들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켜 살려내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경고대로 이뤄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또 바랐

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취할 수 있는 처벌에는 첫 번째로 공개비판,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령, 세 번째로 범죄자가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교가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주교의 사도의 권세 행사는 주후 390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있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테살로니가의 주민 7천여 명이 살해된 책임을 물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서한을 보내 공개적인 참회를 요구하였고, 참회 때까지 예배 참석을 금지시켰다. 이 사건은 황제가 맨머리에 베옷을 입고 참회함으로써 주교의 사도권의 승리로 끝났다.

바울의 권세는 사죄권이 있는 사도의 권세에서 나왔다. 사도들의 사죄권은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 20:23).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죄권을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예배의식에서 사죄를 선언하거나 성도로부터 고해성사를 받는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사도직 계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권이 없어서 사죄선언도 고해성사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도권의 목적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데 두지 않고, “세우려는” 데 두었다는 점이다. 바울은 사도의 권세가 무너뜨릴수록 작아지고, 세울수록 커진다고 보았다.

세움과 살림을 위한 권세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데 있지 않고 세우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권한 또한 그와 같음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랐다(5-10절).

바울의 약함에 대한 역설은 바울이 체험한 두 번의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의 경험이었다. 다메섹에서 나바테아(요르단)의 왕 아레타스 4세의 총독이 체포하려고 하자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쳤다(11:32-33). 그의 도주는



아우구스투스와 아그립파가 함께 새겨진 은화 데나리온 (주전 12년, 주조 책임자: COSSVS LENTIVS) 앞면에 떠날나뭇잎 관을 쓴 옥타비우스를 새겼고,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11번”(AVGVSTVS COS XI)이라고 썼다. 뒷면에 성벽과 부리모양의 관을 쓴 아그립파를 새겼고, “마르쿠스 아그립파 집정관 3번”(MAGRIPPA COS TER)이라고 썼다. 성벽 관(corona muralis)은 적의 방어선이나 성벽을 가장 먼저 넘은 지휘관에게, 부리 관(corona rostrata)은 해전에서 승전한 지휘관에게 씌어주는 훈장이다.

적의 성벽을 최초로 넘은 로마군 병사나 성을 정복한 지휘관에게 훈장(corona muralis)이 수여됐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바울은 개종직후 아라비아사막으로 내려가 일정기간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진 후 다메섹으로 되돌아와 복음전도에 힘썼다. 이를 지켜본 극우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바울은 다메섹을 탈출하여 예루

살렘으로 돌아가 자신의 개종사실을 알렸다(갈 1:17-18). 아레타스 4세는 예수님 시대의 인물로서 그의 딸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었다. 안디바가 자기 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격분한 아레타스 4세는 주후 29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치렀다.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 기도하였으나 거절당했던 경험이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운 파수꾼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능력이 바로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과 자신이 가장 약한 그 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란 사실에 기뻐하였다. 이 역설적인 기쁨의 배경에는 주후 34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행 9:1-19)과 주후 43년경에 하나님의 성소인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건이 있다(12:3-5).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를 출교시키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까봐서 몹시 걱정하였다. 바울은 모든 일의 목적을 세움과 살림에 두었다. 그것이 권면이든 징계이든, 칭찬이든 위로이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강함이든 약함이든, 회개하여 회복되는 데 두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하면서까지 준엄한 편지를 써서 보낸 목적은 10절에 나타난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한 사람이라도 출교당하거나 책망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7절)고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이 우려했던 일은 생기지 않았다. 바울은 그해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불후의 명작인 로마서를 저술하였고, 이듬해 봄에는 성도들의 따뜻한 지원과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었다.

평화의 인사



로마교황 베네딕토(Benedict) 16세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돌로메(Bartholomew) 1세가 2007년에 이터리 라벤나(Ravenna)에서 나눈 평화의 입맞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끝냈다(11-13절). 이 마지막 구절들은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의 지적처럼, “서신의 말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방법이자,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곧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 모인 교회들 간의 대화”로 볼 수 있다.

바울은 11-13절에서 일곱 가지로 고린도교회를 격려하고 강복하였다. 첫째, “기뻐하라.” 둘째, “온전하게 되어라.”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다. 셋째, “위로를 받으라.” 참회에 따라오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넷째, “마음을 같이 하라.” 파당과 분열은 조직을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일이다. 세움과 살림의 일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섯째,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 5:9)라고 하셨다. 여섯째, “거룩한 입

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일곱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한 입맞춤” 혹은 “평화의 입맞춤”은 초기 기독교의 인사법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전통교회들의 성만찬 예배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20세기가 될 때까지는 예배당에서 남녀가 동성

그리스도 형제교회 신도들이 애찬 중에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그리스도 형제 역사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맞춤은 옆자리에 앉은 동성끼리 나누는 ‘용서와 평화의 표시’였다. 미국에 보존된 1800년대 예배당들을 보면, 남녀용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었고, 1900년대 초까지도 남녀 사이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ㄱ’형태로 예배당을 짓거나 커튼을 드리웠었다. 오늘날에는 인사법이 각 나라의 문화와 예법에 따라 입맞춤, 포옹, 절, 상호 접촉, 악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꿨다. 한국에서는 목례를 하면서 “평화를 빕니다.” 혹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빕니다.”라고 말한다. 이 인사는 주기도문 후,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한다. “거룩한 입맞춤” 혹은 “평화의 입맞춤”은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에 이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떡과 잔이 제물이고, 그것들이 놓이는 상이 제단이다. 반면에 제물이나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에서는 예배 초입 때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